

I. 지역사회봉사활동 개발배경

1. 개발의 필요성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과거에 비해 개인적인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살고 있지만, 또한 한국 전통사회의 가치관과 서구의 가치관이 혼재된 와중에서 가치관의 부재, 가치혼란에 빠져 있다. 한 사회의 가치관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선택이 모여져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사회의 가치혼란은 어느 일부사람들의 잘못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었다. 동양과 서양 두 사회의 가치관 중 자신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것들만 선택하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며 살아 왔다. 그리하여 “나만이라도”의 사고체계를 가졌던 사람은 줄어 들고 “나 하나쯤이야”, “나만 잘 되면”의 사고체계를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둔화되면서 인간 본연의 품위와 품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청소년기는 어른사회를 받아들이면서 자아를 형성해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환경의 영향과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의 병폐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 자기 스스로 자아를 찾아볼 시간과 기회도 박탈당하고 집과 학교만을 오가며 접하는 좁은 경험의 틀속에 박혀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고의 틀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러한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고로부터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고의 틀을 형성하기 이전에 보다 폭넓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봉사활동 즉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사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직접, 간접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이러한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주위환경을 둘러봄으로써 자신이 전체 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과 인간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회복하고 지역 안에서 지역인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활동이다.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확립과 더불어 성숙된 인간성 회복운동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그 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정도로 자원봉사활동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봉사자 수는 전체인구의 약 1%로 일본의 9%, 미국의 20%에 비해 현저하게 뒤져있지만 근래에 들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 각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매년 20~30%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각 사회단체나 정부당국에서도 이같은 추세에 따라 94년 들어 조직을 강화하고 지원액을 늘리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나의 제도로 정착시켜 정부시책이나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자원봉사자들도 과거 사회복지기관의 모집에 응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자원봉사활동 대상을 찾아 나서고 있다.

각 대기업체에서도 사원들의 연수과정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넣어 사회의 그늘진 곳이나 자신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직업인으로서 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의 도덕성을 고양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중고교 등의 내신성적에 자원봉사 항목도 추가해 대학들이 입학전형에서 입시총점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중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라기 보다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미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안에 자리잡고 있어야 했다. 청소년기는 이상을 가장 많이 꿈꾸는 시기이며 또한 고독과 우울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다. 자기 이상실현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고독과 우울에

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남을 돕는 것,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이다. 자기의 좁은 자아에서 벗어나, 협동하고 남을 돕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즉 남을 도와줌으로써 이웃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동시에 자기-가치감, 자기-존경심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느끼기 쉬운 소외감, 고독감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가시간을 건설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역시 기성세대의 자원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다. 미국에서는 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만도 해마다 수 만명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12,000종류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1977년부터 문부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협력교」란 제도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하여 1991년도에는 800여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사회봉사, 사회연대 정신을 배양함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가정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도모케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사회봉사활동이 몇몇 청소년단체나 종교단체 그리고 의식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소수의 학교를 통해 간신히 그 명맥을 이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봉사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치열한 경쟁만을 강조하는 사회풍토에도 원인이 있지만, 봉사활동에 마음이 있는 그리고 봉사활동에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조직이나 여건이 부족하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총체적인 인간성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프로그램과 환경조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2. 개발의 목적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봉사활동 영역을 탐구하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이 활동을 통해 그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과 생명체에 대한 존엄성을 깨닫고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감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등 열린 마음의 소유자 즉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이란 무엇이고 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인식시킬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봉사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때만이 청소년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봉사활동에 임하여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이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연대감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내의 기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청소년 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 제국의 활동 프로그램을 수집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 봉사활동의 양적, 질적인 성과를 도모한다.

넷째, 관련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높은 성취감을 느끼고 수혜대상들은 부작용없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 관련자료 및 정보를 조사·수록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깊이있게 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흥미와 공감대를 불러 일으킨다.

여섯째, 선진 외국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현재는 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현실이나 청소년들의 여건과 맞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 하더라도 미래의 폭넓은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3. 개발의 방법 및 절차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 자료수집과 기관방문으로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의 현황과 기존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2. 외국자료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적합한 청소년 봉사활동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3. 봉사활동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중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참여관찰함으로써 실제 활동시 유의해야 할 점과 청소년 봉사활동으로 부적합한 내용들을 파악한 후
4. 질문지를 통한 현장·학계 전문가들의 개별자문 그리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과 개발보고서 방향을 확정하였으며
5. 관련전문가와 연구진이 함께 집필에 참여하였다.

1) 자료수집과 기관방문

국회도서관과 중앙국립도서관 그리고 대학도서관 소장 봉사활동관련 논문집을 수집·복사하고 서점을 통해 관련문헌을 구입함과 동시에 선진 외국 즉 일본, 미국, 프랑스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편지를 발송해 청소년 봉사활동 관련자료를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주요 일간지와 종교계의 주간지 기사를 통해 봉사활동 또는 봉사활동 대상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특히 중앙일보의 「자원봉사활동 캠페인」 기사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자원봉사활동 캠페인 사무국」을 통하여 프로그램개발에 매우 유용한 미국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

집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자원봉사 관련 국내단행본 30여권, 관련 국내논문 20여권, 그리고 일본자료 3종, 프랑스 자료 4종, 미국자료 5종을 수집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다.

기존의 우리나라 봉사활동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프로그램 종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기관을 방문하였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고등학교 봉사부, 대학교 봉사부, 교회 봉사부, 사회복지시설 은평천사원, 남부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등의 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다.

2) 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안) 구성

이상과 같은 작업을 통하여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안)을 잠정적으로 정하여 원내의 팀회의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수정·보완해 나갔다.

3) 봉사활동 참여관찰

봉사활동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그 전개과정을 관찰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감 등을 익혀 현재 개발중인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걸친 봉사활동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1) 영·엠마우스 워크캠프 참여관찰

- ① 목적과 의의 : 영·엠마우스 워크캠프는 종교, 인종, 성별을 초월해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가난한 이들의 삶에 동참하여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한마당이다. 노력봉사로 평소 자신의 편안한 생활만을 추구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러나 순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체험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영·엠마우

스 워크캠프의 가장 커다란 목표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봉사를 통해 서로 하나가 되어 인간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얻는다. 18번째 맞는 워크캠프인 들꽃마을 봉사활동도 봉사자들에게 봉사의 기쁨과 더불어 인간적인 성숙을 도모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② 참가자: 종교, 연령, 성별, 직업을 초월한 80여명의 봉사자(본부조, 취사조, 1-4조)

③ 장 소: 들꽃마을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15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거리를 돌아 다니던 무연고자를 비롯하여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의 정착촌이다. 현재 장애아동 30명, 중·장년 50여명과 할머니 할아버지 등 14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주민들을 돌보아 주는 10여명의 봉사자들도 함께 살고 있다. 장애와 고령화로 마을주민들의 노동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시설보수와 확충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 외에 빨래, 식사, 청소들도 봉사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④ 일 시: 1994년 7월 31일(일)~8월 6일(토) 6박 7일

⑤ 활동내용: 가. 정비되지 않은 길 공사(레미콘 5대 분량)

나. 묘지 정비작업

다. 성모단상 작업

라. 취사봉사

마. 장애인 돌보기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기 상						
6:00	아침체조 및 세면						
7:30	아 침 식 사						
8:00	발 대 식	오 전 작 업					정리청소
9:00	출 발						사진촬영
							폐 영 식
							출 발
		점 심 식 사					
	도 착	오 후 작 업					도 착
16:00	개 영 식						해 단 식
17:00	마을방문						
18:00	저녁식사	작업정리 및 도구 정리, 세면					
19:00	조별모임	미 사 붐 현					
		저 녁 식 사					
20:30	전체모임		마을잔치	내가만난 사람들 (작문)	연 극 (일대기)	Camp Fire	공지사향 전 달
22:00	공지사향 전달 및 묵상						
22:30	취 침						

(2) 청소년 수련거리 시범운영 참여관찰

- ① 목적과 의의: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장애를 당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장애시설에서 직접 일하는 시설 종사자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장애인을 돕는 활동에의 참여동기를 부여한다.

- ② 참가자:수련활동 참여 고등학생 100여명
- ③ 장 소:덕평수련원
- ④ 일 시:1994년 8월 11일(목)~12일(금) 1박 2일
- ⑤ 내 용:가. 장애체험활동

나. 자원봉사활동과 그 활동대상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VTR 작품감상

다. 시설종사자의 현장체험기

라. 질의 응답

상기한 두 활동의 참여관찰을 통해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함이 요청되었다.

- ① 활동 이전에 성원들간의 일치된 이념형성이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 왜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불화를 성원들간에 공감대로 형성된 이러한 목적의식 (예:종교)이 해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봉사현장에서 활동할 때 현지인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시킨다.

- ③ 봉사자들의 능력과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활동내용과 활동량을 정한다.

청소년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활동내용을 선택한다. 특히 노동봉사인 경우 전문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활동을 삼가고 단순작업으로 가능한 활동을 선택 하며 작업량도 활동시간과 능력에 맞추어 무리없이 정해야 한다. 작은 분량의 작업이라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한다.

- ④ 지도자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봉사자들의 능력과 특성을 이해하고, 해당활동에 관한 전문기술을 지니고 있는 지도자를 선정한다. 작업을 지도하고 지시하며 무리없이 봉사자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⑤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표를 작성한다.

수 십명이 동시에 활동하게 되므로 봉사자들을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 활

동영역 별로 조직한다.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고루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⑥ 세밀하고 구체적인 활동일정표를 만든다.

활동내용과 활동과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활동일정표를 만듦으로써 예정된 성과를 달성하고 봉사자들의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인다.

⑦ 활동규칙을 세우고 이것을 봉사자들에게 명확히 인식시킨다.

공동의 규칙을 세우고 이것을 활동자들에게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공동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인 행동을 삼가고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킴으로써 활동의 성과를 올린다. 또한 이탈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⑧ 봉사활동시 안전을 위해 세밀한 주의를 기울인다.

부수적인 사항이라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옷차림, 음식, 벌레예방책, 활동장에서 걸리기 쉬운 질병 등에 관한 유의사항이 활동장소와 활동내용에 비추어 세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⑨ .작업시간, 휴식시간, 오락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안에서 즐거운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질문지를 통한 전문가들의 개별자문과 연구진 회의

위의 과정을 통해 만든 프로그램(안)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지역사회봉사 활동에 대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문항 10개를 만들어 전문가들의 개별자문을 받았다.

(1) 개별 자문위원 명단

기관구분	자문위원/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고등학교	방 재 경 「대전 성모여고 봉사부 교사」	대전시 중구 대흥동 520번지 (301-010) Tel: (042) 226-7707/8
2. 복지기관 및 연구기관	오 용 진 「꽃동네 회장」 조 문 순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간사」 이 명 목 「은평천사원 편집 부장」	충북 음성군 인곡리 산 1-45 (369-810) Tel: (0446) 78-9813/4 서초구 방배 1동 922-16 진일빌딩 2층(137-061) Tel: 521-5364 은평구 구산동 191-1번지 (122-060) Tel: 383-0743
3. 환경운동 단체	정 용 규 「푸른평화운동본부 대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583-84 (704-370) Tel: (053) 633-3860
4. 사회복지학계	이 창 호 「중앙일보 자원봉사 캠페인사무국 전문위원」 김 범 수 「피어선 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Tel: 751-9990 서초구 잠원동 53 현대 APT 101동 1406호(137-030) Tel: (0333) 655-8701/5
5. 청소년수련시설	이 영 환 「수동 유스타운 전무」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송천리 133 (473-850) Tel: (0346) 593-0011
6. 청소년단체	김 영 숙 「대구 절스카웃연맹 국장」	대구시 수성구 범어 2동 48-2 (706-012) Tel: (053) 753-3563
7. 구청		

(2) 개별자문 질문항목

- ①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방향에 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에서 지역사회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③ 우리나라 청소년 봉사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준비된 자료에서 분류된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의 영역 중 비현실적이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시는 점들과 청소년 봉사활동으로 바람직하다고 평소에 관심을 두셨던 활동들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⑤ 본 프로그램 개발시 반드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활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⑥ 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이거나 이미 시행된 활동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⑦ 본 프로그램 개발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⑧ 본 프로그램 개발시 도움이 될 문헌이나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⑨ 청소년들이 귀 기관을 위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활동시 유의점 또는 기대사항들에 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대상기관)
- ⑩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위해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자문을 의뢰받은 10명의 인사 중 9명이 성실히 자문에 응해 주어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개별자문에 대한 자세한 응답내용은 II장 1의 전문가 개별

자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자문내용을 반영하는 외에 프로그램 팀의 원내회의를 통하여 청소년 수련거리들을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용의 방향을 잡아갔다.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1994년에 개발되는 10종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므로 다른 프로그램들과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도 다음과 같은 수련거리 개발을 위한 기본방침에 준하되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약간의 융통성을 가하며 그 내용이 구성되었다.

(3) 수련거리 개발지침

① 용어의 정의

가. 수련활동 (youth activity)

청소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청소년 활동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주체가 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체험중심의 집단활동

나. 수련거리 (youth activity program)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청소년기본법 제3조)으로서 프로그램의 목적, 집단구성원, 청소년 지도자의 3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다. 프로그램 (program)

예정된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 6하원칙
(what, why, when, where, for whom, how)

라. 수련거리의 특징

- 소그룹 중심: 15명이내의 집단조직
- 다수의 자원 지원자 및 이들을 지도하는 전문 지도자로 구성: 대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인사 등
- 참가자 활동 중심: 참가자들이 중심이 되는 소그룹을 통한 활동 중심

② 수련거리 개발모형(안)

가. 목표 (program goal)의 제시

각 수련거리 개발의 목적과 방향 또는 주안점 등

나. 수련활동의 방법론(methodology)의 제시

활동중심의 방법론

다. 수련활동의 방법론은 각 수련거리에 공통으로 제시

③ 수련거리 하위과정(subprogram)의 제시

인식과정(awareness program)

이해과정(understanding program)

탐색과정(attitude program)

실행과정(interaction program)

평가과정(appraise program)

* 상기 5개의 과정들은 독립적이면서 상호연관이 있는 순차적으로 심화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상기 5개의 과정들은 대체로 주제의 논리와 난이도에 따른 단계적인 접근이나 각 단계별 활동들 간에 논리와 심리적인 면에서 명확한 순서를 규정하지는 않음

* 상기 5개의 과정은 수련거리의 특성에 따라 단계를 축소하거나 조정 가능

④ 각 과정(subprogram)은 2~3개의 단위활동들로 구성 단위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성

활동목표

활동내용

유의사항

참 고

* 활동목표 - 구체적 행동지향으로 진술

* 활동내용 - 수련활동의 각본으로 가능한 구체적인 지도요령(instruction)으로 제시. 필요하면 활동내용을 그림으로 구성. 특

히 내용구성은 수련거리 개발의 핵심으로 게임(game)의 특성을 활용(프로그램개발 도구로서의 씨물레이션게임 참조)

5) 프로그램 및 보고서 집필

위의 절차를 통해 정해진 기본방침에 따라 내용이 구성된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집은 본원의 연구진에 의해 집필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과정과 내용을 설명해 주고, 내용을 보완해 주는 자료로 구성된 개발보고서 중 II장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의 내용탐색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집필에 의존하였고 또한 III장 일본, 미국, 프랑스의 청소년 봉사활동에 관한 사례는 수집된 자료 중 우리에게 적합한 부분을 발췌·번역하여 재편집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동안 수화같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요하는 부분은 연구자가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전문가들의 개별자문을 거쳤다.

II. 지역사회봉사활동 내용탐색

1. 전문가 개별자문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한 개별자문에서 학계와 봉사활동 현장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었다.

1)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방향에 관한 의견

김범수: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 봉사활동을 위한 교재, 슬라이드 및 비디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방재경: 청소년기에 겪게되는 급격한 생물학적, 지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인간성숙을 위한 심성계발과 정서발달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과 미래의 자원봉사활동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창조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

김영숙: 각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자기의 공간인 관계로 지역사회봉사활동은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단, 가정생활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자신의 역할부터 실천하는 생활태도가 요구된다. 성인들의 반사회 모임처럼 주거지역의 반이나 혹은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청소년그룹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임을 갖는다면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과 동시에 봉사활동의 성과도 올릴 수 있다.

이명묵 : 「지역사회」는 환경문제, 사회문제에 대한 체험·확인 of 장이며 지역 공동체적 정서와 동포애·인류애의 핵 근본단위이므로 사회봉사활동 철학의 구현, 그 시작은 지역사회에서 단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사업이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인만큼 여기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활동의 정체성(역사, 철학, 사회성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은 몇 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포괄성, 청소년의 정서에 부합하거나 진작시킬 수 있는 적합성과 진보성, 봉사활동의 수혜자, 수혜대상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양자성, 사회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역사성,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성과 토착성, 하나의 인간문화로 정착시키는 문화성, 40~50대 사회결정권자로 성장할 것을 예비하는 미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오웅진 : 필요성-모든 우주 만물은 깊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살아 있는 한 생명체이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나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불감증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팽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고 성숙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다양한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진지한 마음과 우러나오는 사랑에서 시작한다면 모든 피조물은 올바른 관계회복을 하게 되고 모두가 행복한 밝은 세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개발방향-병자,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과 자주 접촉하여 봉사를 생활화 해야 한다. 깨끗한 물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생명이며 자연의 건강이 곧 인간의 건강과 이해를 방향짓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식물을 가꾸는 자연학습을 함으로써 흙의 소중함과 땀흘려 피워 낸 꽃들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행복임을 깨닫고 저절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면 깊숙이부터 솟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올바른 꿈을 갖도록 함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시기에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빨리 드러나는 효과에서만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긴 기다림 속에서 더 큰 열매를 기대할 줄 아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크고 진실한 사람」을 향한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한다.

정홍규: 아동기보다 청소년기는 이들 행동의 사회적 의미가 크다. 신체적 성장과 심리적 성장, 특히 지적 능력이 충분한 발달을 이룩하고 개인적인 차이도 크다. 따라서 이들의 구체적인 행동규모도 커져서(예를 들면 가출, 성적행동 등) 그의 영향이 심각하다. 지역사회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욕구와 불만을 자연스럽게 표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그 필요성은 당연할 것이다. 청소년 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선 학생측으로는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높여 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설에서의 노력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들은 특수계층에 대한 선입견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의 관심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산발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수 모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본적인 교육, 활동정보의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청소년 활동, 사회참여의 제 1 테마를 「집단への 소속」이라 생각할 때 먼저 청소년 집단활동의 존재를 알리는 활동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사회참여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씨클 단체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중에서 좀더 신선하고 친밀감과 흥미를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

을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인과 청소년들 스스로의 인식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도 도시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단체를 통해서일 뿐이고, 군·면단위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형평성 있고 포괄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 선진국에서처럼 자원봉사활동이 생활화 되려면 민간단체에서의 활동이 활발하여야 하겠지만 아직도 우리의 실정으로는 정부의 지원(재정적, 행정적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민·관의 노력이 합쳐져야 할 것이다.

이영환: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자율성, 민주성,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교육활동으로서 참여와 선택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규정하는 학교 교육과정과는 달리 지도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흥미, 적성, 개성에 적합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학생청소년,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며, 개인의 창의성, 잠재적 능력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이, 성별, 계절별 특성도 고려되고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협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협동심 및 협동그룹을 형성하도록 한다.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유도할 경우에도 주체적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자아실현, 자기성취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며, 정서적 발달과 신체적 건강, 성격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는 그 자체가 문화의 장이며 다양한 자연환경을 통해 각각의 폭넓은 활동을 경험하고 사회정의나 도덕심을 익힐 수 있는 곳이어야 하므로 다양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관심을 활성화 시키는 데 지역사회

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창호: 필요성-인성개발, 학습효과 증진

- 개발방향-학교 → 지역사회경험 → 수업시간에의 반영 → 재경험
 - 미국 「service learning」 방식의 교육
 - 각 과목에 단원으로 연계 혹은 독립교과목 개설
 - 학교와 지역사회 합동 프로그램 개발

조문순: 지역사회봉사활동은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동안 빈곤과 소외에 대한 문제들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불성실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구조악으로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주위의 많은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과 상황들이 많다. 자원활동은 그러한 문제와 사람·상황과 때로는 여건이 되어 사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봉사를 위한 자원활동자들에게는 왜 자원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동기와 자원활동이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왜 발생하는가를 살피는 일이 중요할 것 같다.

2)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에서의 지역사회범주에 대한 의견

김범수: 지역사회의 범주는 대개 지역적인(region) 것과 인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group, heart 중심)로 나누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지역적인 개발이나 활동에 치우쳐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사회 범주안에서도 소외되어 왔던 계층들에 대한 연구·접근 봉사활동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한 이웃으로,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하겠다.

방재경: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과 여건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활동내용과 여건에 부합한 지역에서 실시해야만 프로그램은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하되 단계적이고 연

계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김영숙 : 반별, 아파트별, 학교별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이명묵 : 학교 중심의 지역-청소년 생활시간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소년 사회봉사활동의 제 일차적 활성화는 학교중심의 제도적 봉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원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구획할 수 있다.

교회 중심의 지역-청소년의 학교이외 사회적 조직활동이 가능한 공간은 교회이므로 교회단위로 지역을 구획할 수 있다.

거주지 중심의 지역-지역사회의 기본단위는 거주지역이다. 지역은 읍 단위, 중소도시 단위, 대도시의 구단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연중 1-2회는 타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므로 「주 지역사회」 + 「범 지역사회」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오웅진 : 봉사활동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잡았으면 한다. 각 지역에 따라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고 생각된다. 도시 청소년, 농촌청소년, 어촌 청소년별로 이들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봉사활동의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 아니므로 전국적인 대규모, 소규모 봉사단체를 상세히 조사하여 소개하고 봉사인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과잉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되도록이면 가까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봉사인력의 수와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인력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마다 지정 시설을 설정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흥규 : 지역사회의 범주는 우선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범위여야 하는데 이러한 관할 지역설정이 일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 구체적인 지역설정은 매우 난

해하므로 여기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겠다. 그러므로 동사무소(일선 행정기관), 기관(사회복지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나누어 장·단점을 간략히 생각해 보기로 한다.

○동사무소-동단위의 지역사회범주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실패과약이 쉽고 인접성, 지역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유대가 강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실제 동단위로 지도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없다. 그러므로 동사무소 주도의 활동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상일지라도 언급해 보자면, 동단위의 봉사활동을 위한 새로운 행정체계(예를 들면, 청소년 복지과, 청소년 수련활동계)를 통한 독립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좀 더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기관(복지관, 청소년센터)-현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아동복지와 병행되고 있어 영역의 독자성도 요구된다. 현재 대구에는 남구외에 복지관이 1개 이상 있으므로 청소년 봉사활동의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면 연계성(기관들끼리의 연계)이 있고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겠다.

○학교-가장 큰 장점은 청소년들끼리의 유대가 강하다는 것, 집단화가 용이하다는 것, 교육을 통한 동기부여가 쉽다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화 방안에서 언급되는 「협력교」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이창호: 지리적으로 가능한 근린지역(예: 구, 군)으로 범주화하되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으면 거리에는 구애받지 않는 것이 좋다.

조문순: 생활과 활동이 가능하고 유대감이 형성되는 공동생활권으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봉사활동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

롯된 활동일수록 자신이 해야하는 일에 대한 구상과 자치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 청소년 봉사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

김범수: 청소년 봉사활동의 실태와 문제점을 한 마디로 언급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청소년 활동은 대개 수련활동이나 지도자 훈련을 지향해 왔으며 봉사활동에는 크게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 같다. 봉사활동이란 단순히 봉사활동을 한다는 그 의미보다는 지역사회의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주고 이러한 사회문제는 바로 국가와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나) 자신이 참여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김영숙: 우리나라 청소년 봉사활동의 실태는 학교수업의 과중으로 인하여 거의 형식적이다. 만일 지역사회 중심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상급 학교 진학에 봉사활동 실적이 가산된다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명묵: 대학생과 미혼 직장여성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생들은 교육제도와 부모들의 인식부족으로 활동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① 활동동기의 사회성 희박 ② 봉사활동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봉사활동의 전문성 결여 ③ 단기간의 봉사기간 ④ 봉사활동의 사회적 철학의 미정립 ⑤ 사회적 무관심 ⑥ 봉사자의 일방적 시혜적 자세 등을 들 수 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① 초·중·고·대학에서의 봉사활동 의무화 ② 청소년 지도자가 전문봉사활동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 ③ 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주지시킴 ④ 봉사활동의 준비, 실천, 평가에 대한 연구기관의 투자 ⑤ 봉사활동의 상호만족도

증대를 모색하는 연구진행 ⑥ 기업체 직원의 봉사활동 제도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웅진 : 현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는 주로 「종교단체」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몇몇 학교에서만 사랑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소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보다는 타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봉사활동을 할 경우 봉사에 임하는 마음자세와 태도의 준비부족으로 봉사자나 상대방 모두 마음이 불편하고 봉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순수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지 못해 다음 봉사기회에 대한 기대와 열정도 적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봉사활동에서 보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전에 봉사의 의미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 중에서 참가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여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홍규 : 현재 청소년 봉사활동은 극히 한시적이고 시설 등에의 노력봉사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프로그램도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사회참여활동(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활동에 대한 정보부족외에도 무관심,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의식 때문인데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사회참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인식제고의 여건마련을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봉사활동의 개요를 알려 이 활동을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는 사회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문상담기관의 소개는 물론 조직이나 시설단체 내에서도 상담지도 담당자를 두어 활동에의 참가 동기부여 등을 위한 체제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기관, 조직, 시설 단체 등에서는 자체정보에 대해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봉사활동자들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많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의식 제공이 필요하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일본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협력교 형식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 같다. 협력교란, 전문기관(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활동기관)이 지정한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지도를 일정기간 병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기관과 학교의 장단점을 보충한 형태라 보여진다. 유의할 점은 기관(전문가)에서 직접 모든 것을 담당하기 보다는 교사(준지도자)나 일반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일반 청소년(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는 청소년)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영환: 우리나라 봉사활동은 대학생들과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마저도 점차 농촌의 근대화 등으로 봉사활동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봉사활동도 그 의미를 잃어가고 활동자체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막상 농촌봉사활동도 농사에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도와주는 것을 원치 않아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고 있어 봉사자들의 의욕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제한된 짧은 기간동안 그저 농촌의 삶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었다는 의의만을 가질 뿐이다. 더우기 청소년들의 활동은 거의 기대하기가 힘들 정도이며, 입시위주 풍토의 우리 실정에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학부모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 때의 이런 봉사활동은 우리 땅, 우리 냄새를 접하게함으로써 애국심 고취와 미래세계에 대한 개척정신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경험이 되는 것이다. 봉사활동은 공동체의식과 동일성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경험임을 인식하여 입시 뿐만 아니라 취직시에도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두어서는 정말 핵가족시대에 「나」밖에 모르는 아이를 양산할 뿐이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련활동 기간도 1박2일, 2박3일의 짧은 기간이 아닌 충분한 기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험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창호 :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갈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중·고 교과과정에 봉사활동과정을 한 단원으로 삼입시켜야 할 것이다

조문순 : 청소년 봉사활동의 실태와 문제에 대하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다. 다만 활성화 방안으로 몇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을 제시해 본다면,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천활동에 있어서는 자치적이어야 하고 지역의 복지조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방법으로는 ①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봉사활동의 정착화—봉사활동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직접 자원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에서의 활동일 것 같다. 수용시설은 주중에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용시설은 낮동안만 운영하므로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정착시키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것 같다(예를 들면 특별활동시간). 지역의 복지관, 수용시설과 중간기관(즉 한국청소년개발원,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시교육청과 같은 정부기관이 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수업의 일환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② 복지관과의 직접적인 연관체계에 의한 봉사활동—복지관마다 장애아동이나 비장애아동을 위한 캠프프로그램이 여름과 겨울마다 있다. 그 때마다 자원활동자를 모집하는 일이 버거운 일로 인식되기 쉬운데 방학 중 청소년들이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같이 집중적으로 참여하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의 실현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

4) 제시된 자료에 분류된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영역의 적절성과 바람직한 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한 의견

김범수: 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여러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이란 아직까지 성장하는 세대로 이들에게 그와 같이 다양한 봉사활동 분야에 참여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이들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이나 인식을 시키며 가벼운 봉사활동, 외국의 봉사활동 사례교육,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 가정의 견학 등을 통하여 전문을 높여주는 즉,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지역봉사활동에 시간적 또는 물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방재경: 청소년 봉사활동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적극 권장할 만한 활동으로는 첫째, 재활용품 수거활동 및 재활용품 애용 권장활동, 폐유를 이용한 무공해비누 제조활동과 사용 권장활동, 둘째,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 한끼 식사를 제공해 주는 곳에서 자원봉사하는 활동, 셋째, 불우 어린이들이 사는 집 방문 및 활동 가능한 시간에 보충학습을 해주는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김영숙: 부적절한 활동-방문봉사활동

바람직한 활동-환경보전활동(오물수거, 껌떼기), 약물오남용 캠페인

이명묵: 부적절한 활동-수집·모금활동은 1), 3), 4), 5) 영역의 활동을 하면서 자원조성이 필요한 부분과 시점에서 하나의 부분작업 또는 연계작업으로 경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바람직한 활동-봉사활동은 반드시 대상만을 위한 봉사이어서는 안 된다. 개인에게는 미지의 세계와의 만남, 불확실하거나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 세계에 대한 이해의 기회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각 성원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배

경에서 ① 「군복무 봉사활동」은 군민교류의 시초가 되고, 군입대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있어 향후 군병영 생활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산업체 봉사활동」은 다양한 직업현장과 만날 수 있고, 산업·기업의 사회·인류에의 기여도도 감지할 수 있다.

* ①② 모두 봉사일정의 1/2은 봉사활동, 1/2은 교육으로 구성한다.

오웅진 : 수집·모금활동 중 바자회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으나 물건을 많이 팔려는 열성이 자칫하면 이해타산을 키우게 될 수도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한 활동은 무연고인들을 위한 병원에서의 환자돌보기 활동과 농촌일손돕기 활동으로 특히 농촌일손돕기 활동은 농촌 일손이 바쁜 시기에 현장체험을 통해 우리 농촌의 소중함과 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정흥규 : 환경·생명 관련활동은 ① 환경·생명 살리기 ② 재활용 운동 ③ 환경보호 홍보활동을 주요활동으로 하여 성교육(낙태방지), 우리 밀 살리기, 재생센터 환경물품 제작·보급, 안전한 먹거리, 우리상품 안쓰기, 청소년 상담 환경자료집 발간 등의 세부 활동을 통해 우리 밀 큰잔치, 재생일일장터(아나바다장터, 생산자와 직거래), 저공해비누 제작(폐유), 재생화장지(우유팩), 합성세제·삼푸·치약 안쓰기, 유기농산물 직거래(우리밀식당 '밀수레'), 인스턴트식품 안먹기, 「늘푸른평화」 생명·환경자료집 발간, 환경책자발간 등의 성과를 올렸다. 요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활동비중도 이에 맞춰 독립적인 하나의 활동영역으로 환경관련 활동을 새로 넣었다. 큰 비중이 주어져야 할 부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 지역사회봉사활동이므로 도시지역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방문봉사활동에 넣은 농촌일손돕기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

이영환: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의 영역들은 청소년들이 전인교육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예·체능교육, 특별활동, 수련활동 등에서 소외되고 있어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봉사활동을 실시하기에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학력편중의 사회적 풍조에 따른 영향과 부모로부터의 강한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① 가정교육기능 회복차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일환으로 자연권과 생활권 수련시설을 이용한 문화, 체육, 예절,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② 학교의 전인교육 및 문제학생 지도 강화를 위해 학교 특별활동반과 지역예술단체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지역예술인의 학생 특별활동지도와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공공 및 민간 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연 1회이상 수련활동 실시를 의무화 한다. 그리고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학생 1인 1단체 가입을 권장한다. ③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위해서는 근로청소년 취미활동 지원으로 정서함양을 위한 순회연극 및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고,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개최 및 창작활동 지원과 아울러 농어촌 청소년의 문화권 탐방활동(고적답사, 견학, 민속놀이), 방학기간을 이용한 농·어촌 일손돕기, 도·농 청소년의 합동수련활동을 실시한다.

이창호: 저소득층 지역사회 방문활동은 그 곳 학교나 사회복지기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불투명(예. tutoring, 재개발참여 등)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역사회기관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기관, 사회사업가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스포츠나 행사 자원봉사자도 필요하므로 함께 구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조문순: 각 영역에 대한 내용은 문제없지만 자원봉사자, 관리자, 최종적인 사회환경과 정부의 의지 이 3주체의 활동에 대한 방향성과 문제지적이 별로 없어 실시할 때의 현실성이 미약하다. 이러한 방안들이 꼼꼼히

점검되어야 각 영역의 프로그램들이 현실성있게 진행될 것 같다. 바람직한 봉사활동으로는 「가족 만들기」활동으로 의정부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연락처 : 0351-874-8081 현성주 관장)에서 실시했던 행사의 내용처럼 지역의 불우한 아동이나 장애아동, 외지할 곳 없는 노약자, 청소년 이렇게 3인 가족만들기를 청소년이 주도하여 자치적으로 해 보게 하는 것이다. 이 때 필요한 활동은 지역의 아동과 노인에 대한 조사활동, 홍보, 프로그램 만들기 등이다. 또 다른 추천활동은 지역조사와 관련하여 지역의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것으로 지역의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얼마나 자유로이 이동을 하고 있는지, 미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조사를 하고 조사에 대한 발표 및 문제제기를 한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에 대한 상을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체크리스트는 공공건물, 교통시설, 문화시설로 나누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점자유도블록이 있는지, 보도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5) 본 프로그램 개발시 반드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활동들에 대한 의견

김범수 :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자재를 개발한다. 또는 직(직접참여)·간접적인(견학, 강의, 사례발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방재경 :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한 청소년들의 시간과 여건의 조성여부와 분야별 영역설정 및 단계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이명묵 : 인식활동과 이해활동은 활동의 의미, 목적, 실례에 대한 소개, 대상(집단, 지역, 단체문제)에 대한 자료·정보를 인식·이해하게 하는 활동 단계로서 주요한 활동단계이다. 나눔활동에서는 평가의 자리에 봉사활동 대상의 대표자나 대변인이 동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자나

대변인은 가능한한 활동을 가까이에서 면밀히 관찰한 사람이거나 활동 자체를 함께 나눈 사람이 적합하다.

오웅진 :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 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이 필요하다.

정홍규 : 앞서 언급했듯이 「활동」은 「인식」에서부터라고 생각된다.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도 구체적인 활동의 인식에 앞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조기교육을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월성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 계획 「사회복지 조기교육을 위한 시범프로그램」은 아직 미실시 단계여서 공식적으로 밝히긴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중·고생으로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식(교육)에서 활동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 여기서는 그 개요와 내용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개요 : 월성 카톨릭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본 나가사끼현과 시험적으로 사회복지 초등교육용 책자 발간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경쟁적인 교육열, 과잉보호 및 왜곡된 인간관 등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가치관에 일대 변화가 일고 있다. 이는 각종 청소년 범죄의 유발과 공동체의식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 이념의 올바른 이해와 필요성은 매우 절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교육의 단계에서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이념을 조기에 교육함으로써 앞으로 생활속에서 사회복지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기르고 인간이해 및 자아실현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다.”

*** 프로그램 내용과 평가 방법**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평가 방법
사회복지의 이해증진	교육용 책자 발간 프로그램 대상집단 선정 대상집단교사 초청설명회 개최 사회복지교육	-보급율 -대상집단, 비대상집단간의 변화 정도 -참석율과 이해도 -교육일지
생활태도 및 의식 변화기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단기) 감상문 쓰기 설문조사	-임소활동 일지 -조사지 분석
평 가	프로그램 평가회의 사례집 출판	-회의기록

*** 프로그램 목표와 효과평가**

목표 ①	사회복지 조기교육
평가지표	사회복지 이념의 이해도
성공의 기준	이해도의 향상
평가방법	교육 전후의 사회복지 이해도 측정
목표 ②	아동들의 생활태도 변화 유도
평가지표	이웃에 대한 관점의 변화
성공의 기준	이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생활만족감
평가방법	시설 단기입소 참가율 감상문 쓰기 교육받은 학생과 받지않은 학생과의 가치관 분석 (설문지법)
목표③	학생자원의 효과적 개발
평가지표	지속적인 교육욕구

성공의 기준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확대
평가방법	참여학생의 지속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이영환: 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 개발

② 학생수련활동 및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하여 학교의 전인교육 및 문제학생 지도방안 프로그램(수련활동, 예·체능교육, 특별활동) 개발

③ 저소득층 무직·미진학 청소년과 농·어촌 청소년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개발

④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범국민적 대처 프로그램 개발

⑤ 보호시설수용 등 국가의 요보호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창호: 빈곤문제 및 지역사회 가치(공동체)를 인식시키고 이의 실태파악과 현장경험을 통해 돕는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문순: 지역사회 보호활동에서 단순히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난지도 방문이라든가, 환경오염정도를 측정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또 더불어 살기 위한 봉사활동으로는 농촌봉사활동을 들 수 있겠다. 아직은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되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집중식 봉사활동도 좋을 것 같다.

6) 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소개

김영숙: ① '94 보궐선거에서 유세장 오몰수거(특히 담배꽂초)

②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캠페인

③ 선거후 벽보판 홍보물 떼기

④ 약물 오남용 캠페인 — 시민으로부터 서명받인

이명목 : 중·고등학생 — 청소, 설거지, 식사보조, 놀이·대화 상대 (장애아동
이나 10세 미만의 일반아동)

* 봉사활동이 단순한 1회성 방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요건과 성격
이 미흡하다.

대학생 — ◦정서지도 프로그램

풍물반, 역사반, 생물반, 과학반, 문예반, 지점토반 등

◦종교활동 프로그램

장애아동들의 신앙생활 원조활동(이동, 야외예배 봉사)

◦프로그램 보조활동

아동의 「캠프」, 방학중의 「겨울학교」, 「여름학교」, 「성경
학교」, 「X-MAS 잔치」 등에서 프로그램 진행요원이나 진
행보조자로 활동

◦학습지도 프로그램

오웅진 : ◦환자 돌보기 — 식사돕기, 목욕시키기

◦주방일 돕기 — 식당에서 식사준비

◦주변환경정리

* 프로그램 중간에는 친목도모를 위한 「캠프 화이어」, 「소감문 작
성」 시간도 있고 봉사활동을 마친 후 봉사팀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정홍규 : 이미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그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푸른평화 어린이 특공대」를 본보기로 소개한다. 국
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내용면에서 매우 알찬 프로
그램이다. 푸른평화 어린이 특공대는 1992년 12월 28일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대상은 대구시 달서구지역 국민학

교 4, 5, 6학년생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어린이 특공대를 만든 목적은 감수성이 한창 풍부한 어린이들을 환경보호활동의 주역으로 동참시켜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다. 특공대 어린이의 선발과정을 살펴보면, 푸른평화환경수첩(자료첨부)을 숙지하여 이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선발하였는데, 1회에는 지원자 150명 중 50명을 선발했다. 여기에 별도의 면접과정도 거치게 된다. 특공대 어린이로 선발되면 우선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방학기간 동안의 캠프활동(겨울:겨울바다학교, 여름:산간학교)과 함께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월 1회)모임활동이 병행되어진다. 주요활동으로는 지역탐사활동의 일환으로 달서구 진천천 탐험, 우리고장 환경지도 만들기 등을 실시했고, 우리 마을 환경캠페인과 우리 밀 살리기 큰 잔치에 참여하여 지역내 환경, 생명살리기에 앞장서기도 했다. 또, 음성 꽃동네 마을방문, 낙동강 오염사태 이후 환경청앞 침묵시위 등 지역사회의 범주를 넘어 활동하기도 했다. 이러한 1992년의 어린이 특공대 활동이 지역사회는 물론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어 '93년 2월 「영남시대」(대구문화방송 다큐멘터리에 1시간 방영)가 방영된 것을 비롯, 주요 일간지에 그 활동이 보도되기도 했다. 어린이들의 활동은 학년이 바뀌면(중학생이 되면) 중단되기가 쉬운데 교육과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가 필요하다. 특공대 어린이들은 중학생이 되면 「늘푸른평화」의 회원이 되어 그 활동의 맥을 이어나가게 된다. 앞서 사회복지 및 환경에 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어릴때부터 단체활동을 통해 배운 교육은 그 이후의 교육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영환:「선택식 체험활동」－ 사회봉사체험활동

학생수련활동 입소 전 학생들에게 다섯 가지 영역 중 학생들의 취미 및 관심도에 따라 미리 선택을 받아 대집단(500~600명)을 소집단으

로 세분화(100명미만)하여 인솔교사 및 교육지도자 3~4명의 인솔하에 학생들이 몸소 체험하게 하는 활동으로 특히 사회봉사체험활동 영역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상당한 관심과 봉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이다.

① 신망애복지타운 방문활동

일정계획	9:00 — 9:10	신망애 재활원 이동
	9:10 — 9:30	신망애 재활원 소개
	9:30 — 10:30	장애인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시간
	10:30 — 11:00	자원봉사자 지원활동 사례발표
	11:00 — 12:30	재활원생 피복빨래 재활원생 숙소청소 뇌성마비 장애인 목욕시키기 재활원 주변청소
	12:30 — 12:50	봉사후 소감발표

② 남양주군 수동면 노인회관 방문

일정계획	9:00 — 9:10	노인회관 이동
	9:10 — 9:30	노인회 활동소개
	9:30 — 10:30	노인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10:30 — 11:30	노인회관 청소 및 봉사활동
	11:30 — 12:00	소감발표

③ 수집·모금활동

- 신망애복지타운 장애청소년(뇌성마비,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인 등)들과 입소 둘째 날 밤 9시~9시 30분까지 음악발표 및 악기연주를 하는 사랑의 공연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기쁨을 주고 있으며, 그 공연을 보고 청소년들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 건강에 대한 감사 등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 자발적인 모금활동에 참여하여 퇴소식 시간에 전달식을 갖는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조그마한 성의 표시이지만 도움을 드

림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보람과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실태의 심각성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수학여행등을 통해 흡연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기관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수련시설에서는 묵인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부득이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된다. 이 때 입소하는 초·중·고생의 경우 중학교 학생은 평균 담배 2상자(라면박스), 주류 1상자가 수집되기 때문에 그 처리문제를 고심하던 중 이제는 남양주군 수동면 노인회관의 노인대표를 초대하여 학생들 보는 앞에서 전달식을 갖고 있다. 학생들의 불만도 감소시키고 학생들에게 금연 및 금주교육도 된다. 대신 그 답례로 둘째 날 노인회원으로 구성된 농악대 및 취주악대를 모시고 우리놀이 한마당 공연을 지원받음으로써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악의 그윽한 향기를 느끼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있다.

이창호: 중앙일보 자원봉사 사무국은 언제나 방문을 환영한다.

많은 사례와 자료가 있다.

조문순: 연구소는 정책개발과 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 내부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없다. 단지 편의시설에 관한 조사활동과 장애체험 행사가 있는 정도이다.

7) 본 프로그램 개발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김범수: 너무 무리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재경: 전문분야의 연구위원, 현장지도자와의 충분한 공동연구가 요망된다.

이명목 : 고려해야 할 사항

- 봉사활동에서의 「지역사회」 개념 - 「나」 중심의 지역사회는 물론이지만 타 지역에서의 지역단위 봉사활동도 지역사회봉사활동으로 개념화 하여 청소년들의 경험과 사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사회 봉사활동, 소록도 봉사활동, 지방문화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 「일일봉사」도 많이 할 수 있으나 「3~4일간 봉사」도 종종 필요할 것이므로 학교, 지역단체, 기관의 협조를 얻어 방학 중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도 요망된다.

유의해야 할 사항

- 양자성 -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봉사자의 입장이 주가 되고 대상의 입장은 간과되기 쉬우므로 대상에 대한 배려가 요청된다.
- 성장성 - 활동을 통한 자기만족과 내적성장, 부분적 만족, 성취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경험이 축적되면서 봉사활동 자체(이해, 적응, 방법, 철학, 애정, 난이도, 전문성, 다양성 등)가 발달단계의 한 과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오웅진 : 프로그램이 행사위주의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서적, 인격적 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 고려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정홍규 : 청소년 단체활동의 목표는 구성원의 정신적 건강의 향상, 타인의 복지에 대한 책임감의 수용, 사회전체 문화의 창조적인 발전 등이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관심, 욕구 등은 이들의 행동, 사회적 태도, 가치관과 대응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 집단조직, 프로그램 전개, 구성원에 대한 지원 등에 있어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교육에서도 단기교육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

힘든 면이 많다. 장기적으로 활동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봉사활동」이란 것을 「시간낭비, 귀찮다, 남이 하겠지」등의 지금의 인식상태에서 「즐겁게 느끼고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흥미있고 친근감 가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인식정도에 맞추어 점차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의 전개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영환: 시대변화 및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의 부족과 기존 프로그램의 단체별 독점을 지양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도별로 시범실시 후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확충·운영방안의 일환으로 자연권 및 생활권 수련활동에 전문통화, 춤, 연극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공연물의 청소년 관람확대 및 시청각 자료 목록을 발간, 배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봉사활동 수련거리는 청소년들의 덕·체·지가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각종 활동욕구와 이용대상, 연령,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적, 생리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보급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창호: 학년별 발달단계별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달리해야 하며, 지역사회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통편, 부모의 허락, 안정성,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한 타당성도 생각해야 한다.

8) 본 프로그램 개발시 도움이 되는 문헌이나 자료 소개

김범수: 김범수 편저, 「재가복지론」, 홍익재

일본청년협회(일명 JYVA) 자료 「Japan Youth Volunteer Association」

정홍규: 별도 첨부자료

① 푸른평화 환경수첩

② 「늘푸른평화」 최근호 10권

③ 푸른평화 리플렛 2장

청소년 교육자료 참고목록

① 생명을 하늘처럼 정홍규(성바오로 출판사)

② 생명문화 1 「생태와 여성」 푸른평화

③ 「사랑과 생명」-청소년 성윤리 교재
K. K 마스트 (대건출판사)

④ 자연건강 자연치료 앤드루 와일(푸른평화)

⑤ 재미있는 저공해비누 이야기 푸른평화

⑥ 재미있는 저공해비누 만들기 푸른평화

⑦ 안녕하세요, 지구어머니 푸른평화

⑧ 우리 지구를 위한 식사법 푸른평화

⑨ 미디어 바로알기 푸른평화

이창호: 미국의 Service Learning(초·중·고) Guide Book, 기타 Video tape 등

조문순: 노인 데이케어와 장애인 데이케어를 소개합니다.

취해 당시만 하더라도 자원활동자를 모으는 일이 제일 힘들고, 단순한 보호에는 자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데이케어는 시범사업으로 남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연락처는 841-2077(김성수)입니다.

9)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활동시 유의점 또는 기대효과에 관한 의견

이명묵: 장애고아와 결손가정 아동을 수용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시 유의점은 ① 지도자와 청소년 대표의 사전답사 요망 ② 부모없이 사는 친구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언행조심 ③ 시설청소년들과의

만남을 예비한 세심한 준비 ④ 학급단위 방문봉사보다는 소그룹 방문봉사 등이다.

기대효과는 부모없는 동년배들의 삶의 현장을 체험한다는 것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많은 의미를 줄 수 있다.

봉사 가능한 활동으로는 ① 국민학생-단순방문, 견학 ② 중고생-청소, 설거지, 환경미화, 놀이, 공동여가, 가족교환방문, 장애인 야외보조 ③ 대학생-각종 문화활동

오웅진 : 기대효과는

- 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드리고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는 시간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효의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
- ② 장애인들과의 생활을 통해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다 존엄한 인격체임을 일깨워 줄 수 있다.
- ③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다.
- ④ 주위의 자연경관을 통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다.

정홍규 : 청소년을 위한 생명운동 쪽지 「늘푸른평화」(푸른평화운동본부 발행, 발행인-정홍규 신부) 편집 및 발송작업을 매월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 장소 : 상인 청소년 생활관내 쪽지 편집실

* 봉사자 현황 : 편집-대학생 1년생 1명, 효성여중생 7명

상담편지-대학 1년생 6명

발송작업-효성여중 도우미 85명

〈현재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소속 상인 청소년 건전생활관이 푸른평화운동본부의 협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구 달서구 지역 청소년들의 생활중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려 한다.〉

10)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위한 기타 다른 의견

- 김범수: ① 현재 관계부처에서도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초·중·고 교과내용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아울러 교육 및 실천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 ② 자원봉사 경력인정제가 현재 각 분야에서 연구·검토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경력인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③ 청소년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육과 중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와 실천의 장이 필요하다.

김영숙: 시청 청소년과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내용을 명시한 소개 책자를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명묵: ① 봉사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제도 및 사회제도 마련
봉사활동을 진작·고무·보상하는 제도의 마련없이 단시적 활동으로 그치기 쉽다.
- ② 봉사활동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인식전환 작업
청소년들이 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전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③ 지도자 교육
활동성과는 지도자의 열의와 방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지도자 교육이 필요하다.
- ④ 연계활동
활동은 단발성이어서는 안 된다. 각 회의 프로그램은 연계적 의미를 갖는 활동이어야 한다.
- ⑤ 개인활동 그림표 작성
청소년 개개인은 활동 프로그램의 소속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의미만 가져서는 안 된다. 각자의 활동 욕구와 경력을 기록하는 「봉사활동 나무 그림표」 등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이영환: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 및 비수기에는 지역주민 및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하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제공한다. 각종 문화행사를 수련시설에 유치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교류의 장, 지역행사의 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련시설 안에 전문상담요원 배치를 의무화하여 지역 청소년상담 및 청소년문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수련시설은 관할 지역안에 거주하는 청소년 지도자 및 지역주민 자치조직 위원 등을 자원봉사자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자원봉사자는 관련 분야에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로 제한하고 각 수련시설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보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창호: 선진국 사례를 많이 연구한 후 한국의 지역사회, 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서울시와 대학교가 함께 연계 공동작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금년 말까지 (늦어도 내년 3월초까지) 프로그램 분류표, 활동 프로그램 사례 등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별자문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시 반드시 반영이 요구되는 몇 가지 원칙을 얻을 수 있었다. 좋은 의견들을 다 반영하고 싶었으나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중심으로,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선택했다.

첫째,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지역사회 범주는 우선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체험확인의 장이며 공동체적 정서습득의 장으로서

학교중심 또는 거주지 중심의 근린지역으로 한정하였으나 연중 1~2회는 타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므로 「주 지역사회」 + 「범 지역사회」의 개념을 사용한다.

둘째,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 측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활용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특성과 여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인식전환 측면에 우선 순위를 둔다.

셋째, 기존의 청소년 봉사활동이 사전준비 없이 이루어져 비능률적이고, 봉사자나 수혜자 양측 모두 불편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감소시키고 봉사활동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활동 전에 봉사의 의미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은 후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단계화를 시도한다.

넷째,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의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영상자료와 봉사현장 실무자의 강의와 사례발표, 봉사자들의 체험기 소개, 외국 청소년들의 활동사례와 활동방법 소개, 간접체험활동, 현장견학과 현장에서의 실제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확한 의미전달을 시도한다.

다섯째, 가능하면 봉사활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는다.

여섯째, 1~2시간용 활동 프로그램부터 중기, 장기 활동 프로그램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둔다.

일곱째,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청소년들이 소화해 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부족한 부분은 지도자들이 위의 자문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과제

1) 서 론

최근들어 우리사회에도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초 언론기관에서 자원봉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하면서 학교, 기업, 단체, 정부 등 사회 곳곳에서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 대학 및 초, 중, 고교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시키겠다고 발표하고 대기업 및 정부부서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는 등 자원봉사를 향한 사회적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있는 작업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 자원봉사의 제도화이다. 중앙일보의 캠페인 직후 서울시 교육청이 95년도부터 서울시내 중학생 전학년에게 자원봉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98년에는 고교입학 내신성적에 자원봉사 성적을 반영하고 동 제도의 첫 적용자인 95년 입학 중학 1학년 학생들부터는 자원봉사활동을 내신 관리 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라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하게 하는 것은 그 의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불우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때 학생들은 바른 성품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주권의식을 가꾼다. 또 현장을 접해봄으로써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해 보는 산교육을 경험한다. 학생 자원봉사는 이처럼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다목적적 효과를 갖는 귀한 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향한 사회적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울려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자원봉사가 생활로 정착되기에는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현장에서 자원봉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 글은 우리사회에서 특히 초·중·고등학교들이 자원봉사를 임의적 활동이 아니라 교과과정 및 학급 활동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조

치와 과제들이 있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시간외의 클럽활동이나 개인활동으로 자원봉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의 일부를 할애, 지역사회에 나가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며, 학교측의 과제는 무엇이며, 학부모, 지역사회의 주민, 기관, 정부 등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글은 이같은 학생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선진외국, 특히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집중 연구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것은 우리에게 조직화된 학생 자원봉사란 그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이고, 일에 특히 초점을 맞춘 것은 동 국가들이 90년대 들어 초·중·고등학생 자원봉사의 제도화 작업이 기타의 선진 국가들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논의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다. 먼저 학생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화 조치가 필요한가, 둘째는 학생 자원봉사를 둘러싼 지역사회 제(諸) 집단들의 상호역할과 관계정립에 관해서며 끝으로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 및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제도화 요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사회나 자원봉사의 빠른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사회적 유인책(incentive)이나 강제(force)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에서 그것은 역시 진학에 관련된 조치일 것이다. 즉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이 입학사정에 초·중·고교시절의 자원봉사 경력을 반영하거나 또는 대입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입학사정에 반영하든, 내신성적에 포함시키든, 아니면 일정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졸업필수로 의무화하든 모든 것이 방향만 달랐지 사실은 자원봉사의 제도화이다. 그것은 결국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똑같은 적용을 유도하는 일률적인 조치인 것이다.

만약 그같은 일률적 조치없이 개별 학교, 학생들의 자의의사에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 입시위주의 치열한 공부경쟁이 전부인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어느 학교, 학생이 먼저 나서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학생 자원봉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모든 학교들에게 일률 적용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 자원봉사를 「강제」할 경우 그것이 무슨 「자원봉사」냐고 반문할 지 모른다. 자원봉사를 「스스로 봉사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경우 그같은 주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생 자원봉사를 봉사(service)가 아닌 교육(education)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개념을 달리 한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강제」조치가 결코 부당한 조치는 아닐 것이다.

성장기의 초·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이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삶의 현장에 직접 접목해 보고 학교는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따라서 그것은 일방적인 「봉사」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교육」의 한 작업일 수 있는 것이다.

학생 자원봉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려는 시도는 90년대 들어 미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가 공공정책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고 학생 자원봉사 역시 그같은 맥락에서 법과 제도로 개입하고 있다. 이들의 경향을 살펴본다.

(1) 자원봉사와 공공정책

선진국 중 자원봉사를 공공정책(public policy)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나라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유럽 국가들 역시 국민 대다수가 자원봉사를 생활화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만큼 국가가 개입해 제도적 활성화를 꾀하지는 않는다. 유럽국가들의 자원봉사 전통은 교회, 종교 사회단체 등 철저히 민간중심적이다. 국가는 단지 재정적 후원만 할 뿐 미국과 같이 자원봉사진흥법을 만들고 공공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재정관리를 하는 등 제도화를 꾀하지는 않는다.

이는 유럽국가들이 미국과 달리 국가가 국민복지의 대다수를 돌보는 복지국가(welfare state)로 일찌감치 흘러갔기 때문이다. 국가의 복지부담이 늘면

서 상대적으로 민간 영역이 줄어들고 따라서 전통적인 교회, 종교단체들의 자선활동만 남게됐다. 국민들 다수는 사회복지 보다 환경, 체육, 문화 등 타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부분이 개인적 취미생활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가능한 한 국가의 복지부담을 적게 했던 미국은 민간복지의 활성화 작업으로 정부가 자원봉사 영역에 개입을 했다. 여기에 미국 특유의 시민정신 강조라는 지방자치, 지역사회 중심의 민주주의 전통이 있다. 이같은 전통들이 미국을 유럽과 달리 공공정책을 통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게 한 것이다.

미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조치는 60년대 대빈곤전쟁(the war on poverty) 기간 중 각종 연방 프로그램을 조직하면서 시작이 되다 71년도 「Action」이란 연방기구 등장, 73년 국내자원봉사법(The Domestic Volunteer Service Act) 제정 등으로 가속화 됐다. 이후 8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 프로그램과 자금이 늘어나고 90년대 들어와서는 부시행정부의 전국지역사회봉사법(The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으로 정부-민간체계가 보다 확립됐으며 최근 클린턴 정권이 들어서 새롭게 「AmeriCorps」라는 공공 자원봉사자 조직, 학생 자원봉사 활동 지원확충 등으로 더욱 그 폭이 넓어졌다.

일본은 미국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국가 공공정책이 크지는 않다. 미국과 달리 자원봉사 진흥법이 없다. 그러나 전후 20만명의 민생위원이라는 공공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최근엔 문부성 지침으로 고교 내신에 자원봉사를 반영토록 하는 등 제도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2) 학생 자원봉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생 자원봉사 역시 그 제도화에 있어 미국이 가장 앞서고 있다. 미국의 학생 자원봉사 제도화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책과 그 성질이 다르다. 자원봉사 진흥법을 통한 미 연방 및 주 정부의 공공정책은 주로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및 성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경력인정, 수당지급 등 지원책이 중심이었다. 이들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역시 민간부문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꾀하자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미국의 자원봉사 진흥책은 단순히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강제」의 차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자원봉사를 졸업필수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주로 주정부의 법이나 지시로 실시되는 이같은 강제규정은 90년대 들어 처음 시작돼 현재 빠른 속도로 미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미국에서 자원봉사를 공립고교 졸업필수로 규정토록 허용한 주는 모두 17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적게는 10시간에서 많이는 2백시간까지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졸업장을 주었다. 보스톤의 15개 공립 고등학교는 60시간을, 메릴랜드주의 2백3개 고등학교는 75시간을 자원봉사해야 졸업을 시켰다.

과연 지역사회에 나가 불우이웃을 돌보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 문화·체육행사를 돕는 자원봉사 행위가 강요될 성질의 것인가? 아무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 해도 자원봉사를 강요할 수 있는가?

지난 92년 7월 메릴랜드주가 미국 최초로 주내 공립학교들에 75시간의 자원봉사를 졸업필수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할 당시 주의회에는 이를 반대하는 5개의 반대법안이 상정이 됐다. 지난 해는 또 펜실베이니아주 고등학생 2명이 학교측의 강제에 반발해 대법원에까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들 모두 패소했지만 아직도 자원봉사에 대한 강제여부는 미국에서 큰 쟁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강제할 것인가의 논란에 관계없이 미국 대다수 고등학교들은 오늘날 학생 자원봉사를 새로운 각도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자원봉사가 교육의 일부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벌이는 각종 자원봉사의 체험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교육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 자원봉사의 경험은 협동심, 정직함, 성실함 등 인성개발은 물론, 현장확인을 통한 학습내용의 정확한 이해라는 교육과정의 일부로 충분히 통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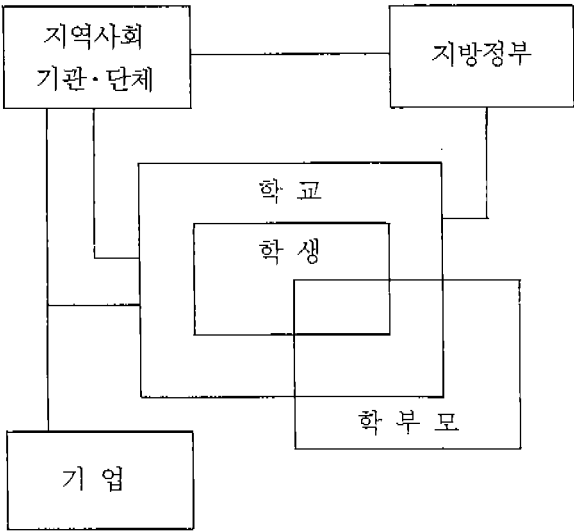
그같은 믿음에서 오늘날 미국의 학생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volunteer service」가 아닌 「봉사 학습 service learning」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학습과정에 통합이 되고 있다. 학생들은 정규 교과과정에서 교사의 지도아래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을 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이 교내 프로그램에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3) 체계적 접근 Systems Approach

학생 자원봉사를 교육과정으로 의무화시키든 아니면 순수 자원활동으로 하든 자원봉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집단들의 역할과 상호관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은 무슨 역할을 맡고 지방 정부는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학생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제(諸) 집단들이 파악되고 먼저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이 정해져야 한다.

한 지역사회내에 제 집단들, 즉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기관·단체, 정부, 기업 등과 같은 제(諸) 체계(system)들의 역할과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방법을 사회복지학의 용어로 「일반체계적 접근 general systems approach」이라 부른다. 이 체계적 접근방법을 이용, 아래에 학생 자원봉사가 제도화 될 경우를 상정한 자원봉사의 체계 모형을 제시해 본다.



<그림 1> 학생 자원봉사를 위한 지역사회 체계모형

〈그림 1〉에서 보듯 한 지역사회에서 학생 자원봉사 관계집단은 학생 자신들을 포함해 크게 6개 집단이다. 학생 임의적 활동이 아니라 학교당국의 지도하에 제도적으로 실시되는 학생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 관계집단간에 어떤 역할배분과 상호관계가 있어야 할까? 필자는 앞서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참조, 6개 집단은 각각 아래와 같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학생

학생들은 자원봉사의 주체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 그들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일정부분 학부모와 연결되어 있다. 물론 학생들 중에는 스스로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

② 학교

학교는 학생들과 더불어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이다. 제도화 모형에서 학교는 단순히 지원체계가 아니라 봉사교육을 실시, 관리할 주체인 것이다. 그림에서 학교는 학생들을 대신해 지역사회 기관·단체, 기업, 정부 등과 연결되어 있다.

③ 학부모

학부모는 지원체계이다. 그들은 학교, 학생들과 자원봉사 활동 주체의 일정부분을 공유한다. 즉 학생들을 어느 자원봉사 현장에 보낼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동의를 하고 학교 활동을 감독한다.

④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기관·단체들은 협력체계이다. 그들은 학교들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배치하며 활동을 감독·평가한다. 이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은 학교외에도 지방정부, 기업들과 연결이 되어있다. 즉 지방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학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거나 보험가입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⑤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학교 자원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단체들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만약 내신반영과 같은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정부 관할 교육청의 감독역할은 아주 중요할 것이다.

⑥ 기업

지역사회내의 기업 등 민간 재정원 역시 지원체계로 참가할 수 있다. 기업은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을 간접 지원할 수도 있고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 교재개발을 돕거나 세미나, 교사훈련과 같은 작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때로는 자원봉사를 위한 기능훈련의 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

4) 운영 준비

학생 자원봉사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제 집단들의 역할과 상호관계가 정해지면 다음으로 중요한 작업이 자원봉사의 소프트웨어적 측면, 즉 운영문제이다. 즉 제도적 작업과 함께 초·중·고등학교들이 학생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제반 능력과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학생 자원봉사를 제도화해도 학교와 학생들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에는 교사들의 훈련, 교재의 확보, 학부모들의 동의 등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과 정부의 지원 등 여러가지 측면이 있다.

필자는 우리사회에 학교 자원봉사가 제도화될 경우를 상정해서 동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전준비가 필요한가를 서술코자 한다. 이 작업에는 역시 미, 일의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

(1) 교과과정 통합

학생 자원봉사가 학교밖의 임의작업이 아닌 교실내의 작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교과과정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개별활동이나 수업시간 틈틈이 행하는 단순한 교양정도가 되고 따라서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미 「전국청소년리더쉽협의회 National Youth Leadership Council」에서 발간한 한 책자에 따르면 학교가 자원봉사를 학교 프로그램에 통합시키는 방안

으로 다음과 같이 9가지가 있다.

클럽	알선	학점	실습	교내	과목	별도	범학	봉사
활동				활동	확대	과목	교적	윤리

즉 학교들은 위 방법들 중 하나 혹은 여러 개를 혼합해 교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9가지 방법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원봉사를 학교 교과과정에 통합시키는 폭이 강하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학교들은 과거와 달리 점차 오른쪽 방법들을 택하고 있다. 즉 자원봉사를 단순히 과거와 같이 학생들의 자치 클럽활동이나 교내 알선센터(clearing house)를 두어 알선해 주는 것을 넘어 기존과목을 확대하거나 자원봉사를 위한 별도과목을 개설,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일부학교들은 표의 맨 오른쪽 방법들과 같이 학교전체가 자원봉사에 맞춰 수업이 구성되어 있거나 지역사회 전체가 학교들과 협동해 자원봉사의 윤리를 강화하는 방법론을 택한다.

미국에서 학생 자원봉사를 교과과정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학교당국만의 주장이 아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의 자원봉사 제도를 개혁하면서 『나는 모든 주에서 학생들의 사회봉사가 교과과정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생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폭을 늘렸다.

자원봉사를 교과과정에 통합하고 성적에 반영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수업시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별도의 자원봉사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케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을 팀으로 나눠 팀별로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계획, 수행케 한 뒤 교사가 그 과정, 결과를 평가, 성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는 학기중 학생들을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에 보내 개별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케 하고 그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학교는 각 기

관들과 사전에 자원봉사 실습을 위한 상호계약을 맺어야 하고 기관이 수퍼비전 및 평가 보고서를 학교측에 보내도록 조치해 놓아야 한다.

셋째는 각 과목별 교사가 수업시간에 강의내용과 자원봉사를 연결시키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자원봉사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시간에 학생들에게 빈곤문제를 강의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빈곤 지역사회에 나가 봉사활동을 펴고 그 느낌, 문제점 등을 보고서로 작성케 하거나 정치문제를 강의하면서 선거 캠페인에 직접 참여한 소감을 리포트로 작성케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고 각 교과서에 동 자원봉사의 사례와 내용을 많이 담고 수업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봉사학습 service learning

미국에서 80년대 후반부터 자원봉사를 교과과정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각 주에 확산되고 있는 「봉사학습」의 특징은 학교가 철저히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클래스를 통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 「봉사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 미네소타주의 워크어바우트(walkabout) 프로그램을 살펴 보자.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시에 있는 린데일 국민학교는 지난 88년부터 매년 서머스쿨에 이 워크어바우트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서머스쿨이 개설되기 앞서 학교측은 관내 대학교, 고등학교들과 합동으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한 명의 고교생이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5학년 학생 6명을 맡고 이 그룹 2개조를 한 대학생이 맡는다. 그리고 대학생 2팀을 한 국민학교 선생님이 맡아 결국 한 선생님 밑에 2명의 대학생, 4명의 고교생, 24명의 유치원 및 국민학생들이 피라미드식으로 조직되게 「봉사학습팀」을 짜는 것이다.

6명으로 팀이 구성된 국민학생들은 서머스쿨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자원봉사 프로젝트 구상에 들어간다. 학급에 모여 불우이웃이나 지역사회를 도울 만한 각종 아이디어를 펼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봉사학습에선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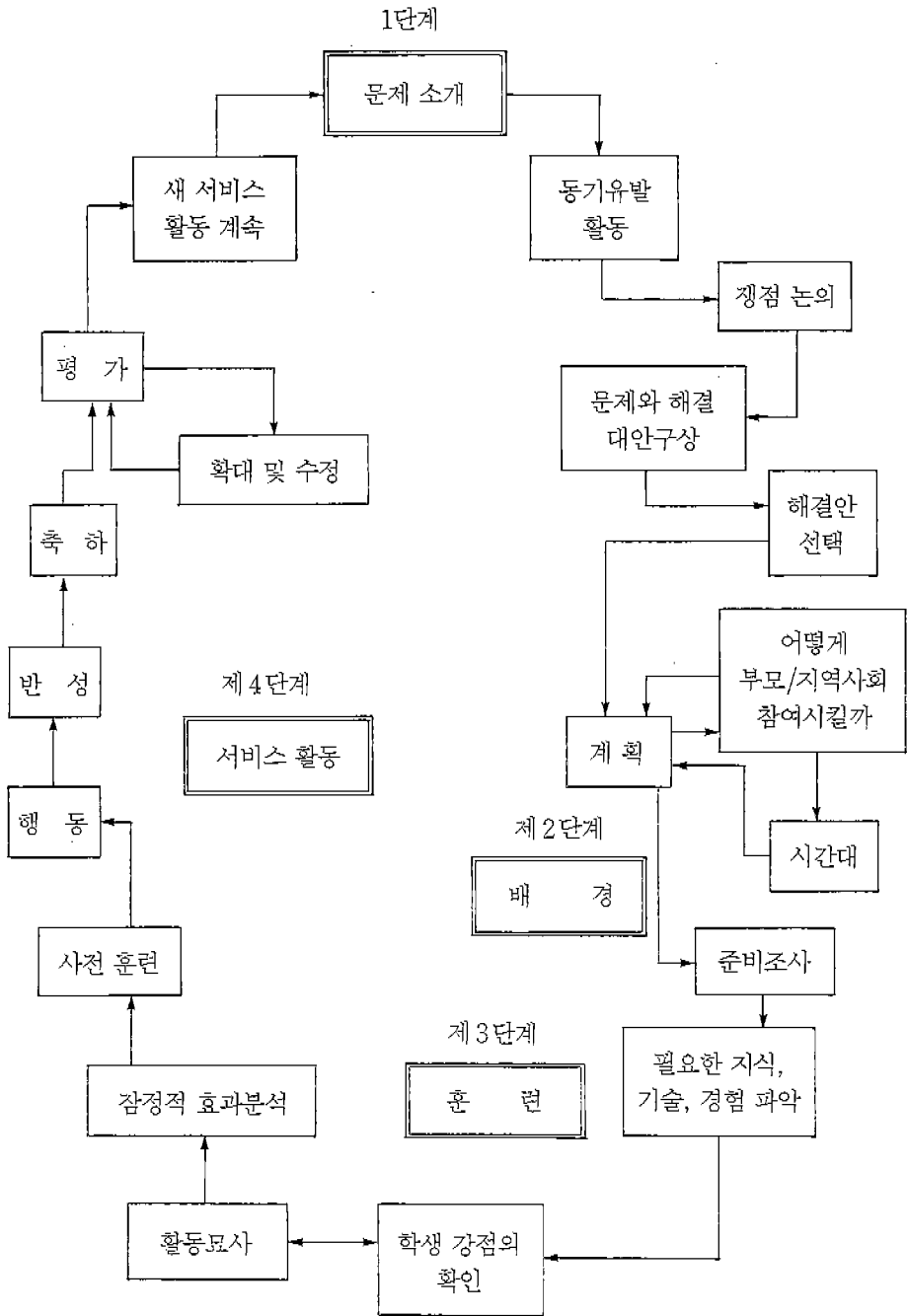
preparation」단계라 한다. 이 아이디어 결집과정에서 학생들은 고교생 형, 또는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 현장답사를 해 보거나 관내 전문가들을 교실에 초빙, 토론을 벌인다. 예를 들어 「집없는 사람들 homeless」을 도우려 할 때 그들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빈곤지역 현장을 가보거나 사회복지 시설의 관장 또는 사회복지사들을 교실에 초청, 질문과 토론을 벌이는 것이다. 때로는 빈민실태를 다룬 책이나 비디오를 보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결집하고 프로젝트를 결정하면 학생들은 활동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활동에 들어간다. 이 단계를 「행동 action」단계라 부른다. 즉 학생들은 성금을 모으기 위한 일일바자회를 계획했다면 직접 포스터를 만들고 표어를 붙이고 장소를 꾸민다. 부모들에게 바자회 초청 편지를 쓰는 것도 각자가 한다. 이 과정에서 고교생 대학생 선배 및 학교가 도와주는 물론이다.

세 번째 단계는 「반성 reflection」단계이다. 즉 자신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행동이 끝난후 교실에 다시 모여 자신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반성한다.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보람이 있었나, 봉사대상자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었나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역시 선배 및 선생님이 이 평가작업을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법을 구상한 뒤 새로운 「준비」계획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봉사학습」에서 순환적인 이 세 가지 단계, 즉 준비-행동-검토(P-A-R)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학생 스스로 자율적임은 물론이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도하며 개인별 평가를 한다.

〈그림 2〉는 이 「봉사학습」의 순환적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림 2〉 봉사학습 순환과정

(3) 교재의 확보

미 「봉사학습」의 예에서 보듯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나 학생들을 위해 각 학년별로 자원봉사의 종류와 교육방법이 설명된 충실한 교재가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학교 1학년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이 고등학교 3년생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같은 영역, 같은 종류의 자원봉사라 해도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 이 점에서 미국 매릴랜드주의 「학생봉사연맹 Student Service Alliance」과 「전국청소년리더십협의회 National Youth Leadership Council」등이 발간해 낸 학년별, 발달단계별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사례집은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소재한 「학생봉사연맹」이란 기구는 민관 합동기구로 매릴랜드주가 자원봉사를 졸업필수로 법제화한 92년도에 주정부의 지원으로 설립이 됐다. 설립후 동 연맹은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초·중·고 학년별로 각종 자원봉사 교육방법론을 담은 교재들을 개발해 냈다. 그리고 매릴랜드주 내의 각급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계속해 오고있다. 동 교재들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원봉사 교재물은 사례집 책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빈곤가정,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들의 실태를 담은 비디오 테잎, 특정분야의 문제들을 분석한 논문집 등도 교과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그 밖에 관내 지역사회 지도, 각 기관 단체 명단, 신문기사 등등 교실의 한 모퉁이는 자원봉사를 위한 하나의 작은 자료센터가 되면 좋을 것이다. 자원봉사 자료센터는 이렇게 각 학급별로, 또는 학교 도서관이 종합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교사 훈련

학교측은 각 학급이 자원봉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훈련이다. 교사들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기관·단체들에 보내 세미나 또는 교사 워크

샵에 참가토록 하고 학교에 외부 강사들을 초청, 교사전체를 대상으로 한 훈련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또 같은 학교가 아닌 타 학교의 자원봉사 운영현황을 살펴보는게 좋다. 그 점에서 역시 매릴랜드주 「학생봉사연맹」의 일련의 교사 워크샵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훈련된 교사에 의한 훈련된 자원봉사 지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역시 이점에서 미국 「봉사학습」의 P(준비)-A(행동)-R(검토)등의 숙달된 학습지도 방법은 우리도 주의깊게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5) 평가방법 확립

학생 자원봉사가 내신반영 등의 형태로 제도화될 때 가장 중요한 사전작업이 각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평가틀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서울시는 95년부터 중학 1년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내신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동 평가틀 연구작업을 벌였다.

학생들을 외부 자원봉사 기관에 보내 실습을 하게 할 경우 그 일차적 평가자는 해당 자원봉사 기관들의 수퍼바이저이다. 이 경우 각 기관이 각자 다른 평가기준을 세우지 않도록 학교측은 학기초 그들 수퍼바이저들을 모두 학교로 초청, 학교측이 요구하는 공통기준을 숙지시켜야 한다. 이 점은 내신반영의 경우때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이 내신 평가틀을 마련한 후에는 전 학교들을 상대로 동 기준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해 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 활동이 선다형 객관식 문제풀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객관적인 평가틀을 마련하고 기관들의 의견을 참작한다고 해도 그 최종심사는 결국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이점에서 내신 평가틀 같은 것은 지나치게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칫하면 오히려 그 적용을 둘러싸고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어 차라리 대괄적인 지침만 마련하고 그 적용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6) 지역사회 및 정부 협조

학교측이 아무리 교사, 교재 등에서 좋은 준비작업을 갖추었다고 해도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의 협조가 없으면 학생 자원봉사는 대부분 물거품으로 끝난다.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은 학생 자원봉사의 성공을 결정하는 학교측의 중요한 카운트 파트이다. 그들은 학생들을 받아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보호(care)를 하며 감독(supervision)과 평가를 한다. 이 점에서 지역사회 기관·단체 소속인들의 자질과 준비태세 역시 학교측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역사회 자원봉사 기관·단체들이 학생 또는 전국민 자원봉사 시대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체계적인 작업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원봉사 정보 안내, 배치를 위한 전산망 시스템, 조정자(coordinator) 개발 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료개발 등등 현재 우리사회는 해야 할 작업들이 산적해 있다. 학생 자원봉사의 체계적 운영 역시 그 맥락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의 전문 기관·단체들은 또 단순히 소극적인 입장에서 학교에 협조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내 학교들에게 학생 자원봉사를 요구하고 협의해 갈 수 있다.

학생 자원봉사의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및 정부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역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본다.

『미, 일의 사례』

미국에서 학교 자원봉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공정책을 쓰는 것은 앞서 언급을 했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강제」하고 이를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역시 학생 자원봉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지역사회 활동은 특히 청소년 단체들이 앞장을 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들의 자원봉사 제도화를 돕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학생 자원봉사에 앞장 서는 사례 역시 미국에서는 수없이 많다. 예를 들어 지난 87년 어느날 미국 미네소타주 남부 와세카시에서는 「지역사회교육 community education」이란 단체의 제안으로 관내 청소년, 교육자, 학부모, 자원봉사 기관 스태프, 정부인사 등 60명이 모였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지역사회와 관내 청소년들이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논의하는 것이었고, 많은 토의를 거쳐 와세카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지역사회 봉사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하는 안이 제안되고 이듬해 봄 와세카 고등학교는 그 제안을 현실화해 「청소년봉사지도자 Youth Service Leadership」라는 교과목을 개설했다. 이 예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학생 자원봉사를 두고 상호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미국에서 학생 자원봉사를 앞장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단체들은 역시 청소년단체들이다. 앞서의 「지역사회교육」외에 전국청소년리더쉽협의회(NYLC), 적십자, 빅 브러더스 앤드 빅 시스터즈, 켈프파이어, 잭 앤즈 질, 키 클럽, 아웃워드 바운드 등 수 많은 지역사회의 청소년 기관·단체들이 학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애쓴다. 이들은 많은 자료를 비치, 각급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교과과정 개발을 돕고 또 프로그램 조정자, 슈퍼바이저로 참여한다. 오늘날 학생 자원봉사에 미국의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이 이처럼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청소년 자원봉사가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청소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그들의 인성개발에 지역사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자원봉사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노력을 쏟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만이 아니다. 호주의 SCIP(Student Community Involvement Program)와 같은 중·고교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역시 정부와 지역사회로부터 큰 지원을 받고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대표적 학교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자원봉사협력교」는 지난 77년 문부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이 됐다. 현재 일본 전국에 8백여 학교가 지정이 된 이 「자원봉사협력교」는 市, 區, 町, 村(우리의 시, 군, 구)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하면 都, 道, 府, 縣(우리의 시, 도) 자원봉사센터가 해당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정한다. 「자원봉사협력교」는 이렇게 지정이 되면 3년동안 지방정부로부터 연간 10만엔씩의 지원금을 받고 학교 자원봉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들의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과 과제들을 살펴 보았다. 요약하면 학생 자원봉사를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와 함께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의 역할분담과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화 작업과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입내신 반영 등 입시에 관계된 민감한 영역은 자칫 자원봉사의 공정한 관리, 평가라는 어려운 「관리」문제를 낳는다.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입학사정에 반영케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모종의 사회적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필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학생 자원봉사를 아예 졸업필수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미 매릴랜드주와 같이, 또 서울시의 조치와 같이 초·중·고등학생들이 각 졸업전까지 총 몇시간의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시간 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평가라는 질적관리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다.

자원봉사를 강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봉사학습」처럼 개념을 바꾸면 된다. 말 그대로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교육, 학습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아예 용어를 바꾸어 성인들의 자원봉사와 구별해도 될 것이다.

학생 자원봉사를 효과적으로 확산, 수행케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외에도 우리사회가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 그것은 단순히 학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기관들과 학부모들이 나서야 한다. 지역사회 기업들도 신경을 쓰고 재정지원 등의 협조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좋다. 그 상호 역할이 정립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교사훈련, 교재발간 등의 작업을 펴고 자원봉사를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각종 기술과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학생 자원봉사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지극히 생소한 개념이다. 시급한 일이긴 하면서도 논란과 어려움이 많은 작업이기도 하다. 준비해야 할 과제도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인성개발이 시급하다면 그 시급함에 모든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점에서 90년대 들어 미국 등에서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 사회적 기제(social mechanism)로 등장한 「봉사학습」의 개념을 우리도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李 沅 浩(중앙일보 자원봉사캠페인사무국 전문위원)

Ⅲ. 선진외국의 사례분석

이 장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집」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해 주고, 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통해 축적해 온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실용적인 봉사활동 아이디어를 점진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용할 것을 목표로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선진외국의 청소년 봉사활동 정책과 프로그램 사례를 발췌, 번역하여 소개한다.

여기서 소개된 문헌과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일 본 : ボランティア ハンドブック(1992)
2. 미 국 : *Draft Instructional Framework in Service-Learning for Middle School*(1992)
High School Service-Learning Guide(1993)
Learning by Giving(1994)
Special Education Service-Learning Guide(1993)
3. 프랑스 : *Activités du Chantier*(1994)
ACTUEL CIDJ-Chantiers de travail volontaire(1993)
Comprendre et restaurer un monument-De l'étude à la réutilisation(1993)
Organisation d'un chantier(1986)
Orientations pour l'union(1985)

1. 일본

1) 학교와 자원봉사활동

(1) 학교 자원봉사활동의 의의

자원봉사활동을 학교교육에서 실행하는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이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고령자가 가족의 일원으로 동거하는 예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고령자의 문제를 장애 자기의 문제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보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생활방식으로부터 여러가지를 배우면서 채득하는 경험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연령의 차가 있는 세대간의 교류기회도 적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학교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세대간의 교류를 위한 복지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교육의 의의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딱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구조하는 지원활동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면서 함께 생활하고, 같이 배우고, 서로 협력한다는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사람이건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로서 존중받는 것, 즉 편견이나 차별없이 인권에 근거하여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복지의 마음을 육성하는 교육」이라 말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들이 거주지역의 고령자나 외국인, 그리고 홀로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이나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복지문제, 복지활동의 의미나 역할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이것을 「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찾는 교육」이라 한다. 생활경험이 일천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서로 돕는 정신이나 태도를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까닭은 자기 주변의 생활이나 체험을 통해 인간의 복지에 대한 정신과 태도가 형성되고,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기 때문이다.

셋째, 생활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적 의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 교류를 통하여 복지에 관한 실제적 태도를 육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복지에 대한 실천적 태도를 육성」하는 교육이라고 한다.

이러한 복지교육의 의의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라고 하는 교육활동의 장소를 이용하여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떠한 것이라도 관련 내용을 교육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교직원

의 복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와 연대를 가지면서, 학교외의 여러가지 자원을 활용하면 학교내의 복지교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지역, 가정 복지교육 추진의 원동력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을 육성해 나가게 된다. 현재 이러한 복지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자원봉사협력교를 지정하여 자원봉사활동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500교에 가까운 초·중·고교가 실제로 여기에 협력하고 있다. 각 구·동 등에서는 각 지역교육위원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협력 학교와의 활동교류를 통하여 내용을 심도있게 펴나가는 구·시·동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 각 지역의 「복지마을 만들기」추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이 협력학교 지정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각 구·동 등에서 그들 자치단체의 배려로 독자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며 생명력있는 복지교육을 정착시키는 사례가 있다. 학교내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하여 「복지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원봉사협력교

① 목적과 경위

본 사업은 초·중·고교를 「자원봉사협력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사회봉사·사회연대 정신을 배양함과 동시에 학생을 통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도모하고자 1977년 후생성의 국고보조를 받아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업의 시행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인 도도부(都道府)현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이며, 각 구·동 등의 사회복지협의회와 교육위원회 등의 관계 기관·단체가 연계하여 학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나 복지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1991년에는 800교 이상의 협력학교가 지정되었다. 동경도에서는 1984년부터 동경도 복지국에 의해 지정학교가 대폭 확대되어가고 있다. 신규 지정학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1년에는 122교가 지정되어 처음으로 한 해의 지정학교가 100개교를 초과하게 되었다. 동경도에서는 지정학교 누계가 454교로 도내의 총 초·중·고교의 16.2%를 점유

하게 되었다.

② 사업내용

협력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 각 학교나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과 의욕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과 복지교육에 참여한다. 각 협력학교에는 연간 10만엔의 조성금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구·동 등의 사회복지협의회와 동경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학교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가.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장소제공과 수용의 촉진

나. 자원봉사활동과 복지교육에 관한 자료작성과 정보제공

다. 협력학교 상호간의 교류촉진

라.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복지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상담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강연회, 학습회 등 개최...자원봉사활동과 복지교육에 관한 영화·

비디오 상영, 강연회·전시회 등 개최

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활동...노인정 또는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

교류

다) 학교신문 등에서의 홍보활동...학교신문, 포스터, 전단 등의 유포를

통한 학교나 지역내의 홍보활동

라) 사회복지 관련행사에 참가...모금활동, 자원봉사축제, 장애인 체육

대회에 참가·협력

마) 지역사회내에서의 활동...지역청소, 재활용품수거, 지역내의 노인

과의 서신왕래 등

바) 학교행사에의 초대...지역내의 노인, 어린이, 장애인, 지역주민들

을 학예회, 체육대회, 집단회식 등에 초대,

일일강사로 초대

사) 조사·연구활동...지역내의 고령자수, 사회복지자원, 하천의 수질,

난민 등에 관한 조사·연구

아) 기타...타 협력교와의 교류, 해외협력 등

최근의 경향으로는 사회복지 관련활동과 함께 폐기물수거, 하천청소 등 환경보호와 관계되거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지원활동 등 국제협력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③ 연간사업계획

- 4월 신규협력교의 지정
- 5월 신규협력교의 설명회 (사업설명)
- 7월 조성금의 지급
- 7월 자원봉사활동 체험학습
- 8월 3년간의 실시계획서 제출(지정년도분)
- 10월 제2회 신규협력학교 설명회(제1회 이후에 지정한 학교가 대상)
- 10월 자원봉사축제 개최
- 11월 협력교연합회(정보교환, 사례발표 등)
- 12월 선생과 학생을 위한 자원봉사체험학습
- 1월 자원봉사활동 세미나
- 3월 실적보고서, 계산서 지출

④ 신청수속

각 구·동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자원봉사협력교」로 신청하고 싶은 의사를 전달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서를 작성하여 동경자원봉사센터(동경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한다. 동경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동경도와 협력하여 지정학교를 결정하고 학교와 구·동 사회복지협의회로 결정통지를 보낸다.

(3) 자원봉사활동의 확대

① 자원봉사활동의 현추세

지금 자원봉사활동에 뜨거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TV나 잡지에서 수없이 취급되고 있어 비교적 자유스러운 시간을 가진 주부들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진 직장여성, 지금까지는 회사일 밖에는 안중에 없던 직장 남성들까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변화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이다.

② 이웃, 지역, 사회와의 바람직한 동반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전의 생활기반인 가정과 지역의 양상이 전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20~30년 후에는 4~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과 사회를 다시 보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생활을 구축해 나가며 이웃과의 유대나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③ 자원봉사제도의 발전

자원봉사활동에서의 중요한 원칙은 자발성, 무상성, 연대성, 개척성이다. 이 원칙은 자원봉사활동을 어렵고 친숙치 못한 것으로 만들거나, 특히 일본인의 기질이나 상부상조하는 지역, 사회의 구조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자원봉사활동이 가진 원칙이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적절한 원칙으로 변형되고 있다. 즉 자발성은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풍조에 맞게, 무상성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연대성은 타인이나 지역사회와의 상실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고, 개척성은 창조성이나 모험심을 즐기는 현대인 기질의 발로와 결실을 맺는 것으로 되고 있다.

④ 동경에 있어서의 자원봉사활동

동경은 현대적인 변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정보화, 국제화, 고령화는 현대환경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단어」가 되어 있지만, 이러한 말은 동경에서나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선진적인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활동의 분야도 복지, 보전은 물론 방화, 마을가꾸기, 자연환경, 더 나아가서는 국제교류의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아동·학생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의한 활동도 시작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도 충실해야 한다. 동경의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개설 10년을 맞이하였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 손을 잡고 동경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⑤ 학생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실천활동이라 말할 수 있다. 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연스럽게 「생활태도」로 일상생활 속에 융해되어 인생의 각 단계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로 무리없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인생의 출발점에 있는 학생들의 지역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통하여 싹트도록 교육하는 「학생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 전체에 미치는 의미를 더욱 증대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본래 자원봉사활동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 점에 있어서 더욱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2)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1)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육성한다

현재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스스로 커가는 능력」과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커가는 능력」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본래 내재하고 있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아 타인의 지시나 교시가 없으면 행동할 수 없는 청소년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2월 16일 문부성의 「학교부적응 대책조사연구협력회의」가 실시한 중간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특정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취급된 등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처음으로 「특정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정·사회전체에 관계된 문제」, 「어느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견해가 나왔다.

실제로 등교하지 않는 초·중학생은 1974년도에 약 1만명이었던 것이 1989년에는 47,258명으로 높아졌다. 중학교에서는 140명에 한 명꼴로 증가하고 있다. '80년대에 문부성은 교사용 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학생지도면에서의 대책을 계속 내놓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어느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란 기본적 인식에 기초하여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몸에 배게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다른 하나인 「공감하는 능력」의 부족은 「괴롭힘」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현대의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

족하다. 정보화·국제화 시대의 와중에서 가치관의 다양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서로간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공생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공감하는 능력」의 부족은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의 「스스로 커가는 능력」이나 「공감하는 능력」을 시작으로 전인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데에는 학교나 가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거기에 더하여 아이들의 또 하나의 생활공간인 지역을 무대로 하여 아이들의 전인적인 인격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게 있어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을 무대로 행하는 자발성에 기본을 둔 체험학습이며, 「스스로 커가는 능력」이나 「공감하는 능력」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지혜를 습득함과 동시에 장래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이 자원봉사활동을 중요한 활동 주제로 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선진지역인 구미 여러나라는 학생청소년 교육에 지역을 무대로 하는 체험학습을 일찌기 도입하였다. 영국에서는 이것을 「지역사회봉사 community service」라 부르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를 자발적으로 생각하여 실천하는 것을 돕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름방학에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teens in community」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고교생의 사회경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된 것이다. 자원봉사활동 강좌를 개최하는 학교도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일원이란 자각을 길러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 5일제 수업에 관하여는 학력저하나 비행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이 원조를 소홀히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원봉사활동을 착실하게 확대하는 일이 쉽지 않다. 다수의 소극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교육기능을 정확히 전달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변화되는 양상을 실제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2) 아이들 스스로 깨닫고, 활동하고, 배우게 한다

복지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담당교사가 3년간의 경험으로, 고교생이

생생하게 변신하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규명해 보았다. 결국은 「아이들을 지역으로 되돌려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찌기 농경사회에서 아이들은 「지역의 아이」로서의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화되면서 지역사회는 붕괴되고 아이들은 지역과 관계를 갖기가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입시전쟁으로 지식중심의 교육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의 생활의 장은 가정, 학교, 학원으로 집중되었다. 그 결과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장애가 생겨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의 위기를 호소하게 되었다. 오늘날 초래된 교육의 위기는 결코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복지교육 담당교사가 발견한 「아이들을 지역으로 돌려보낸다」는 시도는 가정과 학교교육의 장애요소를 타개하려는 하나의 방안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아이들을 지역으로 돌려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이들을 지역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역의 교육기능을 풍부하게 하려는 노력과 아이들이 지역내에서 주체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의식개혁이나 교사의 보다 높은 교육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교는 「진리탐구의 장」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교사는 진리탐구를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학생은 배운 지식과 기술을 지역에서 체험적으로 활용하며,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습득한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생활의 기본원칙」을 가르치고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지역에 주어진 교육기능의 특징은 「지식을 지혜로 바꾼다」라고 하는 체험학습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원래 지역에는 아이들의 체험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활동소재가 있다.

지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특히 다른 세대나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지의 인생과의 만남과 공감」을 체험하게 되어 많은 것을 배우며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 풍요로움이 몸에 배어 무서움을 모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인간은 자연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연의 무한함에 대한 외경과 감사」를 체험하게 된다. 우리들의 선인이 남겨 놓은 문화에는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전통문화

의 중후함에 접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아이들의 생활은 변화가 적으며 안전제일로 보호되어, 마치 조립된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지역의 생활변화는 연속적이다. 그 때마다 「예기치 않은 변화와 조우하여 그것에 대처하는」 지혜를 짜내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체험에 의해 용기를 배양하여 생활기술을 습득해 가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동질사회로서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질적 사람들과 공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제화 시대에 잘 대처하기 위해 지역내에서 마을을 가꾸는 한 사람으로서 「이질공존의 바람직한 자세와 가치」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반성하여야 할 것은 첫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점, 둘째, 아이들에 의한 주체적인 학습이 아니라 수동적인 학습이 되고 있다는 점, 셋째, 지역에서의 교육기능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을 지역생활로 돌려 보내 그곳에 있는 활동소재와 능동적으로 만나는 체험학습을 통하여 '깨닫고, 활동하고, 배우게' 함으로써 지식을 지혜로 변화」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3) 발달단계에 맞추어 준비한다

① 국민학교

국민학교에서는 교육목표에 나와있는 기초적 교육내용을 지도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촉진하는 다양한 경험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몸에 익혀 학습의욕을 높이고, 자주적으로 사물에 몰두하는 힘을 갖추게 된다. 국민학교에서 각 학년은 그 나뉠대로 발달의 정도에 맞게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1~2학년의 자원봉사활동 : 저학년에서는 대체로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의욕을 배양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 관점을 증시하는 자세를 갖추어 가면서 보다 구체적 활동

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험하는 것이 자연스런 방법이다. 「생활과」 과목이나 특별활동, 학교행사 등과의 연대를 생각하면서 시설방문 활동, 학교행사에서의 초대, 수집활동 등에 즐겁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3~4학년의 자원봉사활동: 3~4학년이 되면 친구들과의 관계를 넓히면서 「집단」으로 활동하는 일이 많아진다. 또한 활동적이 되어 행동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집단」을 단위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방문이나 맹인야구, 장애인 자동차경주 등의 장애인 스포츠활동, 동물애호, 집단합식, 발표회, 지역 행사에서의 참가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좋다.

다. 5~6학년의 자원봉사활동: 5~6학년에서는 아이들이 아동기를 맞이하여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사물을 생각하는 면에서 사회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게 된다. 자원봉사활동도 이러한 발달단계에 따라 사회성이 높은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보호나 환경문제, 수화학습이나 낭독, 교내신문 발간 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국민학교 전 학년에 걸쳐 강연이나 영화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우유곽이나 알미늄 등의 재활용품 수집활동, 장애인 자동차 조작 연습이나 안내 등의 실기를 배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② 중학교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심신발달이 왕성하여 어른이 되는 준비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반면 국민학교 때의 아이다운 면도 많이 남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의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다양한 면에서 강한 감수성을 보이며 어른들의 생활이나 문화에 대한 동경심과 불신도 동시에 갖게 된다. 중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데에는 중학생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어 국민학생보다 더욱 자주적인 자세로 활동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국민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제반문제나 복지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중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은 의무교육의 완성이란 의미를 가진다.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로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나 사회 복지 문제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도록 양성하여야 한다.

나. 기본적인 인권의 중요함을 인식시켜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에서 접촉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활방식을 보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다. 여러가지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중학교에서는 학생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것을 기본으로 여러가지 계획을 시행하고 반성하면서 다음 활동으로의 의욕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친구와 함께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을 길러나가게 된다.

라. 집단에서의 활동경험을 통하여 남녀간 그리고 나이 차이가 있는 상·하급생간의 협력관계를 육성한다. 중학교에서는 집단활동이나 학생활동 등을 통하여 선후배 의식이나 남녀간 의식차이가 표출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해나가면서 연령간이나 남녀간의 상호이해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서로 협동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중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은 「어린이」 자원봉사활동과 「어른」 자원봉사활동의 중간위치라 할 수 있다. 교육적 관점을 중시함과 동시에 학생의 자발적인 의욕을 최대한으로 수용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③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마친 고등학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교육활동으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학교에 비해 보다 자율성이 높은 자원봉사활동이 기대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담당자로서의 학생 자원봉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교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고등학생이 일상적인 자원봉사활동의 담당자로서 지역으로부터 기대를 받게 된다. 그 의미는 고등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은 교육활동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어른」의 자원봉

사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고교생은 일반적으로 학회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집단으로 활동하는 경험을 쌓아왔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학교를 벗어나 다른 사람과 교류를 갖게된다. 그러한 활동을 계기로 하여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데에도 적극적이 된다. 항상 여러가지 관심이나 과제를 갖고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회나 세계로 시야를 넓히게 해준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고교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추진을 위한 유의점을 열거해 본다.

- 가. 실제 활동에서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고 교직원들은 조언자, 조정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 나. 미래 사회의 복지적인 시점을 고려하여, 지역안에서 적극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복지현황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따라서 지역내의 활동이나 조사·연구, 환경보호 등을 권장해 본다.
- 다. 일상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권하기 위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복지시설과 교류하거나 지역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이해하여 학교 수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배려한다.
- 라. 진로선택의 시기에 있음을 고려하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진로의 전망을 확대시켜 준다.
- 마. 청년을 지역문화 계승과 창조의 담당자로 정해 지역의 역사, 지리,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여 이것을 자주적으로 배우고 전수받는 것을 지원해 나간다. 이렇게 하여 고등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을, 청년이 사회적으로 자립해 나가는 데 유의미한 경험을 내재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④ 기타학교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확대는 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학

생은 물론 유치원, 장애인학교, 혹은 전문학교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유치원, 장애인학교, 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유치원·보육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 : 유아교육의 교과내용 영역에는 「인간관계」나 「환경」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유아의 심신양면의 발달에 필요한 사회나 인간관계, 주위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경험적으로 몸에 배게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령자나 다른 연령층의 집단과 교류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경우 극히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원조 활동을 실시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이나 고령자와의 교류, 인사하기, 폐품줍기, 뒷마무리 등 주로 생활의 자립을 중시하는 체험적인 활동을 생각해 본다.

나. 장애인학교의 자원봉사활동 : 이러한 학교의 학생은 자칫하면 자원봉사활동의 「수취자」로만 생각될 수 있겠지만 각기 그 학교의 「특수한 점」을 살려 독자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령자나 타시설과의 일상적 교류나 수집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미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다. 또한 고등부 등에서는 고령자에게 지압이나 맛사지를 시술한다든지(맹인학교), 이발을 한다든지(농아학교) 하여 직업기술을 활성화시키는 자원봉사활동도 연구하고 있다.

다. 전문학교에서의 자원봉사활동 : 전문학교는 특정한 직업상의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학교이므로, 그 학교의 전문적 기술을 살린 독특한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사회복지나 보모, 유치원, 교원양성과 관련된 전문학교에서는 일반적인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미술이나 사진과 관련된 전문학교에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시설을 순회하며 위안잔치를 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 시설의 이용자에게 증정한다든지, 음악계의 전문학교에서는 시설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하여 각기 타 학교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은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기 가

까이에서부터 해나가는 것이다. 독특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해 보자.

(4) 어른들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아이에게 있어 제2의 학교이다. 지역에서의 여러가지 역할을 통해 성취감을 체험한 어린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의욕을 가지고 등교한다. 지역의 체험활동속에서 의문점과 과제를 가슴 가득 안고 교사의 대답을 기대한다. 문제는 교사가 어디까지 용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역으로 밀어낼 수 있는가 즉, 지역의 교육성에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지역사회의 현황과 과제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지역사회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비행기가 이륙하기전에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것과 같이 교사는 장래 어린이들이 사회인으로서 웅비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용기를 가지고 비행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론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이륙하는 것은 어려우며 일상적으로 비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 주체성이 생명이다. 때문에 어른이 된 후에 한다는 것은 때늦은 일이다. 어린시절부터 어떠한 산교육을 받아왔는가가 문제가 된다. 인간형성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 가정에서의 복지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사회생활 규칙이나 도덕심을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1988년 암수현 사회복지협회가 실시한 「학생의 복지에 관한 의식조사」에서는 “부모는 노인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말하는가”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다”가 약 35%가 된다. 또한 “장애인을 위로하여야”에 대하여는 50%가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어린이에게 자원봉사체험을 기대하려면 부모 자신이 먼저 사회참여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어른들이 사회참여하는 노력을 보이는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립적인 공감을 갖고 있으며 자신에 찬 명량한 어린이로 성장한다.

따라서 어른들의 사회참여가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부터는 학생들

의 자원봉사활동이 학교주도형에서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받쳐주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5) 「최초의 일보」를 내딛는 방법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할 때에 자주 문의해 오는 것의 하나가 「자원봉사활동을 교육과정에서 취급하려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이다. 확실히 복지나 자원봉사란 말에 익숙지 못한 학교에서는 최초의 계기를 만드는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때 「최초의 일보」를 내딛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나 자원봉사센터와 상담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비결은 각 지구의 사회복지협의회나 자원봉사센터에 축적되어 있다. 학교에서 연락하여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문의해 본다.

② 활동의 규모를 생각한다.

자원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개요가 파악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활동을 시작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전교 차원에서 할 것인가, 학생회 단위로 할 것인가, 클럽이나 동아리활동으로 할 것인가, 자신의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적당한가를 학교실정에 맞추어 생각한다.

③ 교육과정, 교육계획을 세운다.

활동의 내용과 규모가 정해지면 교육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확보한다. 특히 수업시간 내에 설정할 때나 전교, 학년, 학급단위로 활동할 때에는 교과 담당자나 학년 담당들과 의논한다. 금전을 지출할 때에는 계산의 전적이나 지출을 적어 놓는다.

④ 활동처에 연락하여 활동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다.

활동의 내용과 규모가 구체화되어 시설과 지역 등 특정의 단체를 방문한 다든지 또는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협력하고자 할 때에는, 활동 단체에 연락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한다. 이 때 활동의 목적, 목표, 참여자의 규모, 일

정, 지속적인가 일회적인가 등 어떠한 활동을 하고 싶은가를 명확히 전달하여 활동처의 상황을 듣고 서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일상적인 것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손쉽게 할 수 있는 활동부터 전개해 나가야 한다.

(6) 활동시 주의해야 할 점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자원봉사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사람과 그 활동처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쌍방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우선 인간관계의 기본원칙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약속을 지킨다, 상대의 자존심을 존중한다, 인권을 수호한다, 상대를 신뢰하여 성의를 가지고 행동한다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② 활동의 목적을 가급적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이 불명확하면 활동처에 폐를 끼치게 되고 자원봉사를 하는 측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
- ③ 시설이나 지역에서 활동할 때 그 곳이 사람들의 생활장소임을 생각하여 인사나 말씨, 활동태도 등 필요한 예의범절을 몸에 배게한다. 관계하는 사람들과 기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시설과 지역에서 활동할 때에는 필히 사전에 상대방과 긴밀한 타협을 해 두어야 한다. 적어도 2개월 전에 연락을 취하여 형편이 좋은 날이나 시간대를 문의한다. 그 때 활동의 목적이나 인원수 등을 명확하게 전한다. 또한 예정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해야 한다.
- ⑤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항상 기록을 해두어야 한다. 교직원이 하든지 학생들을 교대로 시키든지 하여 활동의 경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⑥ 자원봉사활동은 교직원과 함께 활동하도록 한다. 학생들만 활동하도록 하여 교직원은 인솔자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교육적 의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어른과 아이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활동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이다.

- ⑦ 자원봉사활동은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이나 지역으로 활동하러 갈 때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녁식사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상례라 할 수 있다.
- ⑧ 시설과 지역에서의 주인은 시설 이용자나 주민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봉사활동은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의 활동으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자신의 경험을 전교 학생과 나누어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

(7) 자원봉사활동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어느 정도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학교가 더 한층 그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첫째, 얼마동안 계속하면 소위 메너리즘 상태에 빠져 항상 결정된 활동만을 되풀이하게 되어 학생이나 교사의 흥미와 관심을 희석시켜 활동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든다.

둘째,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온 교사가 이직하게 되어 침체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새 담당 교사가 자원봉사활동에 금방 친숙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새로운 활동내용을 개발하려 해도 지금까지 해온 활동 이외에 어떠한 활동이 있는지 모르고 지금까지의 활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그 학교의 특색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더 한층 발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학교 내외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선 자기 학교의 활동 내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타 학교의 활동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같은 지구내의 학교끼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학교간의 교류나 정보교환·연락·조정을 하는 「자원봉사활동

실시학교 연합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협의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경도에서도 「학생 자원봉사활동 보급사업 연합회」가 전체 도와 각 지역 등에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각 지역 자원봉사활동 실시학교의 실행보고와 의견을 교환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나 관련학자·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지역 자원봉사 단체나 시설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이나 해야 할 활동 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 나갈으로써 이후의 자원봉사활동을 풍부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그 지역의 여러 학교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활동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원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이 기본이다. 이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한다든지, 지역을 탐방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학습하면서 이후의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직원의 조언, 지도가 없어서는 안된다. 자원봉사활동에는 원로교사가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신입교사, 사무직원, 급식조리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자원봉사활동의 의의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몇몇 지역에서는 교직원의 신입 연수나 기타 연수를 실시할 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 자신이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학교내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나 지역의 사회자원을 이용하면서 외부로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사친회나 동네회의에 참가하고, 타 학교와의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각기의 활동이 점으로부터 선, 선으로부터 면으로 나아가듯 지역 내에서 혹은 지역을 넘어서 확대되어 나가도록 한다.

3) 자원봉사활동 개관

(1) 자원봉사활동 소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는 제일보는 우선 「자원봉사」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시작은 활동으로부터」라고 우선 활동부터 실제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에 앞서 어떠한 활동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예비 지식」을 아는 것도 활동을 시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원봉사활동이란 무엇인가를 알리는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강연회를 개최한다.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의 사람들이나 그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을 학교로 초대하여 전교모임이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자원봉사활동은 무엇이며 어떠한 활동이 있는가, 활동할 때에는 어떠한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등에 대한 강연을 들어 본다.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자원봉사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때 적합하다.

②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영화를 관람한다.

동경자원봉사센터를 위시하여 몇 곳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16mm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하고 있다. 학년단위나 학급단위로 이러한 영화를 보면, 교직원이나 아이들에게 감동과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③ 학급회를 개최한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급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이나 과제를 더 깊이있게 파악할 수 있다. 학급회를 개최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여 올바른 이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강연회나 영화감상을 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인상을 선명하게 한 후 학급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강연회나 영화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강연이나 영화의 내용을 「듣는 등 마는 등」하지 말고, 다음 활동으로 연계해 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잘 이해하여 다음 활동으로의 전망을 예측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에는 각 지구의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자원봉사활동 현황이나 각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의 특색 등에 관한 정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이나 자원봉사센터 직원과 각 학교의 특색있

는 강연 내용, 강사, 영화의 종류 등을 상의하면 보다 나은 기획·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자기 「마을」 알기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복지활동을 권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의 하나는 자기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마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의 마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에 따라 이 마을에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원봉사활동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들 수 있다.

① 「마을」 점검활동

시·구·동이나 지역의 범위를 정하여 특별한 조사항목(장애인용 화장실 수, 장애인이나 노인관련 시설의 수,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수 등)을 결정한 후, 직접 동네를 걸어다니거나 동사무소나 도서관에 가서 조사하여 그 수나 상황을 지도로 표시한다.

② 복지지도 만들기

활동 ①에서 얻어낸 결과에 기초하여 각 지역의 어느 위치에 어떠한 시설과 설비가 있는가 또는 어떠한 사람과 생활상이 있는가를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지도로 만든 것이 「복지지도」이다. 복지지도는 큰 모조지에 설명도나 벽화를 그리고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여 알기 쉽게 만든다.

③ 조사·연구 활동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①, ②의 활동에서 진일보하여 좀더 본격적인 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 노인이나 자원봉사단체에 가서 면접을 하거나 지구상의 자원에 관한 연구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련있는 사항을 연구함으로써 지역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게 된다.

①, ②, ③의 활동은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과의 공동작업이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학급이나 단체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생활과」나 「사회

과, 「윤리과」 등의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유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활동을 보고하여 자기들 만의 것으로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발표의 장으로는 학급발표회나 문화제, 학원제, 그 외 지역 내에서의 공동발표회도 가능하다. 학교의 벽이나 게시판의 일부를 상설전시판으로 하여 꾸준히 새로운 성과를 공표해 나가는 것도 좋다.

(3) 시설에 대한 이해

장애인이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 몸이 허약한 사람, 몸을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 생활이 곤란한 자,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등이 생활하고 기술을 훈련하는 장소가 사회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인 인간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학생들이 방문하기 쉬운 시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노인복지시설

생활에서 항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특별양로원과 생활 곤란이 있는 사람이 생활하는 일반양로원이 있다.

②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나 지능이 낮은 사람이 생활하는 시설, 기술과 기능을 훈련하여 생활의 자립을 도모하는 시설 등이 장애의 종류(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체장애, 정신박약, 내부장애 등)에 맞게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시설도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

가정환경이 윤택하지 못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하게 하여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는 보호시설, 보육받지 못하는 아동을 맡아서 보육하는 보육소, 지역에서 건전한 놀이를 지도하는 아동관 등이 있다.

④ 병원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이나 건강을 보살피는 기관이다.

병을 진료하고 치료하여 기능회복을 도모한다. 어린이나 노인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도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은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 환자, 어린이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생활해 나가는 장소이다. 따라서 방문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 시설 방문시 주의사항**

- ① 시설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활동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 ② 시설의 생활시간표를 사전에 알아 두어 시설 사용자의 생활리듬을 깨지 않도록 한다.
- ③ 방문시 그 기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 ④ 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들에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 ⑤ 시설 이용자의 자존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⑥ 방문 후에도 서신연락이나 행사초대 등으로 관계를 깊게 이어 나간다.

(4) 학교로의 초대

자원봉사활동하면 학교를 벗어나 시설이나 지역으로 가서 활동하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만 학교 그 자체를 자원봉사활동의 장소로 할 수 있다. 학교라고 하는 장소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독특한 자원봉사활동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활동으로는 지역의 노인이나 시설의 이용자를 학교 행사에 초대하여 부분적으로 참가를 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행사를 생각하게 된다.

① 운동회

지역이나 시설의 노인들 또는 양호학교의 아이들을 초대하여 운동회를 관람하게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일부의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든지, 점심을 같이 한다든지 하여 교류를 깊게 한다.

② 문화제·학원제

문화제·학원제에 지역이나 시설의 노인 또는 장애인을 초대하여 무대극이

나 연주 등을 감상하게 한다. 문화활동이 활발할 때에는 지역의 노인들을 프로그램의 일부에 특별출연케 하는 시도도 해볼만하다.

③ 같이 드는 급식

학교의 급식시설에 지역이나 시설의 노인을 초대하여 점심을 같이 하면서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세대간의 교류를 시도한다.

④ 일일 강사

지역의 어른을 학교에 모셔서 지역의 이동이나 변화, 지역에 전해오는 옛 이야기, 전쟁이나 재해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역의 역사를 공부한다. 지역 사람들이나 시설의 이용자를 학교로 초대할 때에는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으로서 예의 바르게 접대할 필요가 있으나 너무 거북하게 대하면 오히려 초대받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 적당히 어깨의 힘을 빼고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다과는 비싼 것보다는 소박하고 마음이 깃든 것으로 하는 것이 호감을 준다.
- 학교로 초대할 때에는 지역단체(노인그룹)와 잘 연락을 취하여 될 수 있는 한 빨리 일정이나 예정 인원수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강사로서 초대할 때에는 필요 이상의 사례금을 송금하는 것을 삼가하며 손수 만든 물건이나 학생의 정성이 담긴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행사에 초대하는 것은 어르거나 장애인들과 학교에서 한 때를 보낸다고 생각하여,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체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마을행사 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알고, 지역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행사에 참가한다든지, 그 행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권유된다. 이를 통해 지역인들과 어울리게 되어 지역의 모습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자원봉사활동으로써 참가할 수 있는 지역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복지축제·자원봉사축제

각 지구의 사회복지협의회나 자원봉사센터 중에는 복지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의 개발을 위하여 복지축제나 자원봉사축제를 개최하는 곳이 많이 있다. 바자회나 일일상점의 일을 도와준다든지 회의장 정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곳이 많이 있다.

② 하계축제, 추계축제

역사가 깊은 지역에서는 신사나 사원의 축제로서 하계축제, 추계축제가 개최되는 곳이 많다. 여러가지 옛 풍속행사에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어린이 수가 적을 때는 아이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곳도 있다.

③ 지역의 운동회·스포츠대회

춘계에는 지역에서 운동회나 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땀을 흘리는 운동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또한 대회장 정리나 경기진행 등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인들과의 연대감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교육의 일환으로서 참가하는 경우, 다음을 필히 확인하여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지역의 행사에는 전통적인 관습과 독자적인 진행방법이 있다. 가급적이면 존중하는 것이 좋지만 교육적 의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참가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지역의 축제에는 이익단체나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활동으로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행사에 참가하는 데 기부를 강요당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행사가 교육적 활동이란 점을 지역의 주최 단체에 주지시켜 이해를 구한다.

이러한 문제를 확실히 하고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고장의 사협(社協), 자원봉사센터, 동회(洞會)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대도시는 물론, 지방에서도 개발이 진행되어 녹지가 줄어들고 있다.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의 현황을 알아가면서 그곳을 살기좋은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도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내용이다. 학생의 흥미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① 놀이터 만들기

점점 없어져 가는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활동이다. 가급적 자연조건이 풍부한 지역의 한 구역을 안전하고 변화가 많은 놀이터로 만든다. 공작이나 신체를 사용하는 활동도 포함되고 있다.

② 미화활동

전교생, 또는 학년이나 학급단위로 학교의 주변이나 학교 근처를 청소하는 미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내의 학교」란 생각을 바탕으로 방과 후나 수업 전에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산이나 냇가에서의 녹화운동

②의 활동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산이나 냇가의 오물을 수거하여 지역의 상징에 어울리는 미관을 지키도록 한다.

④ 꽃 가꾸기 운동

지역의 가로변이나 공터, 흙이 있는 장소에 꽃종자나 묘목을 심어서 지역의 미화를 도모하는 활동이다. 학년이나 학급별로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로수나 마을의 식물에 명찰을 붙여 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지역의 미화나 녹화는 동회나 자치회 등의 지역단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지역 미화, 특히 지역청소 등은 계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학생들만의 활동으로 그치기 쉽다.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교육활동으로써 실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학교의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지역청소가 한도를 넘어서 지역으로부터 기대를 가지게 될 때에는 동회·자치회나 사회협의단체에 연락을 취하여 지역의 어른들과 같이 활동을 하게 권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과 학교간의 연대가 깊어지며 지역의 어른들도 학생의 활동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지해 줄 것이다.

(7) 스포츠 교류

교육활동으로의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 이러한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교양을 몸에 익히는 것도 포함된다. 그중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하는 스포츠나 운동의 기본을 적극적으로 몸에 익혀 같은 조건으로 대등하게 경기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도모하는 활동이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이 하는 스포츠 중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게이트볼

어른들이 하고 있는 스포츠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룹을 두 조로 나누어 공을 나무막대기로 쳐서 코트에 설치한 게이트를 빠져 나가면 득점하는 경기이다. 운동량도 적당하며 규칙도 알맞게 되어 있으며, 조별로 협력하여 득점하는 특징이 있다. 타 지역의 고령자와 시합해 보는 것도 좋다.

② 맹인야구(족구)

규칙은 야구와 동일하며 공은 축구공을 사용하여 지면에 굴린다. 각 루에는 안내자가 있어 루를 떠나는 것이나 뛰는 것을 지시하여 도루는 금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할 때는 실제 눈가리개를 하고 하면 규칙이나 재미가 돋보인다.

③ 롤링 발리볼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발리볼이다. 이름 그대로 공을 굴려서 상대의 코트에 넣는 경기다. 9인제가 보통이다. 기본적인 규칙은 통상의 발리볼과 같다. 지체장애인도 참가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건강한 사람이 교류하는 데 적합하다.

④ 휠체어 경주·계주·마라톤

휠체어를 타고 단거리·계주·마라톤을 하는 스포츠로서 경기화된지 오래 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만 제외하면 보통 육상경기와 같다. 단거리나 계주는 학교 운동장에서 할 수 있으며, 마라톤일 때에는 거리에 따라 다르지

만 일반 도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장애인 중 애호자는 경기용으로 개량한 휠체어를 사용한다.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스포츠는 그 대상자를 배려해 만든 규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각 종목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펴 가면서 규칙을 다소 바꾸어 학급, 학년, 또는 전교에서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즐길 수 있다.

(8) 지역과 상호교류

지역에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 대부분은 매일 생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일에 열중하며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중에는 타인과의 접촉을 바라는 사람도 있다. 행정기관이나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원조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역인들과의 마음의 교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과 아이들이 교류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는 동시에 지역의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학교에서 비교적 하기 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글 보내기

지역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게 학교에서 생긴 일이나 일상 생활모습을 써서 보내면 대단히 기뻐할 것이다. 몇 사람이 그룹을 만들어 한 사람의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는 여럿이 만든 화분이나 팔걸이 등을 보내는 등 편지에서 시작하여 보다 깊은 교류로 전개시켜 가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된다.

② 방문활동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집을 방문하는 활동도 자주 하고 있다. 방과후 집으로 가는 길에 2-3명이 함께 방문하여 대화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하면서 저녁 한때를 보낸다. 이러한 활동도 계속적으로 실행하도록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만들어 간다.

③ 자원봉사-집단활동으로의 참가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집단이 정기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의 집을 방문하

는 활동을 하고 있다. 사협(社協)과 연락하여 이러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사 접대에 같이 동행하여 대화를 한다든지, 정원의 풀을 뽑는다든지, 간단한 청소를 도와준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는 방문하는 집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아 두어 생활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 한다. 또한 너무 손님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한편 그 반대로 친숙하다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도 삼가하여야 한다. 필요없이 집안의 물건을 건드려서 오해를 사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금전에 관한 일을 부탁받았을 때는 본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후 부탁받은 용건만 완료한다. 어디까지나 좋은 친구로서 교류함을 기본으로 한다.

(9) 노인주택에서의 활동

시설방문에 있어 시설의 대략을 이해하면 노인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단지 시설을 방문하여 노인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설의 활동을 도와준다든지, 보조역할을 함으로써 더더욱 깊은 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음과 같은 활동이 시설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식사 나르기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노인에게 침대로 식사 나르는 일을 돕는다. 식사를 나르며 노인과 대화를 함으로써 여러가지 교류가 싹튼다. 또한 친해지게 되면 식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② 산책 돕기

노인이 휠체어나 보행기, 지팡이를 사용하여 산책할 때에 동행하여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화의 상대가 되어준다.

③ 레크리에이션 참가

시설에서 운동이나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할 때에 같이 참가하여 즐기며 도예나 공작 등의 문화활동 또는 노래자랑, 경기, 댄스, 체조 등을 함으로써 교류를 깊게 해 나간다.

④ 시설내부나 뜰의 청소 돕기

시설 내부나 뜰의 청소를 도움으로써 노인의 생활환경을 정리하여 준다.

⑤ 기저귀나 에이프런 접기

노인이 사용하는 기저귀나 에이프런을 세탁한 후 접는다는 것은 제법 힘든 작업이다. 이 작업을 도와주면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설의 활동이나 그 곳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생활상을 듣는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시설내에서의 보조활동에 참가할 때는 시설 직원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활동에 익숙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면 안된다. 또한 시설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자에게 보조활동을 시키지 않는 곳도 있고 반대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많은 활동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학생이 활동할 때에는 사협이나 시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장애인 시설에서의 활동

노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중에도 시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을 알게 됨으로써 장애인을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애인의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이용자와 교류할 수 있다.

① 외출할 때의 도움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놀러간다는지, 물건을 사러 갈 때에 휠체어를 밀어 주거나, 동행하면서 보행을 유도하고 안전을 확보해 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교류한다.

② 작업보조

정신지체인이 작업장에서 하는 가벼운 작업을 도와준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도와주는 일 등을 통하여 서로의 교류를 도모한다.

③ 시설내에서의 각종 모임 참가

콘서트나 경기대회, 스포츠대회, 바자회 등의 시설내 각종 모임의 운영이나 진행을 도와주거나 실제로 참가함으로써 장애인과의 교류를 밀접히 한다.

또한 장애인 중에는 지역에서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권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물건사기나 필요한 용무의 대행 등도 생각할 수 있다. 힘이 드는 물건사기나 우편물 보내기 등의 간단한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가 등의 문제를 체험하게 된다. 장애인과 생활의 일부를 같이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장애의 특성을 알게 됨으로써 그 사람들의 불편한 생활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속에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가지 불편에 대응하는가를 피부로 느끼거나,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처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방과 후, 토요일 오후, 방학)을 택하여 무리가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보면 감정상하는 등의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자원봉사센터 등의 조정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다른 연령의 아이들과의 교류

최근 아이들의 놀이가 변하여 바깥 놀이가 감소하고 다른 연령과의 교류가 적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연령이 다른 아이들끼리 친구가 되어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이들이 사회인으로서 자립하는 데 중요한 체험이라 할 수 있다. 여러가지 놀이의 방법을 서로 가르쳐 준다든지, 공부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통하여 연대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회가 조직되어 아이끼리의 연대의식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자원봉사활동으로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① 놀이 지도

아이들이 몸에 익혀온 여러가지 놀이를 자기들보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고, 그 놀이 방법을 전하는 활동이다. 점점 없어져 가는 여러가지 놀이를 가르쳐 주면서 나이차가 있는 아이들간에 의사소통 방법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운동을 통해 신체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② 학습지도

하급생에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방과후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의 활동이다. 학교 학습을 복습시키고, 숙제상담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학습지도나 놀이지도를 학생 그룹의 활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문화, 레크리에이션 지도

음악, 미술, 만화 등의 이동문화나 캠프·야외활동 등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학교의 이동회나 지역의 청소년 그룹과 연대하여 실제로 야외활동의 이벤트를 기획·실시하는 것도 좋다. 아이들이 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 아동의 자주적인 활동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교직원이나 어른들이 사회성 형성의 측면에서 적절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규칙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 등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경험을 쌓도록 한다. 또한 양호학교나 특수학급 학생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환경이나 생활조건을 넘어 연대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이들끼리의 약간의 마찰은 오히려 활동을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하나의 과제를 공동의 과제로 생각하게 하는 그룹만들기를 권장해 보자.

(12) 문화보존·전승활동

지역과의 연계를 생각할 때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최근에는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문화나 역사를 소홀히 하며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배우고 전하며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은 지역사회와 주체적인 관계를 맺는 동시에, 현재 이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수호하고 있는 주민과 깊은 교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영역이다. 더욱이 지역에 근거한 교육은 학교교육의 활성화에도 관련이 되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지역문화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지역의 역사·향토사지 만들기

각 지역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다. 그 역사에 대한 실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사적을 찾아가면서 조사하는 것은 지역의 성장과정을 아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지역을 답사하여 마을 어른에게 어린시절 마을의 모습이나 일어났던 일, 또한 재해나 천재지변을 인터뷰 하는 등 살아 있는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② 지역의 안내지 만들기

지역의 역사지 만들기와 같은 생각으로서, 지역의 안내지를 만들 수 있다. 지형과 지세 등을 실제로 조사하고 전통산업이나 공예산업 등을 알아보며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안내하는 등 색다른 지역안내지를 만들 수 있다.

③ 전통예능의 전승

지역에서 옛부터 전해오는 예능행사 등은 계승자가 적어지고 전승·보급이 힘들어 지고 있다. 방과후나 그룹활동 등을 이용해 가며 이러한 전통예능, 예를 들면 민속무용 등을 연습하여 몸에 배게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을 단지 연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제나 학습발표회 때 적극적으로 발표하게 하여 보급할 수도 있다.

지역의 역사지, 안내지의 편찬이나 전통예능 계승에 있어 이미 지역내에 보존단체나, 연구단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각 지구의 교육위원회 등에 문의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가할 때에는 전문적인 단체에 의한 활동과는 색다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13) 지역시민으로서의 활동

최근에는 국제교류가 빈번하여 여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거주하며 또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서로의 국민성이나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청소년을 자주적 정신을 지닌 시

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도 이러한 국제화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아이들에게 국제감각을 익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① 해외 펜팔

외국 학생과 편지를 함으로써 동세대간의 국제이해를 도모한다. 매일의 생활상이나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일본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을 될 수 있는 대로 영어로 표현해 본다. 일본 각지의 사진을 동봉한다든지, 그림엽서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② 유학생과의 교류

일본에는 많은 유학생이 있으며 재일외국인 자녀들이 일본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들 학생들과 교환회나 합동 하이킹을 함으로써 일본 문화나 전통을 전하거나 각국의 문화나 습관을 배워 국제이해를 도모한다. 각국의 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 둘러 앉아 대화나 합창을 하는 등의 다양한 교류를 갖는다.

③ 난민문제의 학습과 원조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나 난민 발생배경 등을 발생단계에 따라 자주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중고의류 등의 생활필수품을 학교 규모로 수집하여 난민거주지구에 보내는 구체적인 원조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제교류·협력의 기본은 적극적으로 상대국을 알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상대국의 사고나 가치관, 문화 등 생활습관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언어 장벽의 문제로 처음에는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가지 의사소통방법을 시도하는 가운데 차차 그 어려움을 타개하게 된다. 재일 유학생이나 난민에게 원조 물자를 보내는 쉬운 방법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수집한 단계에서 각 지구의 사회복지협의회나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여 송부하는 단체의 소재나 송부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14) 자연·환경 보호활동

지구 전체적으로 자연파괴나 환경오염, 또는 자원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민 차원에서 자연보호나 환경보호운동을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볼 수 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아이들의 적극적인 관심사로 되어가고 있다. 자연보호나 환경보호, 재활용의 문제에는 여러가지 활동을 생각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활동에서부터 차차 시야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휴지 안버리기

학교나 가정생활에서 버려지는 휴지는 상상외로 많다. 신문을 비롯하여 광고지, 파지, 포장지 등의 휴지를 그대로 버리지 말고 학급별로 수집하여 휴지업자에게 판매한다. 최근에는 재생지에 대한 관심이 변하고 있으므로 학교 전체가 이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

② 우유팩으로 엽서 만들기

먹고 버리는 우유팩을 물로 씻어 엽서로 재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먹고 버리는 우유팩을 학급별로 수집하여 학교에서 엽서를 만들어 보자.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와 연락을 취하여 지역운동으로서 전개해 볼 만하다. 그 엽서를 이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게 소식을 전한다.

③ 환경문제 조사하기

삼림 벌채나 지구 온난화 등과 관련하여 지구자원 이용방법이 문제시되고 있다. 생활습관, 문화와 환경, 자원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가까이 있는 자원의 사용법을 단지 좋다 나쁘다 등으로 판단하지 말고 환경과 생활방식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도록 조사나 간단한 실험 등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원봉사활동은 교과교육과 관련이 깊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환경교육이란 관점에서 볼 때 교과교육에서도 환경문제나 자원문제가 중요시되어 왔다. 자원봉사활동은 아이들의 자주적인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직원의 지도나 조언이 필요할 때에는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교과교육의 실천적 측면으로서 다루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환금이

가능한 활동일 때에는 그 사용 용도도 대화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생명체와 가까이하는 활동

도시 아이들의 생활환경에서는 생명체와 같이 어울리는 기회가 매우 적다. 사람외의 많은 생명체와 어울리면서 하나의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나 생명의 신비스러움, 허무함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자연이나 환경보호의 중요함을 생각하게 해주며 동시에 자기의 물체를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준다. 생명체와 접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동물 사육

학교에서 사육하는 작은 동물을 전교단위, 학년단위, 학급단위, 또는 그룹단위로 돌보아 주어 그 성장이나 생활상을 보는 것은 생명체의 모습을 아는 매우 쉬운 방법이다. 강아지, 토끼, 다람쥐 등의 소포유류, 잉꼬, 벤조 등의 작은 새, 거북과 같은 소형의 파충류 등 위험성이 적은 동물을 사육하여 교대로 먹이를 주거나, 동지를 청소해 주고 매일의 관찰기록을 작성하여 두는 것도 좋다.

② 야생조의 둥지만들기

날이 갈수록 자연을 상실해 가는 도시에서도 조금 중심지에서 떨어진 곳에는 수풀이 있으며 야생조가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야생조가 알을 낳고, 새끼가 자라기 위해서는 둥지가 필요하다. 학교나, 학년, 학급에서 학교주변의 새끼가 잘 모이는 장소에 이 둥지를 걸어둔다. 둥지 만들기는 방과후나 기술·가정시간 등 교과교육과의 연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능하면 교대로 야생조를 돌봐주거나, 관찰기록을 작성하며 동물과 접촉해 본다.

③ 애완동물의 어미 찾아주기

주택 생활사정이 엄격한 도시에서는 애완동물이 간혹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할 수 없을 때도 있고, 학교 등으로 찾아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학교에서 사육하는 동물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애완동물을 받아주는 곳을 찾아주는 것도 넓은 의미로서의 동물애호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학교신문이나 학교통신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의 게시판에 광고하여 지역에서 널리 알리는 것도 좋다. 동물을 학교에서 사육할 때에는 보건소와 연락하여 동물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의 식사나 배설물의 처리는 그 일부를 용무직원이나 업자에게 부탁하는 등 동물의 생활보호를 게을리하면 안된다.

(16) 수집활동

전교단위로 가장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모금활동에 협력하거나 여러 종류의 물건을 수집·환금하여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① 모금활동에 협력

모금운동은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하나이다. 주된 모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붉은 깃털모금(명칭): 중앙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모금으로 매년 10월에 실시하며 수금된 모금은 민간복지시설, 단체의 사업비로 사용된다.

나. 연말 이웃돕기모금: 중앙공동모금회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모금하는 것으로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주민의 협력으로 지역복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다. 녹색 깃털모금: 지역녹화를 위하여 매년 5월에 실시하는 모금운동이다.

라. 유니세프모금: 일본 유니세프협회의 주도로 발전도상국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돕기 위한 모금이다.

마. 빈통모금: 학생이 빈통을 지참하여 집에 가지고 가서, 잔돈을 담아오면 전교적으로 모아 지역의 공동모금회에 전달한다.

② 사용된 우표 수집

사용된 우표는 애호가들간에 매매가 되므로 이것을 수집하여 업자에게 팔아 그 이익금으로 예방접종 등 해외의 의료기관에 협력하든지 국내복지시설의 경비 등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다. 기념우표, 외국우표, 사용가능한 우표는 별도로 수집한다. 수집방법이나 수집 후의 용

도에 대하여는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와 사전에 상담한다. 가능하면 전교생이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중고의류 수집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난민에게 보내는 물자원조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이용을 돕기 위하여 입지 않는 새옷가지나 비교적 깨끗한 중고의류를 수집하여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가급적 대량으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와 미리 연락을 취하여 사후의 대책에 대하여 상의해두는 것이 좋다.

④ 바자회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바자회에 출품하도록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빈누·집기 등)이나 의류 등을 가정으로부터 수집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해외 협력단체로 보낸다.

⑤ 알미늄 강통

알미늄 제품은 보오크사이트로 제련한 것이므로 생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원봉사의 하나로서 알미늄통을 수집하여 업자에게 팔아서 그 매상금으로 휠체어를 구입하는 데 충당한다. 휠체어 1대는 약 8만엔이므로 알미늄은 약 1.5톤, 알미늄강통은 약 5만 개 정도가 필요하다. 스티로폴통과 섞이지 않게 분류하여야 한다.

⑥ 헌혈

헌혈은 16세이상 65세 미만의 남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헌혈은 마을의 헌혈실이나 헌혈박스에서도 할 수 있고, 「개방식」이라 하여 학교에 기재를 돌려와 헌혈하는 방식도 있다. 특히 헌혈자가 적은 겨울을 중심으로 대량의 헌혈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방식 헌혈을 하는 단체를 찾게 된다. 헌혈은 건강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간단하며 중요한 자원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학교 전체가 대상이 되어 일본적십자사로 상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다양한 수집활동은 자원봉사활동으로서는 비교적 하기 쉬운 것이다. 규모도 전교단위나 학급단위로 할 수 있으므로 힘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단지 수집하는 것」으로 그치는 예가 적지 않다. 특히 전교생 규모로 할 때 그렇게 된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수집활동이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집의 배경에 있는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를 인식하게 해준다. 교과학습이나 학급지도시에 학생이 수집에 관계되는 사회문제에 관한 기초적인 것을 학습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또한 수집한 물품을 환금한다든지 송금할 때에는 시설·전문업자·전문단체에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락처는 각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나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17) 기능습득활동

학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많은 사람들과 실제로 접촉하는 활동으로 실행해 볼 수 있다. 현재 혹은 미래에 있어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익힐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적 기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점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인쇄물이나 표시판에는 점자가 사용되고 있다. 정한 법칙에 따라 요철을 손끝으로 읽어간다. 확실하게 읽게 될 때 까지는 상당한 숙련이 필요하지만, 점자의 기본을 공부해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점자 익숙해지면 간단한 문장이나 편지를 점자로서 표현해 보는 것도 좋다.

② 수화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사람의 의사소통 수단에는 입술 움직임을 읽는 「구화법」과 손가락의 형태나 움직임으로 나타내는 「수화법」이란 것이 있다. 이것을 몸에 익히게 되면 많은 청각장애자와 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인 인사나 간단한 회화정도는 학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숙달된 강사를 초빙하여 올바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다.

③ 낭독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점자로 인쇄물을 읽을 수 있으나 점자로 된 간행물의 수가 적으므로 여러가지 책을 낭독하여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듣도록 하는 활동이 있다. 천천히 명료하게 발음하여 낭독하는 것이 요구되며, 공통의 법칙이 있으므로 대단히 힘든 활동이지만 낭독자원봉사그룹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가며 단편소설이나 평론 등을 낭독·녹음하여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듣게하는 것이다.

④ 휠체어 조작

휠체어는 발이 부자유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발과 같은 것이다. 손이 자유스러운 사람은 스스로 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 또한 혼자서 조작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계단이나 언덕에서는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럴 때 지나가는 사람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휠체어 조작은 휠체어 구조나 운전방법을 모르면 안전하게 할 수 없다. 부주의하게 휠체어를 운전함으로써 뜻밖의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휠체어 조작법을 배워두면 거리에서 휠체어 이용자를 도와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체육관 등에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가 나누어 연습해 보자. 그때 시설자나 사협(社協)의 직원, 또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로부터 전문적인 조작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⑤ 안내보조원

안내보조원이란 혼자서는 위험이 뒤따르므로 외출할 수 없는 눈이 부자유한 사람을 부축하여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안내할 때에는 오른쪽 팔꿈치를 상대의 왼손으로 잡게 하여 그대로 반발 앞서 걸어가는 것이다. 상대의 등을 민다든가 지팡이나 의복을 잡아당기면 상대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안겨주게 된다. 또한 도로를 걸을 때에는 상대에게 장애물이나 위험물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주위 풍경이나 계절감(건물이나 도로의 모습, 식물 등의 모습, 사람들의 복장 등)을 가르쳐 줌으로써 외출 그 자체를 즐겁게 느끼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교정이나 체육관에서 짝을 지어 연습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기술습

득을 하는 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노상 설치물 등이 장애가 되어 곤란할 때가 많다.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도움으로써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 행동하는 데 자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돕는다는 것은 그 장애의 특성이나 거기에 맞는 원조방법을 알지 못하면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이 쌓이고 학습해 나가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은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사고나 기초적인 실기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적극적인 체험을 쌓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8) 활동 홍보

학교주위의 지역에서는 다양한 복지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을 알아둌으로써 현재의 복지활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학교내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이 편집하고 인쇄하게 함으로써 학교내에 지역정보를 알리고 전교학생에게는 지역의 실정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학생의 능력, 작문능력, 발표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한 예로 학교의 「정보지」를 편집하는 데에는 어떠한 과정이 있는가 알아보자.

① 편집방침을 세운다

우선 편집하고자 하는 정보지의 전체적인 성격을 결정한다. 지역의 복지나 자원봉사활동, 문화적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짜고 그후 작업의 중요한 줄거리를 정한다.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발행할 것인가, 크기나 부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한다.

② 각 호의 특집을 정한다.

월 1회, 2개월에 1회 등의 발행간격이 결정되면 각 호 특집기사의 내용을

정한다. 각 호의 특종기사가 되는 내용을 확실히 하고 그 외의 기사내용도 함께 정한다.

③ 담당을 정하여 취재한다.

기사내용의 담당자를 정하고 취재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약속을 정한 다음 가야 한다. 또한 취재를 할 때에는 활동의 계기, 범위,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그 후의 예측 등을 취재하여 내용을 순서있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④ 원고를 쓴다.

취재한 내용으로 원고를 만든다. 내용을 정리하고 미리 정한 자수를 맞추어 문장을 만든다. 그림도 삽입하는 것이 좋다. 원고를 지역의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⑤ 제판하여 인쇄·제본한다.

원고가 마무리되면 오자나 탈자, 잘못된 문장을 교정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인쇄하고 페이지를 조정하여 제본한다.

⑥ 발송작업이 끝나면 교내나 지역, 가정으로 배부하여 의견을 듣는다.

(19) 자원봉사학교 참가활동

자원봉사활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학교」, 「자원봉사활동 체험학습」, 「워크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머리속으로만 자원봉사활동을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청소년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노인, 장애인, 어린이, 시설에 있는 사람,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① 「여름! 체험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체험학습」

매년 여름방학(7월~8월)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것으로, 도내 각지의 자원봉사센터와 동경 자원봉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실시하고 있다. 참가자는 대략 18세~30세로 되어 있으나

자원봉사센터에 따라서 중학생이나 국민학교생도 참가대상자로 하고 있다. 활동내용은 고령자, 장애인, 아동, 의료·보건, 국제협력, 환경보호 등이 있다. 활동종류는 약 900종이다. 활동장소, 시간, 내용도 전부 다르다. 하루활동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으며, 캠프에서 숙박하면서 하는 것도 있다. 그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활동을 몇 개라도 선택하여 참가하도록 되어있다. 모집은 6월~7월 경에, 동경이나 시·군의 홍보지,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 포스터 등을 통해 홍보하며 참가희망자는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활동처가 정해지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여 활동하게 된다. 활동에 무엇인가 곤란한 점이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한다. 하기 방법이 끝날무렵 교류회·반성회가 개최되므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다른 참가자와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② 자원봉사 학교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4~10일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 중에서 참가자는 자원봉사활동이란 무엇인가,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복지의 상황, 자원봉사활동의 체험 등 여러가지 형태를 공부하게 된다. 또한 몇 번의 만남으로 인하여 참가자간에 친숙하게 되어 수료 후에도 정보교환이나 교류를 계속하게 된다. 응모방법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가까운 자원봉사센터, 또는 동경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③ 워크캠프

자원봉사센터에 따라서는 하계방학, 춘계방학 중에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장소는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많으며, 3~7일 정도 체류하면서 시설사람들과 같이 작업하고 교류한다. 워크캠프에 참가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복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자원봉사센터나 동경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④ 청년자원봉사 모임

동경 자원봉사센터를 위시하여 몇 곳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을 모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대화나, 공부를 하며

교류를 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일시, 장소, 내용은 그 해에 따라, 또한 자원봉사센터에 따라서 다르므로 가까운 자원봉사센터나, 동경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한다.

2. 미국

1) 매릴랜드주에서의 봉사활동 학습

매릴랜드주의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견기대회, 음식배달, 일요일 노인방문, 나무심기 계획 등의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주 교육위원회는 1985년에 모든 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봉사활동 학습교과와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들 과목은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1992년 주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봉사활동학습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봉사활동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교육구별로 효과적인 봉사활동학습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아벨 재단은 1985년 법령 시행을 돕기 위해 1988년부터 2년간 기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봉사활동학습 전문가들이 고용되어 활동하는 매릴랜드 주 학생봉사후원회(MSSA)가 발족하였다.

1985년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다. 1993년 여름에 MSSA는 1600명의 교사들에게 봉사활동학습을 훈련시켰고, 이들 교사들은 매릴랜드 주의 곳곳에서 학교 중심의 봉사활동학습 프로그램에 종사하고 있다. MSSA는 교사훈련용 비디오 자료들을 만들었으며 고등학생, 중학생, 국민학생, 그리고 장애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학습에 관한 지도용 지침서를 만들었다. MSSA는 여름 학생 봉사단과 경험있는 봉사활동학습 교사들을 위한 동우회 프로그램 그리고 주의 각 처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활동학습에 대한 청소년 조인위원회

인 유스 라이스를 발족시켰다. 또한 MSSA는 수천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학습에 관한 주 전체 차원의 대회를 개최하였다.

(1) 자원봉사와 봉사활동학습

잘못된 용어의 사용은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게 된다. 「자원봉사」를 「봉사활동학습」 대신 사용할 때가 바로 그 경우이다. 봉사활동학습은 학생들이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배우는 구조화된 학습경험이다. 봉사활동학습에서는 준비와 성찰을 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봉사활동학습에서 학생들은 관련 안전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자신의 행동을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연결시키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기대되어 진다. 그들은 봉사활동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을 통해 지적, 개인적, 사회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봉사활동학습은 미래의 봉사경험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보통 보상이나 강제없이 행해진 활동을 의미한다. 준비없이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고도 자원하여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학습경험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경우, 이러한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개인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는가하는 문제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유능하고 사려깊은 방식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문제에만 주의를 기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은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수업을 받도록 해야 하는 교육조직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또한 학교 수업으로서 봉사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중요하다. 매릴랜드주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봉사활동학습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정신과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2) 봉사활동학습의 정의

봉사활동학습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MSSA는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학습을 정의하였다:『학교나 지역사회 안

에서 준비와 성찰을 거쳐 개인적인 접촉, 간접적인 봉사활동 혹은 조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

봉사활동학습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목표의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봉사활동학습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활동이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고 있다는 기쁨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그들의 작은 자아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까지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기를 원한다.

이상적인 봉사활동학습은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직접 대면함으로써 문제를 이해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은 노인을 방문하거나 아이를 개인지도한다. 다음으로 학생은 개인교사들을 연결해 주거나 약물남용에 관한 홍보회를 개최하는 등의 간접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많은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은 간접적인 활동들 —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 의복을 수집한다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모은다든가 하는 행동들 —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집없는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은 수집하는 행동을 보다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난 후, 학생들은 홍보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봉사활동은 대중 매체의 편집자에게 편지를 쓴다든가, 대의명분을 위해서 로비를 한다든가, 정치적인 운동에 종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봉사활동학습은 직업교육이 아니다. 학생들은 직업기술들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봉사활동학습의 주요 목표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봉사의식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봉사활동학습의 성과

봉사활동학습은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학생들이 습득할 필요가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을 체

득한다. 봉사활동의 궁극적인 성과는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봉사활동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목표를 성취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교육개혁에 관한 최근의 보고서들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이 사회적 측면이나 개인적 측면, 또는 지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들은 교사중심의 강의·시험 접근방식을 비판하면서 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추천하였다. 전국 주지사 연합회는 모든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2000년대의 목표들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봉사활동학습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배운다는 여러 증거들에 기초하고 있다. 「Harvard Educational Review」지에 실린 한 연구에 의하면, 봉사활동학습은 참여한 학생들을 세 가지 영역에서 성장시킨다. 즉, 학생들은 사회·정치적 측면, 개인적 측면, 그리고 지적인 측면의 세 가지 영역에서 성장하게 된다. 예를 들면, 코넬 대학의 한 연구자는 전 학기동안 정부에서 일한 학생들은 교실에 머물렀던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과업에 투여한 시간 중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그 안에 행동적인 요소가 있는 시간이었다.

봉사활동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개인적 그리고 지적인 기술들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① 봉사활동학습자의 사회적 성장과 발전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은 시민적·정치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게 된다.

가. 봉사활동의 현장에서 사회적 그리고 시민적 책임감을 갖는 것

가) 봉사활동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행동의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나) 봉사활동 프로젝트에 대한 헌신

다) 봉사활동을 통하여 보다 큰 인간 공동체에 기여하고 또 그로부터 혜택을 받게 됨을 인식

- 라)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사람들, 사안들, 장소들과 관계 형성
 - 마)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오는 개인적인 성장을 감지
 - 바) 봉사활동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원조
- 나. 사회봉사 현장에서 정치적인 활동의 효과를 인식
- 가) 동료에 대한 관심을 정치적인 행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
 - 나) 한 사람이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해 도모
 - 다) 봉사활동의 수행을 통해 무언가 독특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
 - 라) 지역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자원들을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 개발
 - 마) 지역사회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비정부조직들, 재단들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
 - 바) 민주적 과정들에 참여하고, 관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됨
 - 사) 정치적인 참여의 윤리를 발전시킴

② 봉사활동학습자의 개인적 성장과 발전

- 가. 봉사활동 기술들에 대한 능숙성 획득
 - 가)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언어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사용
 - a. 봉사활동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하는 것
 - b. 봉사활동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것
 - c.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하는 것
 - d.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 나) 봉사활동 현장에서 타인을 돕는 능력을 발전시킴: 경청하고, 도와주고, 면담하고, 개인지도하는 것
 - 다) 봉사활동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

라) 봉사활동 현장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 과업을 수행하고, 자신의 일을 운영하고, 평가하고, 방향지우는 것

마) 봉사활동 현장에서 팀워크를 보여주는 것: 팀의 목표 성취에 기여하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마찰없이 일하는 것

바) 봉사활동 현장에서 필요한 과업들을 확인하는 것

사) 봉사활동 현장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설득하고 요구하는 것

나. 봉사활동 수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발달을 보여주는 것

가) 봉사활동 현장에서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

a. 사람들의 기술, 능력 그리고 재능을 확인하고 인정해 주며, 성장에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

b. 봉사활동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자신감 그리고 능력을 유지하는 것

c. 대화와 적극적인 경청, 지지 그리고 도움을 통하여 봉사활동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나누는 것

나) 봉사활동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발달의 효과성

a. 봉사활동에서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

b. 봉사활동을 통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 능력을 보여주는 것

c. 봉사활동에서 참아내고 어려운 과업을 완수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

d. 봉사활동을 수행함에 의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시도해 보고, 새로운 도전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

e. 봉사활동을 수행함에 의해서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역할들을 탐구하고 어떤 직업이 자신에 맞을 것인지 탐구하는 것

f. 봉사활동을 수행함에 의해서 독립적인 행동과 자기 의존성을 보여주는 것

- g. 자신의 행동을 방향지우고, 적절하게 자기를 주장하고, 봉사 활동 현장에서 목표들을 성취하는 것
- 다. 봉사활동 현장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함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발달하게 됨
 - 가) 봉사활동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 a.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인간 평등성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 b. 봉사활동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 c.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과 구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 d.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가진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
 - e. 다양한 배경, 나이 그리고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 특히 봉사활동을 받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
 - 나) 봉사활동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원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 a. 봉사활동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추론의 과정(원칙적인 사고)을 거치는 것
 - b. 봉사활동 현장에서 자신의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대가들을 받아들일 것
 - c. 자신의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보여 줄 것
- ③ 지적인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의 봉사활동 학습자의 성과
 - 가. 봉사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기본적인 학문기술들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실행해 보는 것
 - 가) 봉사활동에서 언어적인 기술들을 보여주는 것 : 읽고, 의사소통하고(경청하고 말하기), 쓰기

- 나) 봉사활동 현장에서 수학적 기술들을 보여주는 것 : 문제를 형성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계산하는 것
 - 다) 봉사활동에서 연구기술을 보여주는 것 : 사안과 봉사기회들을 탐구하고, 조사·연구하고,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도서관의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
 - 라)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언어적, 수학적, 그리고 연구기술을 나누는 것
- 나.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점점 고도의 사고를 하는 능력을 보여 주는 것
- 가) 봉사활동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
 - 나)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집단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제를 발전시키는 것
 - 다) 여러가지 활동들이 봉사를 받는 사람들과 지역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
 - 라) 당면 문제들과 대처방안간의 상관성을 고려해 보고, 어떤 활동이 최선인가를 판단하는 것
- 다. 봉사활동을 성찰해 봄으로써 배우는 것
- 가) 의미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과 봉사활동의 경험과 정보를 논의하는 것
 - 나) 자신의 봉사활동 경험을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문학, 자서전, 철학, 시각적 예술품들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것
 - 다) 현실과 아이디어 및 봉사활동 경험들을 통합하여 의미있는 철학을 발전시키는 것
 - 라) 자신의 봉사활동 경험의 의미를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
 - 마) 사명감을 만들어 내는 것

(4) 봉사활동학습의 분야

매릴랜드주에는 이러한 봉사활동학습의 영역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생 봉사활동 소개

이 소개 단위는 학생들에게 학교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술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봉사활동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어떤 활동이 학생들에게 적절한지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 학생들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 자원봉사의 개념을 소개한다.
- 지도력,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친다.
- 학생들이 그들 자신과 지역사회에 동시에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

학생봉사활동으로부터 풍부하고 교육적인 경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각 주제에 소요되는 시간은 학생들의 개인차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음은 학생들이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고안된 일련의 목적과 활동들이다.

가. 봉사활동과 자원봉사

가) 자원봉사의 개념

나) 봉사활동과 시민정신

다)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기능들

라) 수업에 자원봉사자 초빙하기

마) 자원봉사 소식

바) 봉사활동에 관한 읽을거리

나. 기술들과 관심분야 결정하기

가) 관심분야 측정지표(일종의 적성검사지)

나) 나의 성취 소감

다. 의사소통 기술들

- 가) 의사소통의 정의
- 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 다)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것들
- 라) 적극적인 경청 기술들
- 라. 프로젝트 선정하기
 - 가) 가능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해결책 모색하기
 - 나) 필요성 평가하기
 - 다) 기관들 면담하기
- 마. 권력 기술들
 - 가) 청원 양식
 - 나) 제안 양식
 - 다) 기금신청 점검표

② 환경에 봉사하기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 살리기와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여 주겠지만, 학생들은 직접 지역사회로 나가서 관련 문제들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환경을 조사하여 그들의 지역사회의 환경적인 필요들을 평가하도록 장려된다. 다음의 프로젝트들은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혹은 그것들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내는 데 권장되는 방법들이다.

- 가. 환경 음악극
- 나. 섯강의 수질 검사하기
- 다. 시내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돌보기
- 라. 재활용에 대한 자각을 높이기
- 마. 농약없는 농산물 주창하기
- 바. 열대 우림 보호하기
- 사.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주창하기

참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사회 단체의 자문을 얻는 것이

좋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 문제에 대해 그리고 특정한 봉사활동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③ 노인들에게 봉사하기

이 단위에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이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제공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번의 행사로부터 계속적인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에서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에 관여하지만, 어떤 것들은 간접적이고 주창적 활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다음의 프로젝트들은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권장되는 방법들이다.

가. 노인들과 펜팔을 하는 것

나. 문화 축제를 하는 것

다. 노인의 자서전을 만드는 것

라. 노인들에게 할인 혜택이 있는 것들에 대한 소책자

마. 돌보기(care) 프로젝트: 노인과 의사소통 하기와 노인 기억하기

④ 빈민들에게 봉사하기

이 단위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과 집없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각 프로젝트는 빈곤에 대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배고픔과 집없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활동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의 준비와 성찰과정은 가난한 사람들을 존경으로 대하는 것과 그들을 사려깊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활동들을 개선하거나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권장되는 방법들이다.

가. 취약전 빈곤층 아이들을 미리 교육시키는 (head-start) 수업에 자원 봉사

나. 무료 급식소 일돕기

다. 영양가가 높은 요리책 만들기

라. 버려진 영아들을 위한 담요 만들기

마. 집없는 사람을 위한 집짓기

(5) 봉사활동학습의 사례 -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① 중학생을 위한 사례

- 프로젝트 아이디어: 집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짓기
- 관련 과목들: 사회과목, 산업기술, 언어 기술
- 봉사활동 종류: 직접적, 주창적
-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 학생들은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는 프로젝트들에서 일한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집짓는 프로젝트를 돕는다. (1) 노동을 제공하는 것 (2) 지역, 주, 연방 공직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을 보다 많이 짓도록 주창하는 편지들을 쓰는 것

가. 목적·성과

- 가) 사람들이 집 때문에 어떤 곤란을 겪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
- 나) 그런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것
- 다) 건설업계의 직업들을 알게 하는 것

나. 틀

- 가) 배우고 사용할 기술
 - a. 기본적인 도구 사용법과 건축 기술
 - b. 대인 관계에서의 의사소통기술
- 나) 개념
 - a. 집의 개념과 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함
 - b. 개인들(학생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옴
 - c. 정치적인 압력은 효과가 있을 수 있음

다. 자원들

- 가) 책, 비디오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비디오

나) 지역사회 주민

- a. 주택건설업자 협의회
- b.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 c. 주거안정을 위한 집단

라. 활동 과정

가) 준비

- a. 학생들은 주택 건축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편지를 써서 대표자가 수업시간에 와서 그 프로젝트와 주거지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해 주도록 요청함
- b. 학부모에게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편지의 초안을 써 줄 것을 그 대표자에게 요청함
- c. 학생들로 하여금 작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함
- d. 안전 과정·문제들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건설현장 안전에 관한 비디오를 구함
- e. 프로젝트에서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는 그 프로젝트의 감독자와 학생들의 기술과 능력에 관해서 논의함
(소요시간: 8~9 시간)

나) 활동

- a. 작업현장에서 감독자에 의해 부과된 일을 수행함
- b. 지역 공직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주택사정을 개선하도록 촉구함
- c. 학생들은 주택사정 개선을 촉구하는 편지의 초안을 작성함
포함될 제안들을 만들고, 편지쓰기 기술들을 점검해 봄
편지를 지역, 주 혹은 연방 공직자들에게 보냄

다) 반성·성찰

- a. 주택 건축의 여러 단계들의 사진을 찍음
- b. 작업 후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함
- c. 집을 갖게 될 가족을 초대해서 집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함

- d. 집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관한 시, 이야기 혹은 예술작품들을 만들게 함

(소요시간: 작업현장 방문 후 한 시간)

마. 인정과 축하

- 가) 주택건설 과정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집이 완성되어 집들이를 할 때 그 가족들에게 전달

- 나) 프로젝트와 파티를 널리 알림(신문, TV 등)

바. 학생 창의성(자발성)

- 가) 가족들과 연락하며 지냄

- 나) 다른 학급과 학교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② 국민학생을 위한 사례

- 프로젝트 아이디어: 집없는 아이들을 위한 학당
- 교과목: 사회, 언어능력, 예술
- 활동양식: 직접적, 간접적, 고취
- 수준: 상급생
-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학생들은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수용소에 살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학당을 만드는 일을 돕는다.

가. 목적·성과

- 가) 집없는 아이들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각성

- 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존경심을 발전시킴

- 다) 빈곤의 여러 수준을 이해함

나. 틀

- 가) 배우고 사용할 기술

- a. 의사소통·대인관계 기술
- b. 창조성
- c. 조직력
- d. 협조력

나) 개념

- a. 집없는 아이들은 종종 일년에 5~6번씩 전학을 함
- b. 집이 없다는 것이 아이의 생활 모든 면에 영향을 줌

다. 자원

가) 책, 비디오

책: 「집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 「집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침이 오네」

나) 지역사회 주민

- a. 지역사회 수용소 소장
- b. 사회사업지역부서(아동·가족 혹은 지역사회 관계부서에 자문, 시설이나 집없는 사람에 관한 최신 보고서 요청): 시나 구의 사회과 공무원을 초청하거나 방문
- c.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 동맹
- d. 집없는 사람 구제를 위한 전국 연합

라. 활동 과정

가) 준비

- a. 많은 아동들을 수용할 장소를 선택, 소장을 만나서 논의함. 시설내의 어디에 어떻게 학당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
- b. 시설로부터 대표자를 초청하여 학당에서 강연하게 함: 집없는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것, 옮겨다니는 문제(시설에서 시설로), 기타 집없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안정성 부족, 교육과 친구에 있어서의 연결성의 부족, 의료시설과 미래 계획의 부족 등)을 논의
- c. 집없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읽음
- d. 어떤 사람에게(부모, 고등학교 학생 등) 학생들을 방문하여 자신이 집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게 함: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낮에는 무엇을 하는가? 어디서 자고 먹는가? 무엇이 먹고 싶은가?

- e. 활동: 학생들은 그들의 활동들을 매일 기록. 며칠이 지나면 그들은 마치 자신이 집없는 사람인양 기록을 시작하게 함
 - 집이 없다면 나의 일상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가?
 - 이러한 활동들은 집없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 집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숙제를 할까? 그들이 공부하고, 놀고, 잠잘 곳을 가지고 있는가?
 - f. 학당에 포함될 것들에 대해서 논의함(예를들면 이동을 위한 짐들, 게임, 그림맞추기, 배개, 양탄자 혹은 방석, 색칠하기 공책, 크레용, 학용품, 칠판, 테이블, 걸상 등)
 - g. 학생들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기부를 부탁하는 편지를 씀(가족, 친구, 이웃, 사업체, 상인 등)
- (소요시간: 8~10 시간 수업)

나) 활동

- a. 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학당을 보조하도록 하고 다른 집단은 기부를 요청하도록 함. 각 집단은 다음의 한 가지를 하도록 함:
 - 공직자들에게 편지 쓰기
 - 사친회, 학교 위원회,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집단에서 발표하기 위한 연설문 쓰기
 - 지역사회 사업체에 편지를 쓰기
 -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부를 요청할 포스터 디자인 하기
 - 지역사회 대중매체에 실을 광고 도안하기
- b.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냄, 공급품들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를 만들, 지역사회에 학교 혹은 시설에 기부품들을 가져오도록 요청, 상품을 운반할 수레를 만들
- c. 학당을 치장하기 위한 장식품을 만들(그림, 지도, 포스터, 꽃, 숫자 그림 등 -학당은 밝고 화려하게 만든다)

- d. 공급품과 교실 치장을 위한 장식품들을 운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움
- e. 학당을 위한 기금이나 물건을 보낸 준 사람들에게 감사 카드 만들기
(소요시간: 경우에 따라 다르다)

다) 반성

- a. 토론·작문하기
 - 집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 내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느낌을 갖게 되었는가?
 - 내가 만난 아이들이 나와 다른 점이 있는가?
 - 이 학당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 내가 집없는 사람을 도울 다른 방법은 없는가?
- b. 시설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소요시간 : 1~2 시간 수업)

마. 인정과 축하

- 가) 학당의 개교를 축하하기 위해 학당에서 파티 개최,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학당에 익숙하게 한다. 지역 대중매체를 초대하거나, 혹은 파티를 비디오 테잎에 녹화
- 나) 교실에서 함께 일하는 학생들과 시설 아동들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그림을 전시
- 다) 지역 대중매체, 학교신문, 지역사회 신문에 학당을 소개
- 라) 뱃지나 자원봉사자 자격증으로 학생들을 포상

바. 학생들의 자발성

- 가) 학당이 잘 이용되도록 돕고, 아이들의 개인교사 혹은 지도자로서 봉사, 학당을 일주일에 한번 혹은 한달에 두번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생활

나) 집없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시설장과 이야기를 나눔

2) 봉사활동과 교과과정과의 연계

다음에서는 미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실에서의 학습과 지역사회에서의 요구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1) 국어

① 쓰기

가. 현재 사회의 안전들을 연구하여 친구들이나 지역사회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쓴다.

나. 봉사활동과 관계있는 안전들에 관한 문학작품들을 읽고, 봉사활동 경험을 그 주제의 문학적인 형태와 연결시키는 수필들을 쓴다.

다. 봉사활동을 한 후에 그 경험을 시작으로 하는 이야기, 시 혹은 희곡을 쓴다.

라. 노인에게 편지를 쓴다.

마. 장애자들의 편지 혹은 사업적인 글을 쓰는 것을 돕는다.

바. 산타크로스에게 온 편지들에 답장을 쓴다.

② 신문방송학

가. 비영리단체의 간행물을 쓴다.

나. 동네 신문에 이야기를 쓴다.

다. 지역사회 행사를 위한 소책자 혹은 「알림」을 쓴다.

라. 지역사회 신문을 만든다.

(2) 수학

① 어린 학생들을 가르친다.

② 지역의 필요에 대해서 설문지를 돌리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③ 농수산부나 자원부를 위해서 동물 종류나 식물들을 조사하고 수를 헤

아른다.

- ④ 휠체어 경사로와 같은 건축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자와 수요를 계산한다.
- ⑤ 지역사회체의 종사자들이 수학을 매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하여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다른 수학수업을 위한 소책자로 출판한다. 수학적 개념의 실제적인 적용을 보여주는 문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

(3) 컴퓨터

- ①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친다.
- ② 장애인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③ 비영리단체나 지역 농민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운영을 도와준다.

(4) 공업 기술

- 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물건들을 고쳐준다.
- ② 어린 학생들에게 자전거 수리 및 다른 기계적인 기술들을 가르친다.
- ③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집을 사용하기 편하게 고쳐준다.
- ④ 저소득층이 집 짓는 것을 도와준다.
- ⑤ 운동장 시설과 같은 공공 시설을 도안하고 건설한다.
- ⑥ 교통체증과 같은 지역의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발전시킨다. 이러한 정보와 아이디어들을 지역의 정책 입안자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

(5) 가정경제학

- ① 공공 시설 혹은 다른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협조하여 거실 혹은 다른 공동의 공간을 다시 도안하고 고치는 일을 한다.
- ② 재난 구호품으로 보내기 위해 물품을 수집하고 수리한다.
- ③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가게를 꾸려나가는 것을 돕는다.

- ④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영양에 관한 지식을 전달한다.
- ⑤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전달한다.
- ⑥ 미혼모에게 영양, 양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⑦ 소비자들의 불평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사회학과 심리학

- ① 친구들에게 사회의 공동현안들에 대해서 말해준다.
- ② 현재의 사건들을 연구하여 학생들에게 그것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다.
- ③ 공원, 도서관, 지역 기관들에 대한 지도를 작성한다.
- ④ 신문, 정보 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주요현안들을 연구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7) 역사

- ① 노인들을 면담하고 그들의 경험을 기록하여 지역사회역사에 관한 소책자를 만든다. 이것은 홍수, 지역 산업 혹은 한 특정한 사람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태평양전쟁이나 한국전쟁과 같은 세계적인 혹은 국가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 될 수 있다.
- ②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친구나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연극, 이야기 혹은 희곡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 ③ 걸어서 돌 수 있는 동네 역사 명소를 개발한다.
- ④ 중요한 사람의 집이나 공장들과 같은 역사적, 인류학적 현장을 재현한다.

(8) 정치학

- ① 선거자 등록을 도와주고 민주적 과정에 대해서 그들을 교육시킨다.
- ② 청소년 집단 혹은 다른 집단들의 요구와 의견들을 조사하여 그것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전한다.
- ③ 지역 정부나 공공기관과 함께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한다.

- ④ 공공의 안전들을 선택하여 그것에 대해서 대중을 교육시킨다.
- 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생기는 갈등들에 대해서 중재자가 된다.
- ⑥ 외국 정부들에게 죄수들에 대한 인권적인 처우를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9) 경제학·경영

- ① 지역사회의 자원을 점검한다.
- ② 한 산업, 지역의 경제적인 역사를 연구한다.
- ③ 이웃, 지역사회들에 접촉하여 자원과 필요들을 연결시키도록 한다.

(10) 건강

- ① 친구들에게 성문제, 가족 생활 그리고 다른 주제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 ② 친구들이나 대중에게 약물중독, 성병 혹은 다른 안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
- ③ 적십자의 헌혈활동을 돕는다.
- ④ 학생들이나 대중에게 응급처치법을 가르친다.
- ⑤ 사람들의 혈압을 재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1) 예술

① 시각 예술

- 가. 공원이나 운동장과 같은 공동의 공간을 도안한다.
- 나.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어서 노인집이나 병원에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에게 보여준다.
- 다. 공공 전시회를 돕는다.
- 라. 지역사회교육 등을 통하여 어린 학생들이나 어른들에게 예술을 가르친다.

② 공연 예술

가. 학생들, 장애인들, 혹은 관심있는 친구나 어른들에게 공연예술을 가르친다.

나. 공연에 장애인을 참여시킨다.

③ 음악

가. 지역 청소년과 성인 음악가로 구성된 지역 음악회를 조직하고 공연한다.

나. 지역사회 밴드를 조직한다.

다. 지역사회의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구성원들과 같이 일한다.

④ 연극

가. 현재의 사건들과 지역사회의 현안들을 연구하여 연극 대본을 쓴다.

나. 아동학대와 같은 주요 현안들에 관한 연극을 공연하고,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게 한다.

다. 친구들간의 의사소통과 다른 중요한 기술들을 익히는 데 연극게임을 이용한다.

⑤ 춤

가. 자신을 표현하고 적응하는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춤에 관여하도록 한다.

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그들의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돕는다.

(12) 체육

①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친다.

② 사고 희생자들의 재활을 돕는 작업에서 신체 요법자를 돕는다.

③ 지역사회 운동코스를 도안하고 건설한다.

④ 규칙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봉사활동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걷기 대회, 자전거 대회, 마라톤 대회 등을 조직하는 것을 돕는다.

(13) 과학

- ① 지역사회의 냇강 하나를 정한다. 냇강의 상태를 조사하고 청소한다. 냇강의 사용에 대한 규제, 쓰레기와 폐수 방출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하여 냇강을 정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다.
- ② 지역환경을 연구하고 지역의 생태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 혹은 온실효과 등에 대처하기 위해 나무나 기타 식물들을 심는다.
- ③ 야생화에 대한 식물학 안내, 혹은 지역공원 혹은 다른 자연지역에 대한 안내서를 만든다.
- ④ 에너지 조사를 한다.
- ⑤ 지역의 자원사용과 다른 환경적 안전들에 관한 연구를 하고 그 정보를 지역정책 입안자에게 전달한다.
- ⑥ 환경적 문제들에 관하여 대중을 교육시킨다.
- ⑦ 학생들에게 과학과 관련된 광범위한 안전들을 제시한다. 강우량, 비의 산성도를 포함하여 비에 관해 조사한다.

3) 참가자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봉사활동

학생들의 도덕적 성숙을 위해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활동에 참가하고, 점차 수준을 높여 나가며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활동을 하도록 강요받아서 안된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단계에 맞는 적절한 봉사활동이 있을 것이다.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사례로 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단계별 봉사활동을 정리하였다.

(1) 유치원과 국민학교 1학년

가까운 양로원에 살고 계신 노인들에게 보낼 카드와 예술작품을 만든다.

(2) 국민학교 2학년

집단으로 양로원을 방문하여 노래나 이야기, 게임 등과 같은 활동들을 제시한다.

(3) 국민학교 3, 4학년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과 짝을 맺어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4) 국민학교 5학년

유치원생들과 일학년생들이 카드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그 카드가 누구에게 갈 것인지 설명하여 그 카드에 의미가 담길 수 있도록 한다.

(5) 국민학교 6학년

2학년생들에 의한 양로원 방문을 조직하고, 이야기를 쓰는 것을 도와준다. 특히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말에 2학년생들에게 보여준다.

(6) 중학교 1, 2학년

노인들을 위해 잔디를 깎고, 낙엽을 모으고, 식물에 물을 주고, 눈을 치우고, 물건사는 심부름을 하고, 학교 근처에 혼자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

(7) 중학교 3학년

노인들을 면담하고 개인적 혹은 지역사회에서 구전되는 역사를 수집하고 기록한다.

(8) 고등학교 1, 2, 3학년

여러 영역에서 흥미에 따라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킨다. 집수리 혹은 휠체어 경사로 등과 같은 특수시설을 만든다든지, 신체요법 등과 같은 작업에서 보조자로 일하거나 아이와 노인의 짝짓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교사를 돕거나 노인들을 위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

어린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준비할 때는 교사나 나이 많은 학생이 많은 시

간 그들과 함께 작업하여야 한다. 어릴수록 간단한 봉사활동에도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들은 노인과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한다.

4) 미국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사례들

(1) 공연예술을 통한 지역사회봉사활동

1979년 이후, 매 학기 당 80~100명의 학생들이 센트럴 극장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는 독창적인 연극작품을 창조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였다. 이 공연은 매년 시 전체를 순회하면서 아동, 청소년, 어른, 노인, 소년원생, 장애인 그리고 다른 특별한 관심을 가진 집단을 포함하여 평균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연극의 주제는 인종차별주의, 약물남용, 아동학대, 10대 임신, 가족변화 등이다. 공연은 지역사회개혁을 위한 행동을 고취시키고 토의를 자극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오락과 교육을 위해서 고안되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연극하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하면서 특수한 교육적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공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① 극단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확인하기

프로그램은 즉흥적인 연극 기술들을 뽑아내고 기본적인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된다. 동시에 학생들은 연극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직접 들어가서 행하는 연구 프로그램에 종사한다.

② 합동연극 만들기

학생들은 9~10주간에 걸쳐서 즉흥적인 연극기술, 창의적인 글짓기, 지역사회 참여 등에 기초한 협동과정을 거쳐 독창적인 공연을 만든다.

③ 지역사회 순회 공연

학생들은 목표청중들을 선택하고, 공연표를 파는 일을 돕고, 순회공연을 조

직한다. 공연시간은 45분 정도이고, 공연에 이어 청중과 함께 하는 토의 혹은 연수를 마련한다. 청중들의 의견은 연극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연극의 내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④ 반성

반성과 과정의 분석은 전 과정을 통하여 연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그들이 창조한 작품에 대해서 아주 강한 주인의식을 느낀다는 것이다.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요, 그들의 감정이요, 그들의 통찰인 것이다.

젠 만텔/세인트폴시 센트럴 고등학교 교사

(2) 국민학교에서의 학습사회 건설

스프링필드 국민학교에서의 경험은 국민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가지로 증명하였다. 1987년에 채택된 학교위원회 정책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봉사활동에 참여시키게 되었다. 그 정책은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 시민정신의 가치, 각 시민의 책임에 대한 자각과 이해를 도모하고 함양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그 정책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하는 태도를 평생의 가치관으로 형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는 가족, 이웃, 주, 국가 그리고 외국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교사들은 그들의 재능, 자연적인 창조성과 봉사윤리를 결합시켜, 봉사활동과 학습을 연결시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는 학생들, 지역사회 수혜자들, 그리고 학교직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스프링필드 국민학교 봉사활동 경험의 몇 가지 사례를 기술한 것이다.

① 스프링필드 환경센터의 소장인 크리스토퍼 콜린스는, 이전에 헐곡이었던 곳을 환경 보호지역으로 만드는 일에 1,500명의 5학년 학생들이 하루종일 참가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길을 내고, 관목을 심고, 썰매 타는 장소를 개발하는 일을 도왔다. 후에,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 학생들의

노력을 치하하였고, 그 시설들을 이용하러 오라고 초대하였다.

② 엘리스 빌 학교의 유치원에서 4학년까지의 봉사활동 주제는 「배고프고 집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하이티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은 60kg이 넘는 운동화를 모았다. 이 프로젝트는 지리시간에 하이티에 관하여 슬라이드와 책을 통하여 배운 후에 시작되었다. 지도자이자 교사인 캐시 히프스는 “처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가난을 이해하였다.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슬라이드에 나오는 하이티 아이들 중 그 누구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신던 운동화를 기증함으로써 세계의 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비록 그것이 아주 미미한 것일지라도 - 고 진정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하이티에 자주 왕래하는 사람이 운동화를 고아원에 기증하였다. “많은 하이티 아이들이 생전 처음으로 신발을 신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쓴 편지를 받는 등 아이들의 기여는 인정을 받았다.

③ 프리만 학교의 각 5~6학년 학급에서는 지역 양로원 노인들과 결연을 맺었다. 교사인 카렌 차티에의 중재로, 학생들과 노인들간의 교류가 매월 이루어졌다. 편지와 그림들이 오갔고, 수업 프로젝트가 공유되었다. 매기 커닝햄 할머니는 생일에 나비 케익을 받고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학생들은 그녀가 나비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케익을 만들었다. 또한 매기 할머니는 스코틀랜드 태생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리시간에 배운 스코틀랜드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그녀와 함께 나누었다. 학생들은 노인들과 전화 상대가 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매일 그들의 전화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그 날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④ 링컨 학교 4학년의 봉사활동학습 프로젝트는 퍼레이드와 「모범 시민」을 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행사 전에 학생들은 모범 시민정신에 관하여 배우고, 그들의 주위에서 모범 시민을 추천하도록 요청받았다. 각 학생들은 자기가 추천한 사람의 모범성을 설명하는 그림이나 짧은 글을 지어서 「명성의 벽」이라고 이름 붙인 게시판에 붙여 두었다. 각 학급은 모범 시민을 선출하였고, 이렇게 뽑힌 모범 시민들은 시장, 시의원 혹은 다른 공직자들에

의해서 폐회식 때 표창을 받았다. 한 4학년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 일 당신이 모범 시민정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당신 역시 좋은 시민이 될 것이다.” 학부모와 시민위원회가 그 행사의 스폰서 역할을 하였다.

(3) 마살학교의 봉사활동 필수교과 운영

미네소타 델루스에 있는 사립학교인 마살학교는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마살학교에서는 졸업하기 위해서 10~15점의 봉사활동 점수가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마살학교는 활발한 친구 도우미와 친구 개인 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손내밀기」라고 불리는 선택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몇 개의 비공식적인 봉사활동들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주요목적은 마살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봉사활동은 광범위하게 무보수로 하는 일, 혹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로 정의된다. 지역사회는 학교, 이웃, 혹은 시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봉사활동에 관여했던 학생들의 활동가치를 인정해 주고, 아직 관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참여의 가치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인의식과 소속감, 그리고 자부심을 길러 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미 많은 프로젝트에서 높은 수준의 자원봉사자 활동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참여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

프로그램 조정자는 모든 프로젝트와 활동들을 검토하여 그것이 봉사활동 필수학점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 필수 과목을 이수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활동들을 통하여 최소한의 요구 조건들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발견하도록 고무되고 있다. 적절한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봉사활동 행사나 활동들을 조정하여 주고 있다. 다른 학생들이 무슨 활동들과 프로젝트를

선택하였는가에 기초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된다.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기회들에 대한 정보들도 또한 제시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행한 봉사활동에 관하여 기록하는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고, 그 활동을 증명해 줄 한 사람의 성인 이름을 적어 놓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의 성과(완수 혹은 미완수)에 대해서 정기적인 통보를 받게 된다. 지역사회봉사활동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상이 수여된다.

① 현장 감독자

가. 현장 감독자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교사들은 현장에 없지만, 그들은 현장에 있다.

나. 좋은 프로그램은 많이 뛰어다녀야 정해질 수 있다.

다. 단체들에 전화를 하고, 시간 약속을 정해서 그들 모두를 방문한다.

라. 교사가 가보지 않은 곳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기가 일할 곳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수업의 일부로 정하기 전에 그곳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② 현장 감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사항

가. 프로그램의 목표, 요구, 필요성 등

나. 학습 계획표와 숙제를 알려주면 현장감독자들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 단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라.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을 알려준다.

마.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감독자들에게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알려준다. 평가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4) 미네소타주 와세카시의 청소년 봉사활동

① 기원

미네소타주의 남쪽, 인구 12,000명의 와세카 학군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

은 이 지역 지역사회교육 소장인 존 젠슨이 「전국청소년지도력위원회 NY-LC」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 교육자, 학부모, 청소년 단체 직원, 정부대표 그리고 시민들 60명을 모아 놓고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모임의 결과,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물들이 나왔다. 독수리 클럽은 약물없는 청소년의 밤을 위해서 그들의 문을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들에게 개방하였다. 한 청소년 집단은 마을에 영화관을 유치하려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전국청소년봉사활동지도력 YSL」이라는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목이 개설되자 16명 정원에 60명의 학생이 신청하였다. 교장과 교육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비즈니스 담당 교사인 돈 즈와치는 「청소년봉사활동지도력」 수업을 정규적인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학생들은 1988년 봄에 세인트 폴시의 코모 파크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루 동안의 지도력 실행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청소년지도력위원회」의 직원들은 50명의 학생들이 팀 정신을 형성하고 지도력 기술을 닦는 것을 도와주었다.

8월에 14명의 와세카 학생들은 위스칸신주의 아메리에서 열린 전국 지도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열흘동안 학생들은 뉴욕, 뉴멕시코, 사우스 다코타, 미네소타 도시들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지냈다. 그들은 마라톤, 바위 오르기, 카누 젓기, 자전거 타기를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였고, 의사소통, 가족, 사회, 도덕·윤리 문제들에 관한 집중적인 세미나를 통하여 정신적인 교육을 받았다. 그 후 중요한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자신의 지역사회로 보내졌다. 마지막으로, 존 젠슨과 돈 즈와치는 그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학급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을 위해서 마지막 이틀을 학생들과 함께 보냈다.

② 성과

1988년 9월부터 와세카 YSL 수업의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교사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많은 시간동안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하였다. 그 학급은 또한 와세카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봉사활동과 청소년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발달을 위한 팀이 되었다. YSL 학생들은 청소년 봉사활동에 관하여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행정부와 청소년 개발 자문위원회에 제공하였다. YSL 학생들은 그들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른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켰다.

NTLC 직원들의 도움을 얻어, YSL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6학년생들 53명을 대상으로 지도력 실행훈련을 조직하여 실행하였다. 이 행사의 결과 4가지 연령대의 봉사활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YSL 학생들은 「독수리 십대 댄스」 프로젝트의 참여 청소년 수를 70명에서 175명으로 늘리기 위해 힘썼다. 그들은 노인들을 위해 음식을 배달하고, 학생들이 가르치는 예술 교실을 조직하였고, 도시 전체에서 한 트럭의 옷을 수집하여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레스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냈다.

③ 그들 자신의 교육을 책임지는 봉사활동학습의 과정

학급 교사인 돈 즈와츠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할 장소를 정해주고,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 냈으며, 학생들 자신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학습은 계획, 발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때때로 계획이 잘못되고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또한 그들이 프로그램 예산을 계산하는 것을 통해 계산능력을 향상시켰다. 그들은 또한 공공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들의 프로그램을 증명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또한 개인지도 프로그램들을 확립함으로써 가르치는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을 배웠다. 이에 더하여, 그들은 조직의 문제와 집단 문제해결과 같은 삶의 기술을 배웠다.

즈와츠는 봉사활동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학생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2주 정도 지내야 훈련 준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학생들은 프로젝트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열성을 보이게 된다.

학생들은 매일 기록을 남기는 것을 힘들어 한다. 그래서 즈와츠는 학생들이 매주 한 번씩 수업시간에 그들의 경험을 쓰게 하고 있다. 즈와츠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알리고자 하는 데에 열성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라디오와 TV에 출연하였고, 의회를 포함한 미네소타주의 곳곳에 심지어는 와싱턴시까지 가서 그들이 하고 배우고 있는 것을 홍보하였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참가시키기 위한 지역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홍보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학생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배우고 성취한 것을 생각해 보는 자성과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④ 와세카 학군에서 사용된 개발 과정

- 가. 봉사활동수업과 관련된 개념, 개설된 교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을 위해서 교장, 중앙 행정부, 그리고 학교위원회의 지지를 획득한다.
- 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소년들에게 설명해 주고 동기를 유발한다. 청소년들이 서로 동기를 유발 시키도록 한다.
- 다. 영향력있는 청소년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 라. 각 학생들이 개별적인 행동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마. 청소년들이 「선두와 중심」에서 일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한다.
- 바. 어른들과 청소년들 사이에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 사. 어른들과 청소년들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 아. 나이 많은 청소년들이 나이 적은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도록 한다.
- 자. 다른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과 교류하게 한다.
- 차. 우수성을 기대한다. 청소년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단체들의 통신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 타. 개별적인 청소년의 공헌을 인정해 주고, 청소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파. 지역사회 단체들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들을 제공하도록 문

호를 개방한다.

⑤ 지지를 위한 제안서

『미네소타 와세카, 1989년 5월

청소년 봉사활동과 지도력 수업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줄 방법을 찾았다.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실행하였다. 우리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그리고 협동의 실제적인 측면들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수반되는 내적인 보상을 즐길 수 있었다. 책임감, 자신감, 인격적인 성장, 그리고 자각이 청소년 봉사활동과 지도력 수업에서 강조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들의 지평을 넓히고, 개인적인 성공을 얻고, 우리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우리가 「인간을 돕는 인간」이 되려고 함으로써 우리는 「무언가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활용가능한 자원을 모색하였으며,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기쁨을 경험하였고, 지도력 기술들을 획득하였다. 우리는 힘든 가운데도 우리들의 결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태도가 이 프로그램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와세카 고등학교에서의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 왔다. 학생으로서 우리들은 거기에 반응하였다.』

마이클 에완스/조디 에이츠호스트

청소년 봉사활동과 지도력수업의 상급생

(5) 산업기술을 통한 청소년 봉사활동

워싱턴주 링컨고등학교의 산업기술 학급은 작년에 한 할머니로부터 그녀의 장애인 손자를 위해서 특별한 휠체어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할머니의 손자는 튼튼한 자재로 만든 경사로가 필요한 특수 휠체어를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의 지도교사는 그 프로젝트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한편 그 할머니에게 제재소에 자재 기증을 부탁하도록 조언하였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수업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계산, 도안, 목수일, 마감일—적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은 팀으로 일하면서 프로젝트 경영기술을 연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년말이 다가오자 그 프로젝트를 끝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결국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새벽 5시에 현장에 모여서 일하기로 결정하였다. 팀은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아주 헌신적이었으며, 정해진 시간에 전원이 참석하였다. 휠체어 경사로를 만드는 프로젝트에는 몇 가지 부수적인 장점이 더 있었다. 학생들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그 할머니의 손자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들은 할머니의 손자를 학급 파티에 초대하였고, 그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였다. 그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고립되고 외롭던 소년은 많은 친구들을 갖게 되었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들의 산업기술을 숙달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경험하였다.

(6) 전교적인 봉사활동학습을 강조하는 세인트 폴 개방학교

지역사회는 타인을 돕고, 배우고, 땀 흘리고, 포용하고, 가르치며, 자신의 힘과 재능과 젊음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프로그램들, 그리고 조직들과 나누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정열적이고 창조적인 작업의 수혜자가 되어 왔다. 개방학교는 처음부터 지역사회를 봉사활동학습의 장소로서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 왔다. 우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에 책임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학생들이 하는 봉사활동은 니카라과에 다리 놓기에서부터 추수 돕기, 병원과 무료 배식소에서 일하기, 음식배달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다. 학생들은 극장에서 일하고, 여성 보호소에서 일하며, 유아원 등에서 일한다. 그들은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이웃 아이들의 운동 코우치 역할을 한다. 그들은 이웃 지역사회 위원회와 「정의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은 아주 많다. 지역사회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결과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

의 삶에 포함시키기 위해 그들의 삶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성숙하게 되었다.

3. 프랑스

프랑스에는 「자원봉사 작업장 chantier」이라고 불리는 무보수 작업장이 1920년경에 생겼다. 이 작업장은 모든 사람이 공공재산(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구축해 놓았다. 개인이 적극적으로 한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역사의 유적복구를 통해 미래를 열어 주면서, 동시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게 한다.

또한 교육적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연수기회 부여, 책임감과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차이, 문화의 차이, 환경의 차이를 알게 하며, 또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 작업장은 국내·외적인 만남과 교역의 장소임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학습장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여기서는 여러 종류의 자원봉사작업장 중 문화유적 발굴과 보호를 중점적으로 하는 REMPART 중심의 작업장 활동을 소개하려 한다.

프랑스의 자원봉사 작업장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 작업장

작업장에는 보강공사를 해야 하는 중세의 폐허만이 아니라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가정, 만들어야 할 놀이터 등도 포함된다. 이것은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과 삶을 나누는 체험이며 한 나라 혹은 어떤 지역을 근본적으로 발전하고 그 거주자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기회이다.

(1) 자원봉사 작업장이란 무엇인가

자원봉사 작업장은 사전교육과 관계없이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이곳은 종교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차별없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활동은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위환경을 보호하고 정비하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활동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구체적인 일을 실현시키고, 기술을 배우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작업장은 젊은이들이 사회적·직업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업장은 모든 젊은이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원봉사 작업장은 기업이 아니며 휴양지도 아니다. 이곳에서는 기술적·교육적 교육을 받은 자격있는 사람들이 만든 엄격한 법에 따라야 한다. 어떤 단체에서는 작업장 지도원 교육연수를 신청하기도 한다.

(2) 작업장의 조직

대부분의 작업장은 여름에만 작업을 한다. 짧은 기간동안 운영되는 몇몇 작업장은 「연휴」나 「주말」에 개방된다. 그밖의 다른 작업장들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작업장의 최단기간은 1주일이지만 작업 기간이 3주일이나 4주일에 이를 수도 있다. 주간 작업시간은 청소년의 경우 평균 20~30시간, 성인의 경우 30~35시간이다. 같은 작업장에서도 여러 팀이 번갈아 가며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작업장에 따라 참가자들의 최소 연령은 13세, 16세, 혹은 18세이다. 외국에서의 체류문제 때문에 최소 연령은 대부분 18세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봉급도 사례도 받지 않는다.

참가비는 보통 저렴한 편이며, 그 돈에는 일반적으로 숙박비, 보험료, 단체 가입비가 포함된다. 이곳의 참가비는 때때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스포츠나 문화연수 추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통비는 참가자들의 부담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봉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단체들은 보통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3) 작업장의 여러 유형

자원봉사 작업장들은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활동구역 전체에서 각자의 참가 영역을 결정했다.

■ 농촌시설의 개선

- 시골길 포장하기
- 전통가옥의 보수와 개조
- 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 사원의 보수
- 사회경제 연구의 작업장

■ 자연보호

- 녹지대의 보존과 정비
- 공원과 자연보호 특별구역의 정비
- 하천 청소와 정비
- 환경에 관한 학습 작업장

■ 건축 유적의 보존

- 고고학상의 발굴과 공사
- 역사적 건축물들의 복원
- 고문서 탐구
- 역사학습 작업장

■ 스포츠, 사회문화 그리고 관광 시설들

- 운동장 정비
- 젊은이들의 숙박시설 정비
- 휴양지 정비
- 여가활동 시설 정비
- 하이킹과 승마를 위한 오솔길 만들기

■ 역사적 성격을 띤 작업장

-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민 노동자들, 노년층, 신체 장애인들)의 거주양식과 삶의 양식 개선

(4) 각종 단체의 작업장

많은 단체들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작업장을 조직한다.

이런 단체들은 대부분 청소년체육부로부터 보조를 받지만 문화부, 교육부, 환경처, 보사부로부터 역시 보조를 받는다. 청소년체육부는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유형의 활동들을 조직화하고 정비한다. 그것은 특히 「문화유산 캠퍼스」와 「녹색 캠퍼스」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몇몇 특수단체들에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문화유산 캠퍼스」는 작업장이 끝나고도 개축지역으로 작업을 연장시켰던 단체들에게 맡겨진다. 이 작업장은 지방에 만들어진 여러 문화유적의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
- ◆「녹색 캠퍼스」는 환경보호와 자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안을 제시한 단체들에게 맡겨졌다.

2) R.E.M.P.A.R.T 란

「REMPART 랑빠르」란 「La Restauration et la Réutilisation du Patrimoine」의 약자로서 프랑스에 있는 여러 종류의 자원봉사 작업장 중 특히 예술적 기념물과 문화유적의 복원과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연합이다. REMPART협회와 그 산하 150개 단체들은 건축학적, 예술적, 고고학적, 과학적, 자연적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번창, 유지, 개축 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총괄적인 문화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따라서 문화유적 복원과 유지를 목표로 하는 자원봉사 작업장은 1966년 설립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REMPART」의 지원과 제반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 협회는 무보수 자원봉사 작업장과 이 협회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 구역의 협조를 받아 구체적으로 많은 일을 실현하는 단체연합이다. 이 작업장에서 젊은이들은 기술교육과 인간교육을 받으면서 돈을 벌려는 욕심없이 그들의 여가시간의 일부를 문화유적의 복원과 유지를 위해 바친다.

복원사업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패의 위험이 있더라도 대중이 다시 인

식할 수 있도록 현대의 삶 속에 문화유적을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REMPART협회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유적에 하나의 지위를 돌려주려 애쓴다.

그 조직의 활동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협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각국 대표단의 보조를 받는다. REMPART에 가입된 단체들은 여러 도(道)와 지역에서 그 지역 협회나 단체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지방으로 확산된 조직화는 REMPART에게 고유한 지위를 준다.

(1) REMPART의 독립된 성격과 협조단체

REMPART 협회는 모든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다. 이 협회는 모든 권력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 단체가 「공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라고 승인 받은 것 외에도 REMPART협회는 다른 여러 부처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 ◆ 청소년체육부
- ◆ 환경처
- ◆ 다른 부처들과 한결같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문교부
- ◆ 문화부
- ◆ 주택 및 도시계획부
- ◆ 법무부
- ◆ 보사부와 국방부
- ◆ 외무부

이 협회와 그 산하 단체들은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연합운동의 추진력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REMPART협회는 다른 여러 연합그룹들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 COTRAVAUX(공동작업) : 젊은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
- ◆ CNAJEP : 젊은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대중교육을 위한 국립위원회
- ◆ FONDA : 공동생활을 위한 기금

- ◆ FNASSEM : 기념물을 보존·유지하는 단체들의 연합회
- ◆ FEAP : 문화유적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의 유럽 심포지움

(2) REMPART : 풍요와 다양성

① 국가연합망

약 20,000여명의 회원을 갖춘 이 협회 산하 150개 단체들은 프랑스 국내에서 20개 지역과 약 80여개의 도에 배치되었다.

각 단체들은 무보수 봉사자 그룹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때때로 보수를 받거나 그렇지 않은 전담직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모든 단체는 그 협회의 총회에서 규정한 일반규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REMPART 산하 단체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협회나 지역 단체들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이 운동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곳의 지역적 조직은 단체들간의 관계가 원활하도록 조정한다.

② 문화유적의 보존을 위하여.

REMPART협회 산하 단체들이 맡고 있는 문화유적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은 역사책에 있는 많은 단어들을 늘어놓는 것과 같다.

- 봉분(석총), 요새도시, 바위 밑 피난처, 갈리아 마을, (배교자의) 비밀회의실, 별장, (고대 로마) 원형경기장
- 수도원, 수도원 부속교회, 예배당, 성당, 소수도원
- 성, 중세도시, 병원
- 농가, 마을, 방앗간, 소작지, 비둘기장, 빨래터, 석회화덕, 우물, 십자가
- 철도, 자동차, 가구, 광산의 갱도, 골짜기의 스키 경기장, 시골길, 강, 숲

(3) 무보수 자원봉사 작업장

REMPART는 프랑스 무보수 작업장 단체들의 전면에 있다. REMPART 작업장들은 이 협회 산하 단체들에 의해 직접 조직되어 지역의 현실에 뿌리내린다. 150개 지역에서 해마다 14세, 16세 혹은 18세 이상, 5,000 명 이상의 자

원봉사자들을 받는다. 그들의 무보수 작업량은 10만 일본에 달한다.

① 국제적인 작업장들

REMPART와 그 산하 단체들은 젊은이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자 한다. 「위대한」 유럽이 건설되던 때에 유럽의 많은 젊은 이들은 프랑스에서 조직된 REMPART 작업장에 개인적으로 참여했다.

② 문화유적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들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무보수 봉사를 하는 참가자들 대부분은 그들의 휴가 전부 혹은 일부를 여러 작업에 투입한다. 고고학적 발굴, 지역의 정비, 벽돌공사, 돌 자르기, 골조 만들기, 목공일, 지붕·내부정비, 고대유적의 복원, 평면도, 조사, 기계장치 등.

또한 작업장은 무보수 참가자들로 하여금 어떤 지역과 그 지역의 문화, 전통을 알게 해주고, 카누와 스키, 범선조종, 테니스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또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이라는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③ 교 육

REMPART협회는, 이미 어떤 작업장에 참가는 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지식을 더 깊이있게 하고 싶거나 작업장의 지도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기념물」 연수나 「국가」 연수를 제공한다.

복원 전문가들과 잘 훈련받은 지도원들은 때때로 무보수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진지하게 전문적으로 이 연수를 지도한다.

(4) 과거의 미래 : 대중에게 알리고 인식시키기

① 문화유적에 생명을 주자

「기념물이 20세기에 맞는 기능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기념물을 문화적이고 사회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물을 지역주민에게 맡기는 것…」 이런 것들이 REMPART 단체들의 목표이다. (REMPART 현장에서 발췌)

이렇게 해서 야외 경관이 관광거리가 되고, 18세기의 곡식 창고는 전람회장으로 이용되며 농촌 가옥은 단기간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이숙소

로 개조된다.

많은 방문객들은 매년 「역사적 기념물 개방기간」이나 「전시회」 기간에만 그곳을 방문할 수 있다.

②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일

청소년에 대한 자신들의 임무를 자각한 단체의 지도자들이 고안해 낸 유적교실은 발견교실(자연, 스키...)을 본보기로 삼아 매년 REMPART협회 내부에서 조직된다.

③ 좋은 작품을 출판하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적을 알리기 위하여, 이 협회는 「살아있는 유적」 총서를 1983년에 발행하여 서점, 도서관 그리고 역사적 기념물 안에 있는 박물관 등에 비치하였다. 이 책은 단체나 기념물 관리기구에 관한 전문서적이다.

기술에 관한 별책들을 묶은 두 번째 총서도 나왔다. 「기술연구」라는 이 총서는 모든 사람에게 유적에 관한 자신들의 지식을 완성시킬 수 있게 해 준다. 이 책들은 지방유적의 승격에 한 몫을 한다. 이 협회의 산하단체들 역시 좋은 작품들을 간행한다.

④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일

문화부는 REMPART 협회가 출판을 하는 일 외에도, 분류되고 등록된 모든 기념물에 붙여진 「역사적 기념물」이라는 정부공식 표식을 상업화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로고테이프는 분류·등록된 역사적 기념물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5) REMPART와 자원봉사

이 협회 산하단체들의 활동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특히 무보수 차원에서의 자원봉사는 그 협회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중교육활동, 자원봉사 작업장은 일반국민 교육에 이바지한다.

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구체적인 무상활동

자원봉사 작업장은 단체들이 사회를 위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땀가를 바라지 않는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국가와 정부에 대하여 작업장은 시민사회가 스스로 조직화될 수 있으며 「정부 독단주의」가 반드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정부와 다른 공공단체들의 자리를 줄이겠다고 하는 정치적 의지를 고려해 볼 때, 「자원봉사 작업장」 현상은 아마 미래에 우리가 모색해 나가야 할 방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원봉사 작업장은 지방개발의 추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② 강력한 교육방법

자원봉사 작업장은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차세대에 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각을 갖도록 하는 강력한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작업장은 기업이나 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작업활동을 제시하므로, 단체활동을 하면서도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을 추진하며 사회에 전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작업장은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사실 뿐 아니라 수공업의 성숙한 미덕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작업장은 사회를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작업장이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욕구와 결핍 등을 진정으로 드러내 주는 역할을 통하여 주변 단체에도 영향을 준다.

③ 화목한 인간관계 형성

공동작업과 단체생활을 통하여 작업장은 여러 세대간의 만남과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진정한 연대의식을 만들어 낸다. 작업장의 국제주의는 나라간의, 국민간의 연대에 공헌한다. 작업장은 모든 종류의 배척과 차별에 대항한다. 평화를 위한 진정한 한 걸음인 것이다.

이곳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 육체노동을 넘어서서 작업장이 유적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장이 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도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3) 홍보 활동

구체적인 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REMPART의 모든 지방단체 회원의 기본 원칙이다. 단체는 다음 목적을 촉진시키면서 그들의 활동가치를 높이려고 애 쓴다.

- ◆ 작업장과 작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주민과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목적
- ◆ 여행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려는 목적
- ◆ 당국의 책임있는 지방의원들에게 단체의 계획된 사업과 활력을 알게 하려는 목적

(1) 어떻게 알게 하는가

비록 지역단체가 선전하기 위해서 확정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비싸나 매우 효과적인 소규모의 작업을 적당히 할 수 있다.

- ① 발굴기간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 인쇄나 공연, 전시회 등
- ② 상가나 지방 협회내에 게시물을 이용
- ③ 지방단체, 관광사무소, 공연협회, 시골집회소, 청소년센터 젊은이들의 정보협회, 학자협회, 육성회 등에 이런 종류의 서류들을 정기적으로 발송
- ④ 신문이나 라디오, TV의 기자들과 접촉하고 정기적으로 보도진에 공식 성명서를 보내 정보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마을의 작업장은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 그리고 근방 지역에 하나의 「사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신문기자들은 매우 많은 양의 정보를 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정보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소개하라는 충고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사건을 창조하기조차 한다.
- ⑤ 학교와(중등교육과 농업도 포함하여 기술교육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관공서의 선출된 책임자들과도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지방단체가 정기적으로 그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계획된 활동(축제, 홍보, 발굴장소의 방문이나, 개회식, 전시회 등)에 참석하도록 그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단체는 또한 환동기, 시청각 기기, 영상기를 사용하여 저녁회합이나 모임을 갖는다.

홍보를 위해 단체는 도지사, 지방시위원들, 해외지사의 대표들, 신문사, REMPART와 COTRAVAUX의 지역특파원들과 같은 「주요인사들」을 초대하는 것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2) 작업장의 방문객들에 대한 접대

방문객들이 기념물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용을 알려면 안내가 필요하다. REMPART의 표시판과 함께 환영게시판, 방문객을 위한 교통표시판들이 있어야 한다.

방문객들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안내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당신이 몰두하는 그 기념물이 여행자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근처의 기념물들의 포스타를 붙이는 것이 좋다. 그 지역의 다른 기념물들도 선전포스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입장료와 관측물건 판매외에 단체예산에 도움을 주는 많은 기부금을 접수할 수도 있다.

4) 지도자와 자원봉사자들

(1) 단체의 활동

작업장의 독창성은 작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작업장의 준비, 환경, 실행 등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단체는 무엇보다도 계획의 지도자이다. 그 회원들 덕택에 단체는 보호활동 뿐만 아니라 유적의 홍보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단체 운영은 작업장이 계절적일지라도 연중내내 계속된다. 보조금 요구서류, 발굴장의 보고서, 모임들, 전시회 준비 등은 발굴기간외에 행해지는 단체의 다른 활동이다. 활

동적이고 열정적인 단체없이 좋은 작업장은 없다.

(2) 활기를 불어 넣는 지도자들

조직에 능한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업장의 환경에 마음을 쓴다. 자동조직의 미덕이 어쨌든 간에 작업장은 인간적 면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면에서 좋은 환경없이 적절하게 작동될 수 없다.

지도자는 되도록이면 그가 책임을 지는 그룹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단체계획의 수취인이고, 작업장의 내부를 잘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의 의미에 대한 이해, 능수능란함, 조직, 실천주의 등은 필수적인 자질인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지도자는 건축, 고고학, 역사, 예술사, 발굴기술에 있어 가장 폭넓은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능들은

- ◆ 전문인들에게서
- ◆ 책과 기술적 참고자료들의 연구를 통해서
- ◆ 단체가 조직하는 연수와 같은 정보연수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더욱이 모든 자질들과 기능을 단 한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으면, 활동팀이 매년 새로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동팀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발생하는 돌발적인 일들에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해의 작업장의 일들이 지속됨을 확신시킬 수 있다.

(3)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은 물론 작업장 개장 전에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동료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신문기사, 라디오방송, TV 등 언론매체에 계획된 활동을 알리는 것이 좋다. 이런 홍보는 매우 효과적이므로 REMPART의 「활동」 목록에 게재함으로써

국내외 홍보를 통해 지원을 구하는 데 필요하다.

REMPART 협회는 그 회원단체들의 작업장을 위한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약속한다. 더욱이 그것은 조직자들과 두터운 신임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애쓸 것이다. 교통비, 장소에 대한 설명, 진행중인 작업들, 관리의 문제, 숙소의 문제, 일반적인 단체생활의 문제들이 환경이나 작업의 질, 특히 「생산성」에 대한 한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기부여를 위해 애쓸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현재 그들이 실행중인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항상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기념물의 역사, 작품의 기술, 단체와 REMPART의 활동에 대해 더 자세한 자료를(제시된 자료, 서류...) 원하는 봉사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는 그들이 자유롭게 동의한다면 그 단체에 대해 매우 좋은 참여자를 갖게 할 수 있다. 작업에 참여하는 그룹에게 그들을 구석에서 일하게 두지 말고, 감독자 앞에서 일을 조직하고 충고하는 등 최대한으로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한다면 각자가 다른 작업에 접근해 볼 수 있게 하면서 일종의 순환제를 실시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조금 익숙해지자마자 각자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일정표는 그들의 필요나, 기술적 요청, 그밖의 것들에 따라 참석자들과 공동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작업이 지도자들의 작업에 따라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그들의 선택이 계속되어야만 하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은 주지 않아야 한다(기술적인 면에 아마추어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자발성은(특히 작업장 밖에서 그들의 여가시간을 조직하는 것같이 성인들에게 관계된 것은) 자원봉사자들에게서 나와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그 그룹이 활기를 띠우는 데는 관계하나 자기 혼자 해서는 안된다.

지도자는 지역과 봉사자들의 잠재력을 파악함으로써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5) 특별한 규칙들

유산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작업장을 조직하기를 원하는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의 접대에 관한 것도 작업 자체의 조직만큼 여러 개의 규칙을 따르게 한다.

(1) 그룹으로서의 미성년자 접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18세)의 접대규칙은 매우 엄격하고 광범위한 적용영역을 가진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바캉스센터처럼 고려되어야 하고 숙소의 위생적, 물질적, 도덕적, 교육적 조건들에 대해서는 공공권 위기관에서 나온 규정을 따른다.

12명 이하나 또는 6일밤 이하의 기간동안 체류하는 모임은 신고가 면제된다.

텐트에서 유숙하기 위한 위생조건들과 악천후에 대한 보호책은 미리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텐트가 질병에 대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에 「천막으로 된 캠프」는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들을 예시한 모든 캠핑안전규칙들(건강에 해로운 또는 위험한 지역을 벗어날 것, 숲이나 국가에 의해 허가가 안 된 지역들은 벗어날 것 등)을 따른다.

영구숙소는 위생(샤워, 생리, 위생실, 식료품들의 냉장장소...)과 안전(건강에 해롭지 않은 위치, 방마다 환기시설...)에 관한 제반규칙을 잘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장소들은 이런 규칙들의 적용을 담당하는 청소년·스포츠 여가담당 지방행정부에 처음 개장시 신고해야 한다.

(2) 정 보

자원봉사자마다 단체와 그가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작업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 요소들은 REMPART 작업장들이 매년 발행하는

카탈로그에 나온다. 그러나 특별히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정보들을 보충하기 위해 관련된 작업장의 책임자와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한다.

- ◆ 단체의 목적

- ◆ 전체 이익 목표에서 자원봉사 작업의 사용에 대한 보장

- ◆ 명시된 기간 내에 실행하는 작업의 형태

- ◆ 접대와 생활조건에 대한 조직

자원봉사자는 현장에서 제공받은 정보들이 사실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REMPART 국가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작업장의 정신

각 개인은 환영을 받는다. 그러나 작업에 완전히 동화됨으로써만 열망을 실현할 수 있고 바람직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공동체 내에서의 조화로운 생활은 단지 엄격하고 효과적인 조직에 의해서만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드러움, 근면, 양식 그리고 특히 일상적인 임무 내에서의 역할분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작업장의 책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연결짓는 암묵의 계약에 대해

단체생활로 인해 작업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화가 재빨리 이루어지면 항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작업완료 전에 작업장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로 가치절하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삶에 적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체류비용을 반환받을 것이고 미성년자들이면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5) 계약

작업장의 책임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 더 좋다. 이때 아래의 조건들이 요구된다.

◆ 파상풍 예방주사

◆ 위급한 상황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나 부모의 주소

◆ 미성년자들에게는 부모의 동의서(목욕하기, 외과수술, 관할구역의 외출)

작업장 폐쇄의 경우, 협회는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작업장을 알아보고 계약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봉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반대로 자원봉사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그는 협회나 REMPART에 그것을 알려야 한다.

(6) 생활조건

단체는 부엌과 감독국의 생활필수품을 공급한다.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의 위생,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그렇지만 항상 현대적인 쾌적한 설비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어쨌든 자원봉사자가 내는 비용은 공동생활 비용으로 일부든 또는 전부든 보충되어 사용된다.

(7) 작업장에서의 작업

작업장에서의 일은 현실이며 그것은 노력과 끈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창조행위의 시간과 휴식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 그룹은 사용되는 기술을 설명하고 작업을 조직하는 책임을 진 책임자의 끝없는 도움을 받는다. 각자는 협회에 의해 예고된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야 하고 그 규율이 작업장에서 예고된 정보이든지 그룹 공동의 결정이든지 간에 정해진 작업의 규율을 존중해야 한다.

결국 책임자와 봉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는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8) 작업장의 안전성

책임자들은 절대적으로 안전규칙을 엄수해야 한다. 어려운 작업에 특히 주

의를 갖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한계에 대해 인식해야 할 것이며, 자신에게 너무 미묘하다거나 어렵다고 판단한 일에 대한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

안전성은 재료의 올바른 보관, 통행지역의 정비, 건축계단 바르게 쌓기, 그리고 작업장 설치 장소의 보호 같은 요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작업시에 마스크 착용하기 등). 맡은 책임에 따라야 하고, 엄격해야만 하고, 위험을 설명해야 하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된다.

안전성은 작업장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 경험상 많은 사고가 여가시간 동안이나 숙소에서(가정적 사고)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작업장과 숙소에 구급약품(약품가방, 들것, 해독혈청...), 응급진료 목록(주소, 전화번호: 병원, 의사, 약국, 경찰, 소방소, 앰블란스...) 그리고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것이다.

응급구조원의 배치는 매우 바람직하다.

모든 사고는 작업장의 보험업자와 REMPART 그리고 청소년이 관계되면 청소년·스포츠·여가담당부서에 24시간내에 신고되어야 한다

(9) 작업장에서의 기간

계약시 정해진 날짜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단지 명백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자원봉사자들의 체류기간을 변동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물리적이고 도덕적인 반대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긴 체류가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다.

6) 보 험

단체 책임자들은 그들이 계획한 활동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활동중 볼 수 있는 손해가 민사책임면에서 그들의 보험계약들 중 하나에 의해 보충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협회는 자신의 단체 회원들에게 활동의 양만큼, 적

당한 비용으로 그들의 필요에 맞는 보험계약을 맺기를 제안한다.

(1) 단체

민사책임보험은 허가를 받았든지 아니든지 제 3자들, 특히 방문객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접근제한, 금지의 팻말을 붙이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재산과 작업장 가까이에서 작업에 의해 손해를 입을지도 모를 가구나 건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감독책임자의 실수로 인해 인체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들과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보험은 작업기간 내에 작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책임을 진다. REMPART는 모든 자신의 단체 회원들에게 이런 종류의 보험, 즉 큰 범위의 재해들을 보증하면서 적절한 비용이 드는 보험에 가입하기를 제안한다.

(2) 참가자들

개개인의 보험은 개인적 민사책임과 단체활동시 참가자에게 뜻밖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책임진다. 참가자 개개인은 의무적으로 그가 작업장에 있었던 때가 어느 때이든지 간에 위험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만 한다. 협회의 채널에 의해 기재된 자원봉사자들도 자동적으로 보험처리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은 이미 조인된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단체는 협회와 협회가 선택한 동료에 대해서 계약을 서명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후자는 최소한 REMPART에 의해 쓰여진 것과 같은 보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장소, 물자, 교통수단

단체의 활동을 실습하기 위해 단체는 (그들이 소유주이거나 거주민이어서 그럴 수 있는 한)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장소들을 (단체실, 전시실, 숙소, 경우에 따라서는 복구중인 건물) 이용한다. 보험은 민사책임, 화재, 홍수 피해, 때로는 도난도 책임져야 한다. 사용된 모든 물자에 대해서 특히 제 3자에게 속하는 큰 자재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모터가 달린 모든 교통수단들(다시 말해 그들의 운전자가 운반하는 엔진들)은 개인부지로부터 가져 온 것이 아닐지라도 의무적으로 특별한 계약에 의해 보증되어야 한다.

7) 보고서 작성

이제 작업을 종결할 시간이 다가 왔다. 후에 이 작업장이 다시 열릴 것이라 예견되든지 아니든지,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정성껏 뒷정리를 해야만 한다. 동시에 활동보고서를 기록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1) 작업의 종결

땅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가장 위험한 지역은 바리케이트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접근금지 게시판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설치해야 한다.

캠프의 도구와 그 장소에 남겨진 용구는 확실한 장소에 정돈하거나 아는 사람이나 시의 보호에 맡겨야 할 것이다.

결산을 하고 있다면 빚을 갚는 것, 도움을 주거나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 반드시 작별인사를 하는 것은 양식있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질서의 한 부분이다.

아울러 많은 참석자들이 같은 마을로 돌아 간다면, 떠나기 전에, 추억을 나누거나 다음 작업장을 준비하기 위해 가능한 모임을 계획하는 것도 재미있다. 참석자들은 작업장에 관련된 보고서나 협회지를 적당한 때 받아 볼 수 있다.

(2) 보고서

복구작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문서 보관서의 연구에 의해 준비가 되었거나 이전의 참고자료들의 모음으로 준비되었어도, 보고서의 작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기록들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현상을 명확하게 하

고 전례의 성공에 모두를 참여하게 하는 다양한 행동의 결과를 종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것들은 아래의 여러 결정기관에 의해 요청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REMPART 협회

◆ M. H.의 건축가 또는 보호건물이라면, 프랑스 건물 건축가

◆ 허가된 발굴장이라면, 선사시대나 역사시대 고문서 보관서의 지역국장 (의무적임)

물론 서류작성은 수신인들에 따라 변경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경우에도 공통적일 수 있는 기초 항목들이 있다.

여기에 공통적인 계획안의 예가 있다.

- 발굴장소의 내력
- 작업의 기록(연대순 기록)
- 결과의 제시와 수집된 물질에 대한 연구
- 참여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체류기간(참여한 일수)
- 참가된 활동과 지역접촉에 대한 보고

보고서는 너무 간결하지도 너무 장황하지도 않아야 하며 항상 계획안, 도면, 윤곽, 사진들이 함께 들어 있어야 한다. 회계 요구에 관계된 사람들을 위하여 예측된 예산안과 실제 예산안이 함께 들어 있어야 한다. 신문의 기사를 오려낸 것들은 작업이 어떤 지역적 평판을 갖고 있었는지 나타낼 수 있으며,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작업 덕택에 공동체나 지역에 나간 광고를 보여준다.

마지막 보고서는 특히 결론은 아닐지라도 한정된 결론의 글이어야 하고, 적어도 작업의 연결을 위한 가설과 제안의 글이어야 한다.

이 작업이 또한 과학적 흥미의 결과와 관련된다면 출판의 기본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동시에 매해 기념물 보호작품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할 서류도 준비해야만 한다.

(3) 사진 홍보활동

모든 각도에서 발굴현장의 사물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 사물을 알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사진들은 작업준비를 위해 매우 유용하다. 사진은 자원봉사자들, 방문객들, 거주민들, 그리고 관리들에게 작업의 진행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지닌다. 보조금 요구시 이 사진들은 단체서류들을 풍부하게 해준다.

작업 전에 충분한 사진들을 찍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작업의 각 단계들을 찍어야 하며 어떤 때에는 작업중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찍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사진들이 신문이나 대중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되도록이면 다음을 이용하라.

- ◆ 흑백 네거티브 필름(가능하다면 6x6이나 6x9판)은 「마구 찍어대기」 좋고 경제적이며 후에 서류, 작업보고서 출판에 삽화로 넣기에도 좋다.
- ◆ 수집품들의 제시를 위해 반드시 칼라 슬라이드 필름(24x36)을 사용한다.
- ◆ 칼라 포지티브 인화를 한다(비용이 많이 드나 전시회 때 간수하기 좋다).

예술적 영상을 너무 찾지 말고 질에 대해 냉정해야 한다. 뒤로 물러설 거리가 없거나 접근할 수 없을 경우, 흥미있는 앵글 각도를 잡기 위해 다른 렌즈들(광각렌즈, 표준렌즈, 망원렌즈나 줌렌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그래프를 이용한 보고서들

사진보다는 오히려 그래프를 이용한 보고서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은 발굴지점이나 건물을 잘 알게 해준다.

이 지형학적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 보고서들을 보면서 많은 세부항목들을 발견한다. 만약 보고서의 기술이 충분히 전문화되지 않았다면 가능한 작업에 참여하면서 도와야 한다.

다음의 것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 ◆ 지금 환경에서 발굴 지점이나 건물을 배치하는 거대한 계획
- ◆ 총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8) 공공용자와 자체자금 조달

작업장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과 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예산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공사(설비와 재료), 정비와 일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위해 공공용자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실행되는 일들에 실제 효력을 확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고학적인 작업들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좀 적게 든다.

(1) 공공용자

국가는 일정 조건을 갖춘 단체에 보조금들을 지급한다.

국가적 성격을 지닌 공공기구로서 「C.N.M.H.S. 유적지 보호를 위한 국가기금」(문화부)과 C.N.A.F. 같은 것들은 보조금, (채권자의)경합, 대여들을 통하여 단체를 원조한다.

어떤 공적인 체제들은 문화단체나 보호단체들에 개방 경쟁시합을 계획한다. 그들은 단체에 재정적 방법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가장 큰 명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매해 C.N.M.H.S.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심오한 연구들과도 관계를 갖을 수 있다.

이 경쟁시합은 지역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치뤄질 수 있다. 「Antenne 2」의 TV채널은 매해 「위험속에서의 걸작들」이란 표제로 이 유명한 시합을 보호단체와 협력하여 편성 방영한다.

한편으로 보면 C.N.M.H.S.에 의해 승인된 간소한 기술연구기금(B.E.T.S.)은 작업에 선행되는 소 연구들을 실행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10월 15일경에 문화부 주관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보조금은 서류에 따라 1000부터 5000프랑 정도이다. 연구결과들은 다음 해 5월에 제출되어야 한다.

재정적 가능성 그리고 특히 독립성을 성장시키고, 단체들이 개인적 재산과 자체자금 조달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적인 용자

단체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기관들 만이 아니다. 「문예학술의 옹호」나 「후원」이라고 칭하는 활동을 통해 사적인 조직들을 활성화 할 수 있다.

- ◆ 금융기관
- ◆ 사업소나 기업의 상사들
- ◆ 다양한 기금들
- ◆ 박애주의 단체들(라이온즈 클럽, 로타리 클럽, Zonta 클럽)
- ◆ 학자나 보호단체들

단체들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기부금들을 아무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3) 고유재산들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익을 목표로 삼지않는 단체가 상업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갖거나, 이득을 올리는 권리를 갖기도 한다. 그 때 이 단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납세자가 된다. 어떤 경우 단체는 상업적 성격의 거래로 세금(부가가치세)을 지불할 수도 있다. 단체가 그들의 성격을 변형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고유재산을 증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회원의 수를 늘리고, 회비를 모은다.
- ◆ 다른 출판사에 의해 출간된 출판물을 배포한다(예: 단체의 출판물).
- ◆ 다양한 선전용 물건들을 판다(스티커, 우편엽서, 티셔츠, 메달 등).
- ◆ 공연을 계획한다(주의! 이것은 항상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 ◆ 공공단체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판다(공공단체에게 시에 대한 연구, 개인에겐 복구에 대한 안내).

단체의 목표와 희망을 참작하여 단체에 상당한 자원봉사자들을 확신시키는 데 상상력을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찾는 것은 단체의 지도자가 할 일이다.

(4) 외적인 도움들

일반인, 거주민들, 지방청부업자들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시도되는 활동에 흥미를 갖거나, 그들이 지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즉각적인 흥미를 그 활동에 보인다면, 그들은 작업도구와 재료(받침대를 위한 나무, 골조용 목재, 돌들)를 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설비사업들은 때때로 일종의 공공작업 계획처럼 협력할 수 있다. 트럭, 적재기, 트랙터 같은 대형기계들을 빌려 쓸 수 있다.

작업반이 작업장소에 숙영했을 때, 군대의 협조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군대의 도움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큰 도구나 트럭, 땅 아래의 자석탄광, 항공사진들, 수중탐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작업장소 특히 교외에 있는 것은 남을 돌보기 좋아하는 소방수들의 도움을 받는다.

9) 활동사례 I : 『빛의 알프스』

(1) 『빛의 알프스』는 무엇인가

이것은 1901년의 법안에 따라,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 단체라고 인정받은 단체이다. 이 단체의 목적은 「프로방스 지방의 내륙부에 관한 학습, 보존, 개발이다」. 이러한 목적은 그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주민과 거주자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을 학습과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빛의 알프스』에서의 활동방법은 다양한데, 그 방법들은 각계 각층의 대중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즉, 탐색작업, 출판물, 전시회, 전문교육, 교육연수, 그 지방의 발견물에 관한 연수와 출판 등이 그러한 활동이다.

(2) 참가비용

참가비에는 보험료, 서류비용, 단체가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보험료에는 특수보험에 들어야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본국 송환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단체가입비에는 숙박비 및 식비, 그리고 걷거나 차를 타고 이틀에 한 번 오후

에 하게 되는 외출비 전체가 포함된다. 일요일에는 번갈아가며 해수욕 또는 짧은 여행, 마을축제를 즐길 수 있다.

당신의 서류가 완벽하고 빈 자리가 없을 경우, 당신은 가입신청서를 낸 후에 가입 확인편지와 약속날짜와 장소가 명기된 정확한 약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단체는 체류조건을 지키지 않는 참가자는 누구나 사전통고 없이 돌려보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놓고 있다.

(3) 조직의 구성과 체류조건

① 작업장에서의 생활

작업장은 단체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을 만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숙박시설은 작업장의 위치에 따라 때때로 간이전물일 수도 있다.

② 참가조건

여기서 하는 작업은 특별한 능력을 요하지는 않는다. 작업장은 18세 이상인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건강 상태가 좋고, 알레르기 체질이 아니며, 프랑스 '젊은이들·외국 젊은이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적어도 2주 안에 등록해야 한다. 작업장을 오가는 교통비는 참가자들의 부담이다.

③ 체류기간 동안의 일정

작업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이다. 우리는 작업장을 지원하는 시청과 공공기관에 일주일에 약 32시간 정도 일할 것을 약속했다. 오후에는 자유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오락, 견학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일일 외출을 권한다.

④ 배경

작업은 전문가 한 사람과 지도원 한 사람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지도원은 스포츠 활동과 탐색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것이다.

⑤ 숙소, 시설

숙소는 시청의 사정에 따라 텐트나 휴양시설을 이용한다. 원활한 숙박운업을 위하여 참가자들은 번갈아 식사준비와 설거이를 한다. 참가자들은 침낭, 운동화, 수통을 준비해 와야 할 것이다. 텐트와 작은 매트는 대환영이다.

(4) 작업장의 파트너들

『빛의 알프스』는 청소년체육부로부터 민간교육단체로 승인받았고, 환경처로부터는 자연보호, 즉 삶과 주위환경의 여건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이 단체는 공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로 인정받았다.

이 단체는 프로방스 지방 내륙부의 주요 건축물인「Salagon 쌀라공」수도원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Salagon수도원은 프로방스 지방 내륙부의 알프스 도(道)가 이 지역에 민족문화유산 박물관을 짓기 위해 취득하였고, 『빛의 알프스』는 1981년 이 자리에 박물관을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COTRAVAUX와 「Provence-Alpes-Côte-d'Azur 프로방스 알프스 코트 다쥐르지방의 작업장 연합 지역위원회」 산하 단체이다. 무보수 작업장은 「Alpes de Haute-Provence 알프스 드 오프 프로방스의 일반심의회」, 「Var 바의 일반심의회」, 「Provence-Alpes-Côte-d'Azur의 지역심의회」, 문화부와 프랑스어 사용권부, 청소년체육부, 환경처, 시청 등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 위에서 작업은 Alpes de Haute-Provence와 Var의 프랑스 건물 건축기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10) 활동사례Ⅱ : 『성모의 친구들』

(1) 작업장의 작업이행

『Association des Amis de Notre-Dame-de-Lure 워크 성모의 친구들 연합체』란 이 작업장은 1993년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개되었다. 약 50명의 젊은이들이 이 기간 내내 변함없이 그날 그날의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하여 교대로 작업을 했다(무보수 봉사자들은 25~30명).

때때로 많은 신입회원들이 몇몇 조직상의 문제 뿐 아니라 단체생활에 대

한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정된 프로그램을 다 마칠 수 있었다.

(2) 재단과 가설

올 여름 우리는 성당내진(內陣) 왼쪽 벽의 외부를 복원하는 데 힘썼다. '92년에 창문 밑 마지막 줄을 갈라내긴 했으나 그것을 다시 설치할 시간은 없었다. 이제 그 일을 끝낼 것이다.

우리는 반대편 벽에 있는 창문 바깥쪽 일부분을 수리하는 일에 착수했다. 궁륭(등근 천장)을 출발점으로 하는 데 필요한 돌은 이미 재단되어 있었다. 내년에 쓰게 될 돌 중에 3개는 확인되었고 2개는 이미 설치준비를 마쳤다. 동시에, 내부에는 창문 왼쪽에 있는 돌의 마지막 열이 다 놓였다. 그 위의 궁륭은 몇 조각만 남아 있는 등근 코니스(벽이나 기둥의 꼭대기에 얹힌 쇠시리 있는 수평돌출부)에 기대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Banon바농」의 길에 있는 돌덩어리를 주문했고 그것들을 원래 모양에 따라 잘랐다. 돌재단실은 이렇게 그 기능을 매우 효과적으로 발휘했지만, 이 곳에서 모든 돌이 정리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3) 접합부와 톱니바퀴의 이

측랑 벽의 강화작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부스러지고 있는 이 벽의 일부를 우리는 돌과 석회반죽으로 복원시켰다.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벽 내부의 스포로킷을 굳혔다. 1톤 반 이상의 석회가 그 건물벽에 투입되었다.

(4) 단단한 돌벽

최근 몇 년동안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는 습기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돌벽의 재건 작업에 힘썼다.

대단히 나쁜 상태인 이 벽은 군데 군데가 와르르 무너져버릴 만큼 위험하

였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작업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우리가 벽의 부분 부분을 떼어낼 때마다 그 부분과 인접한 부분 역시 불안하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붕괴가 여러 번 반복된 후에 땅 밑에서 수도원의 작은 기둥머리가 나타났다. 건축과 고고학 분야의 권위자들이 다녀간 이후 그들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이 기둥머리를 재고 사진을 찍었으며, 이후에도 그것들을 보호했고 단단한 돌벽을 재건했다.

(5) 그 지역의 정비

우리는 피크닉 탁자를 바꾸기 위해 보이스카웃 출신 두 명을 목공작업에 참여시켰다. 탁자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 의자를 탁자 다리에 직접 고정시켰고, 하나로 고정된 의자와 탁자 전체를 땅에 단단히 박았다.

먼지투성이였다 우기에는 진흙탕이 되는 오두막집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두막집의 현관 앞 낮은 층계와 연결하여 자갈로 된 보도를 만들었다. 또한 우리는 연결된 돌이 쉽게 붙도록 이 층계 타일을 다시 시멘트로 붙이고 그 이음새에 회반죽을 다시 발랐다.

작년에 「단체」 창설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도원의 역사와 건축양식, 이 단체의 내력과 작업장의 활동을 설명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읽기 쉽고, 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마분지 게시판을 만들었고, 이 게시판을 세워놓기 위해 받침대를 만들었다.

(6) 93년 9월 15일 총회보고서

출석자 (이사회 회원들) : Jean BRUNAT, Olivier LAMBEAUX, Claire de François MOULIN, Christine HALTZ, Elisabeth LANCE (Saint-Etienne-les-Orgues 생-에띠엔느-레-조르그 시청대표), Père Pierre-Etienne CARROT, Mireille LIOZON, Edmond GAUBERT.

오후 3시 40분에 의장이 이 단체의 제 17차 일반총회를 개최한다. 공인된

위임장 숫자와 참석자들은 정족수를 충분히 넘어서었다.

① 교훈적 보고

이 단체는 기술, 도덕, 정신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그 기반이 매우 튼튼한 단체이다. 의장은 참가자들 모두에게 감사했다.

- ◆ 그들의 회비, 그들이 보여준 호의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들의 숫자로도 회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알 수 있다.
- ◆ 이 단체의 선봉부대인 작업장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일과 헌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다.
- ◆ 이사회 회원들과 특히 Edmond GAUBERT, Christine HALTZ, Michel et Joseph JULIEN, Olivier LAMBEAUX, Claire et François MOULIN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보수없이 최선을 다했다.
- ◆ 외부에서 우리를 정성껏 도와주는 수많은 후원자들이 있다: 「역사적 기념물」과 「프랑스 건축」의 건축가들, 청소년 체육부 지방국장, Saint-Etienne-les-Orgues 시청, 지역과 지방에서 뽑힌 사람들, CORAC의 여성 의장 등.

*의장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가?

- 우선 이 단체에 대한 1901년의 법안에 따른 법적 의무.
- 다음은, 사람들의 선의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공동작업을 하는 역할. 그의 활동은 수레를 끌고가는 여러마리 말의 역할과 비교할 만하다. 말이 끄는 수레는 마부가 모든 방향에 따라서만 그 효용성을 찾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수레를 끄는 것은 말들이라는 사실을 이 마부는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

1993년에 정원은 정상 수준에 도달했다 : 약 50명의 젊은이들(그 중 25명은 동시에 참석했다). 이 숫자는 작업장의 정신에 맞게, 숙박문제 없이 일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이상적인 숫자이다. 이제 회원의 수는 400명 가까이 이르다.

단단한 돌벽의 복원작업을 할 때 우연한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 덕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던 기둥과 기둥머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무너진 더미 위에서 수도원 폐허의 실재를 확인한 것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역사적·고고학적 기념물 담당부서는 이 지역 전체를 고고학 발굴작업장으로 개장하려는 계획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이 기둥과 기둥머리를 다시 보호하고 묻어둘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가의 감독을 요하는 작업비용과, 약탈자로부터 유적을 보호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당장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Christine HALTZ와 Claire et François MOULIN과 함께 협력하여 Etienne HALTZ가 그림별, 페이지 단위로 조판한 Lure(튀르지방)의 Notre Dame(성모 마리아)에 관한 「잡는식 도록」이 최근 출판되었다. 이 소책자는 젊은이들과 소교구, 관광협회,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알릴 수 있을만한 다른 지역에 무보수로 홍보하는 데 한 몫 한다.

Père BONNET의 훌륭한 책 : “한 건초베기에서 다른 건초베기로”는 Gérard KLOPP 출판사와 협력하여 문예학술 옹호활동을 한다. 이 출판사는 우리 단체의 회원이 책을 살 경우 한 권당 100프랑씩 우리에게 반환해 줄 것이다.

② 재정보고

의심할 나위없이 약간의 대차차액을 포함하여 1992년의 회계 결산은 좋다. 두가지 예비비가 있다 :

- 17,000프랑은 우리가 소성당 lauzes지붕 복구로 얻게 된 이익금이다. 이것을 입금하기 위하여 우리는 Saint-Etienne-les-Orgues 시청이 확실한 구좌를 제시해 주기를 기다린다.

- 22,840프랑은 우리의 친구 Patrick PONT의 장례식 때 들어온 기부금이다. 이 돈의 사용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좋은 일에 쓰기로 되어 있다.

앞으로 지출해야 할 많은 돈을 생각해 볼 때 예비비는 매우 중요하다. 예비비 덕분에 막대한 금액을 예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역별·관할별 '93 작업장의 재정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한 염려가 있었다. CORAC과 단체들이 맹렬한 활동(당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보완서류를 작성하는 등)을 펼친 결과 우리는 지역 이사회에서뿐 아니라 총이사회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던 10,000프랑을 받았다. 우리는 청소년체육부로부터도 거의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예비비의 수익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20,000프랑을 프랑스 투자신탁회사에 투자하였다.

재정보고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③ '93 작업장의 작업들 :

이 보고서는 François MOULIN이 발표하였다. (본문참조)

④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Sabine du BOULLAY, Olivier LAMBEAUX, Joseph MERLENGHI, Claire et François MOULIN 은 다시 출마해서 3년 임기로 당선되었다.

⑤ 여러가지 의문점

도난당한 상像의 대체물 : Brusquet 출신의 조각가 MAILLART부인은 그녀의 작업에 관련된 서류를 우리에게 보낼 예정이다. 우리는 다음 사항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회원들을 위해, 회보 형식으로

(“예전에 이런일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볼 것)

· Saint-Etienne-les-Orgues의 거주자들을 위해, 시청의 중개로.

이 협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 현대 조각품, 고대 특히 로마네스크 양식의 복제, 도난당한 상의 복제.

◆ 스테인드 글라스 : Mireille LIOZON은 그가 알고 있는 유리세공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Jean BRUNAT는 「역사적 기념물」이 이러한 사항을 받아들일 것인지 M. FLAVIGNY에게 물어볼 것이다.

◆ 너무 가득찬 저수지 : 배수관은 내년에 바꿀 예정이지만 저수탱크(마실 물과 소방수들을 위해 예비해둔 물)의 수리는 「역사적 기념물」의 의견에 따라 Saint-Etienne-les-Orgues 시청이 책임질 일이다.

◆ 대피소의 벽난로 : LANCE부인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 벽난로를 긴급히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시의회에 환기시킬 것이다. 이 벽난로의 균열된 파이프는 화재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준다.

의장은 오후 5시에 폐회를 선언한다.

아직은 우리 현실에 요원하게 느껴지는 프랑스의 「자원봉사 작업장」을 자세히 다룬 이유는 하나의 활동을 위해서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그리고 관련전문가, 비전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짜임새 있는 작업방식과 협력체제를 소개하기 위함이다.

IV. 지역사회봉사활동 내용구성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모든 생활의 장이 대상이 될 정도로 광범위하지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은 여러 면에서 제한을 받는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경제력과 경험, 그리고 시간과 능력면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순수함과 열정, 잠재력 등은 성인들이 할 수 없는 면을 보완해 주거나 성인과는 다른 면모의 봉사활동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개발과정에서 인지한 내용과 결정된 개발지침에 따라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을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구성하였다.

1. 인식프로그램 : 활동소개

인식프로그램에는 봉사활동의 의미와 목적 등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를 담는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이 왜 그 활동을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활동이 적극성을 띠게 되며 한번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흥미와 보람을 느끼며 주체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예비지식을 입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그 곳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봉사활동들을 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한다.

2. 이해프로그램 : 간접체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인식된 내용들을 간접체험하게 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고 봉사활동에 실제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수련회 등에서 다른 활동들과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봉사활동들이 해당된다. 따라서 봉사활동 현장에서의 활동이라기 보다는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단계의 활동들로 구성했다.

3. 실행프로그램 : 직접체험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활동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체험활동을 하여 직접체험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진 후 실행활동에 들어 간다. 앞의 두 과정에서 전개되는 활동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후 이번 과정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는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수혜대상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즉 인식하고 이해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제로 행함으로써 직접경험을 하게 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주로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는 활동들을 담고 있다.

4. 평가프로그램 : 나눔과 평가

평가프로그램은 위의 활동들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고 느낀 점들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응용활동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4개의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주제의 논리와 난이도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나 각 단계별 활동들 간에 심리적인 면에서의 엄격한 순서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각 프로그램은 3개의 활동들로 구성되며 활동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활동개요—활동의 필요성이나 의미를 서술한다.
- 2) 활동목표—구체적 행동지향으로 진술한다.
- 3) 활동과정—4~5개의 단위활동으로 구성된 활동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한다.
- 4) 활동내용—수련활동의 각본으로 가능한 구체적인 지도요령(instruction)으로 제시한다. 필요하면 활동내용을 그림으로 구성한다. 상기 4개의 과정들은 독립적이면서 상호연관이 있는 순차적으로 심화되는 내용들로 구성한다.
- 5) 유의사항—활동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 6) 도움자료—활동을 심화시키거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소개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활동 프로그램의 융통성을 고려하면서 실제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활동방법과 그 활동내용을 구성할 구체적인 자료, 그리고 이해를 돕거나 활동을 발전시킬 국내외의 봉사활동 사례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학교의 봉사클럽(장기), 청소년단체의 봉사활동(단기), 수련활동에서의 봉사활동(일회적) 등에서 자신들의 목적과 규모, 그리고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과정에 있어서 융통성을 기했다.

또한 활동별로 관련 영상자료와 관련 기관을 소개하여 지도자들이 활동 지도시 쉽게 필요한 정보와 자문에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구성 원칙에 따라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차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인식프로그램 Awareness Program

1) 기쁨은 배로 고통은 반으로

남과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이웃과 행복을 나눔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는 활동이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바람직한 청소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되도록 한다.

- (1) 자원봉사 상식수준
- (2) VTR 작품감상
- (3) 자원봉사활동 바로알기
- (4) 자원봉사 표어와 로고제작

2) 『사랑의 지도』 만들기

『사랑의 지도』 만들기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조사하여 지도로 만들어 보는 활동이다. 기존의 봉사

활동 영역을 알아 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장소, 사람들을 조사해 지도로 만들어 본다. 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며 지역사회 안에서의 봉사활동 영역을 알게 한다.

- (1) 우리마을 알기
- (2)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
- (3) 우리동네 탐방
- (4) 「사랑의 지도」 만들기

3) 백문이 불여일견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견학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생활상을 둘러봄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의 또 다른 이웃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힌다. 시설견학을 통하여 시설과 시설인들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1) VTR 작품감상
- (2) 방문일정표 짜기
- (3) 선물준비
- (4) 시설견학
- (5) 느낌 나누기

2. 이해프로그램 Understanding Program

1) 『내』가 『네』가 되어

우리는 다양한 장애를 지닌 장애인들과 함께 하나의 사회를 이루며 살아 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정상인인

우리는 그들이 지닌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갖춰야 한다. 우리는 신체적 장애를 체험해 봄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 (1) 장애인의 글 소개
- (2) 즐겁게 노래를
- (3) 장애체험활동 「말을 못해요」「보지 못해요」「걸지 못해요」「팔을 못 써요」
- (4) 함께 나누기

2) 손끝으로 사랑을

인간은 누구나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체험이 있으며, 이것을 남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음성언어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의사전달 방법에 있어 큰 고충을 겪고 있다. 우리는 기초적인 수화동작을 함께 배워 보고 수화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봄으로써 그들의 고충에 동참해 볼 수 있다. 이 활동은 청각·언어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선의의 관심, 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의 동기유발을 촉진시킨다.

- (1) 노래 「작은 세상」 배우기
- (2) 지화로 「가,나,다,라…」를
- (3) 간단한 수화단어 익히기
- (4) 「작은 세상」을 수화로

3) 작은 정성 큰 기쁨

근래에 들어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핵가족의 증가로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빈민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탁아시설의 증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도시의 화려함과 밝은 면 속에 가려져 언뜻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도시빈민의 탁아시설과 빈민아동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 본다.

- (1) 빈민지역 탁아시설 소개
- (2) 「놀이방의 하루 일과표」 작성
- (3) 「우유팩 의자」 만들기
- (4) 놀이방 어린이와 하루를

3. 실행프로그램 Interaction Program

1) 꽃동네를 찾아서

우리사회의 사랑결핍으로 생긴 의지할 곳 없고 얻어 먹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꽃동네」를 찾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조건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실천으로 옮겨 본다. 이러한 시설방문을 통하여 사랑의 상호작용을 함께 느끼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지닐 수 있다.

- (1) 「꽃동네」 소개
- (2) 방문계획
- (3) 우리는 한가족
- (4) 사랑의 모금활동

2) 세대를 넘어서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힘써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노인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을 이해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문제와

그 실태 그리고 도움활동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벌인다.

- (1) 노인공원 나들이
- (2) 재가노인복지봉사란
- (3) 도우미 활동기술 익히기
- (4) 손주역할 하기

3) 재활용으로 복지를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량은 하루 평균 9만 2천여 톤. 이 많은 쓰레기 중 재활용된 것은 불과 7.2kg. 대부분이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는 '1회용' 생명으로 마감되었다. 많은 쓰레기는 곧 자원의 낭비를 의미한다. 덜 쓰고, 덜 버리고, 재활용하는 '작은 실천'으로 쓰레기를 '살아 있는' 값진 자원으로 만들어야겠다.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통해 환경과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쓰레기 재활용이 환경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배워 간단한 재활용 활동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면서 확산시켜 나가게 한다.

- (1) 쓰레기 매립장 견학
- (2) 우리집 쓰레기부터 측정
- (3) 학교 쓰레기 분리수거
- (4) 재활용으로 복지를

4. 평가프로그램 Appraise Program

1) 사랑 나누기 대회

우리는 학교나 사회에서 흔히 선의의 경쟁이라 말하며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차지하고 더 많은 칭송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경쟁과는 상반된 가치를 지닌 것이기는 하지만 이 활동을 누가 더

잘하나, 더 많이 하나를 겨루어 본다면, 청소년들은 선의의 경쟁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맞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봉사활동에 젊은이다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아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여 즐거움 속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도록 한다.

- (1) 행사계획
- (2) 포스터 제작과 홍보
- (3) 봉사지를 향하여
- (4) 시상 및 사례발표

2) 봉사활동 이미지 측정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우리는 저마다 막연한 상을 갖고 있다. 남이 하는 것을 보면 훌륭하고 대단하고 보람있겠다 생각하면서도 내가 귀한 시간을 들여 하기에는 어쩐지 시간이 아깝고, 매력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활동으로 생각하기 쉽다. 봉사활동에 관한 간단한 이미지 테스트를 통해 봉사활동의 가치를 바로 알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1) 1차 봉사활동 이미지 측정
- (2) 봉사활동 참여
- (3) 2차 이미지 측정
- (4) 나눔의 자리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되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집」에 담지 못한 외국의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정책 그리고 사례 등은 「지역사회봉사활동 개발보고서」인 이 책의 III장 선진외국 활동사례에서 다루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선진제국의 봉사활동 관련 자료들을 소개함으로써, 현재로서는 우리의 사회여건과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활용이 불가능하더라도 적당한 시기가 오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자들의 의욕과 창의력이 함께하여 이 프로그램들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수집된 외국자료 중 우선적으로 소개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들을 발췌·번역하여 수록하였다.

V. 요약 및 제언

지역사회봉사활동 즉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 곳에 사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직접, 간접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자기중심적인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주위환경을 둘러봄으로써 자신이 전체 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과 인간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회복하고 지역 안에서 지역인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활동이다.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확립을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 성숙된 인간성 회복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1. 자료수집과 기관방문으로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의 현황과 기존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2. 외국자료 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적합한 청소년 봉사활동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3. 봉사활동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중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참여관찰함으로써 실제 활동시 유의해야 할 점과 청소년 봉사활동으로 부적합한 내용들을 파악한 후
 4. 질문지를 통한 현장·학계 전문가들의 개별자문 그리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과 개발보고서 방향을 확정하여
 5. 관련전문가와 연구진이 함께 집필에 참여하였다.
- 그 결과 다음의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프로그램집을 개발하였다.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구성

인 식 프 로 그 램	활 동 명	활 동 과 정	활 동 내 용
	기쁨은 배로 고통은 반으로	· 자원봉사 상식수준 · VTR 작품감상 · 자원봉사활동 바로알기 · 자원봉사 표어와 로고제작	자원봉사활동은 이웃과 행복을 나눔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는 활동이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사랑의 지도』 만들기	· 우리마을 알기 ·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 · 우리동네 탐방 · 「사랑의 지도」 만들기	『사랑의 지도』 만들기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조사하여 지도를 만들어 봄으로써 지역사회와 봉사활동의 영역에 대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 VTR 작품감상 · 방문일정표 짜기 · 선물준비 · 시설견학 · 느낌 나누기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생활상을 둘러봄으로써 지역사회 안에 자신과 또 다른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활 동 명	활 동 과 정	활 동 내 용
이 해 프 로 그 램	『내』가 『네』가 되어	· 장애인들의 굴 소개 · 즐겁게 노래를 · 장애체험활동 · 함께 나누기	청소년들이 장애인들이 지닌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함께 살아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니게 한다.
	손끝으로 사랑을	· 노래 「작은 세상」 배우기 · 지화로 「가, 나, 다, 라...」를 · 간단한 수화단어 익히기 · 「작은세상」을 수화로	인간은 누구나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체험이 있으며 이것을 남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청각장애인들의 수화동작을 함께 배워보고 수화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봄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해 본다.
	작은 정성 큰 기쁨	· 빈민지역 탁아시설 소개 · 「놀이방의 하루 일과표」 작성 · 「우유팩 의자」만들기 · 놀이방 어린이와 하루를	도시의 화려함과 밝은 면 속에 가려져 언뜻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도시빈민의 탁아시설과 빈민아동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찾아 보도록 한다.
실 행 프 로 그 램	꽃동네를 찾아서	· 「꽃동네」 소개 · 방문계획 · 우리는 한가족 · 사랑의 모금활동	종합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를 찾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조건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실천으로 옮겨본다.

실 행 프 로 그 램	활 동 명	활 동 과 정	활 동 내 용
	세대를 넘어서	· 노인공원 나들이 · 재가노인복지봉사란 · 도우미 활동기술 익히기 · 손주역할 해보기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노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을 이해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할 것이다.
	재활용으로 복지를	· 쓰레기 매립장 견학 · 우리집 쓰레기부터 측정 · 학교 쓰레기 분리수거 · 재활용으로 복지를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통해 환경과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쓰레기 재활용이 환경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배워 간단한 재활용활동부터 시작해 본다.

평 가 프 로 그 램	사랑 나누기 대회	· 행사계획 · 포스터 제작과 홍보 · 봉사지를 향하여 · 시상 및 사례발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누가 더 잘하나, 더 많이 하나를 견주어본다면 청소년들은 선의의 경쟁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맞볼 수 있을 것이다.
	봉사활동 이미지 측정	· 1차 봉사활동 이미지 측정 · 봉사활동 참여 · 2차 봉사활동 이미지 측정 · 나눔의 자리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우리는 저마다 막연한 상을 갖고 있다. 봉사활동에 관한 간단한 이미지테스트를 통해 봉사활동의 가치를 바로 알고 지속적인 참여의욕을 북돋아 준다.

이상의 11개의 프로그램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보고서 안에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선진 외국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외국 자료들은 기존에 행해지고 있는 봉사활동들을 우리사회의 여건과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게 정리한 이 프로그램집을 다소나마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해 줄 살아있는 이론과 청소년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글과 의견을 소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갖추어져야 할 요소들이 많다.

첫째,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나 선생, 그리고 지역사회의 성인들이 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모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커다란 과제이다. 부모의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모들 자신을 관련시켜야 한다. 부모들을 활동의 기획과 실행, 평가에 관련시킴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가족의 봉사활동을 복돋우고 봉사활동이 청소년들 성격과 학문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교사연수시 봉사활동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도 있고, 방송이나 신문 등의 대중매체의 힘을 빌어 성인들의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올해 중앙일보에서 벌인 자원봉사활동 캠페인은 큰 효과를 거둔 그 한 예이다.

둘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청소년들 삶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학교를 매개로 봉사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에 흡수되건 학교의 동아리 활동이 중심이 되건, 학교 중심의 봉사활동 전개가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종 복지기관이나 복지시설협회가 잘 연계하여 청소년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기관을 소개해 줄 인쇄물이나 영상자료들을 구비하는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넷째, 선진 외국처럼 국가나 민간기업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기금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의 영역개발이 필요하다. 앞서 소개된 프랑스에서와 같이 폐허가 되어 가거나 폐허가 된 고가나 유적지 등을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교수,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복구하고 발굴해 나가는 작업은 정부기관의 개방된 문화재 보호정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문화활동과 더불어 역사의식과 나라사랑의 마음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청소년 봉사활동이라 하여 단순히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그들이 가서 활동할 장소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본 동경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수백 종류의 시청각 자료를 구비·대여함으로써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외국의 자원봉사활동 사례를 담은 VTR 자료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갖추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청소년 봉사활동의 전개와 더불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의 성패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성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동참에 달려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명순(1985), 빈민여성 빈민아동, 아침.
- 권명자(1991), 유치원 교수·학습을 위한 활동영역별 지도자료, 보육사.
- 김영호(1992), 자원봉사 이론과 실제, 홍익재.
- 김옥라·김현자 역(1989), 자원봉사: 사랑의 공동체, 회성출판사.
- 박태경·최경익 역(1993), 자원봉사활동조정자, 도서출판 은익.
- 이가옥 외 3인(1991), 가정봉사원제도의 정착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창희(1992), 재가노인을 위한:가정봉사의 이론과 실제, 홍익재.
- 장인협 외 1인(1994),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주성민(1988), 한국의 지역사회학교운동, 한국지역사회학교 후원회.
- 천명기(1985),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출판부.
- 한국농아복지회 편저(1991), 수화교실, 수협사.
- 한국복지연구소 편역(1987), 사회복지의 사상, 이론과 실천.
- 한완상(1973), 현대사회와 청년문화, 법문사.

논문 및 보고서

- 고경애(1989), 한국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순실 외 3인(1986), 자원활동자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정 외 8인(1985), 자원활동과 사회발전,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명 외 4인(1991), 청소년 활동 동기부여 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정자 외 2인(1989),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영아, 육아시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자(1989),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아, 육아시설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이(1992), 도시 재가복지서비스의 평가와 개선방안-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대한YMCA연맹(1993), 전국 YMCA가 함께 전개하는 환경보전생활실천치침 - 환경 우리들의 제안, 대한 YMCA연맹.
- 박광수(1991),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사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상일(1992),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찬욱(1994), 청소년의 봉사에 대한 태도와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청소년 적십자 단원과 비단원의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사회복지문제연구소편(1990), 자원봉사자론, 사회복지문제연구소.
-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1994), 환경보전과 시민운동, 서울 YMCA.
-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1987), 도시 무허가 정착지의 성격과 생활실태-서울 사당동 재개발지역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 서초구청 문화공보실(1994), 서초 생활안내, 서초구청 문화공보실.
- 송광성 외 2인(1992), 도시농촌교환봉사활동, 한국청소년연구원.
- 신동성(1993), SBS 비디오 가이드, SBS 프로덕션.
- 신인숙(1989), 시설아동의 집단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육아시설 중학생 중심으로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순덕 외 4인(1988), 영세지역 아동보육 및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양인기(1980), 자원봉사활동 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경원(1991), 도시형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동대문구 거주 노인들의 의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명주(1982), 가정탁아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은평천사원 출판부(1993), 우리들이 뛰어놀기 적당한 하늘, 은평천사원 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1984), 자원활동의 이론과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자원봉사자 씨클럽회(1980), 자원봉사사례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출판부.
- 정승용(1990), 한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휘일(1990),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흥식(1990), 도시빈민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실태에 관한 연구—생태체계적 관점의 문제조정도구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지역탁아연합회(1992), 게임놀이 자료집, 지역탁아연합회.
- 지역탁아연합회(1992), 탁아자원활동이란, 지역탁아연합회.
- 채준안(1990), 정신지체아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윤진 외 1인(1993),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희(1990), 가정봉사 서비스에 관한 연구—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봉사원을 중심으로—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은영(1991), 한국의 가정복지봉사원 활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걸스카웃연맹(1992), 대활동 우수프로그램자료집, 한국걸스카웃연맹.
- 한국교육개발원(1992), 사회와 시민(중학교 민주시민 교육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1994), 한국노인복지 사십년사,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복지정책연구소(1985),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교연구, 한국복지
정책연구소.

한국사회복지관협회(1992),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보고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1992),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1993), 재가복지봉사센터 :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한국사회
복지관협회.

————— (1994), 제2회 전국사회복지관 직원교육 : 빈곤대책의 전환
과 사회복지관의 역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산지회(1992), 재가복지봉사활동 사례모음집 : 만남, 한
국사회복지관협회 부산지회.

한국사회복지학회(1991),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사회복지
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88), 자원봉사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한
국사회복지협의회.

————— (1992), 지역복지봉사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어린이재단(1987), 사회복지관 사례연구(3), 한국어린이재단.

————— (1988), 사회복지관 사례연구(4), 한국어린이재단.

한국여성개발원(1987), 사랑으로 복지활동 참여 - 자원활동 현장사례집 -, 한
국여성개발원.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1990), 자원봉사의 길잡이, 한국자원봉사능력개
발연구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1),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단.

한국청각장애복지회(1991), 청각장애편람, 한국청각장애복지회.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94 청소년 수련광장 참고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1987),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백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연맹(1986), *한별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연맹.

————— (1993), *시청각자료목록집*, 한국청소년연맹.

한재란(1991), *청소년적십자 활동과 사회적 특성 발달과의 관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현대사회연구소(1984),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연구*, 현대사회연구소.

KBS 영상사업단(1994), '94 KBS 비디오가이드, KBS.

MBC 프로덕션(1994), '94 프로그램가이드, MBC.

외국문헌 및 자료

Association des Amis de Notre-Dame-de-Lure(1994), *Activités du Chantier*, Association des Amis de Notre-Dame-de-Lure.

Australian Award office of the Duke of Edinburgh's Award(1977), *Manual of Programs*, Birginia Balmain, Australian Award office of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1993), *ACTUEL CIDJ—Chantiers de travail volontaire*, 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

Chantiers de Jeunes(1994), *Faites le Mur*, Chantiers de Jeunes

Giles Darvill & Brian Munday(1984), *Volunteers in the Personal Social Services*, Tavistock Publications.

Marie Pierre Baudry(1993), *Comprendre et restaurer un monument—De l'étude à la réutilisation*, REMPART.

Maryland Student Service Alliance(1992), *Draft Instructional Framework in Service —Learning for Middle School*, Maryland Student Service Alliance.

Meryland Student Service Alliance(1993), *Special Education Service—Learning Guide*, Meryland Student Service Alliance.

Meryland Student Service Alliance(1993), *High School Service—Learning*

- Guide*, Maryland Student Service Alliance.
- National Youth Leadership Council(1994), *Learning By Giving*, National Youth Leadership Council.
- REMPART(1986), *Organisation d'un chantier*, REMPART.
- REMPART(1985), *Orientations pour l'union*, REMPART.
- Rich Willits Cairn & James C. Kielsmeier(1991), *Growing Hope : A Sourcebook on Integrating Youth Service into the School Curriculum 1st edition*, National Youth Leadership Council.
- Volunteer Center, Inc. (1994), *Teen Times—Spring Semester, Vol. 1, No. 1*, Volunteer Center, Inc.
- 東京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1992), ボランティア ハンドブック, 東京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
- 総務廳青少年對策本部(1993), 「青少年のボランティアに関する調査報告書, 総務廳青少年對策本部.